금주의 법구-〈법구경〉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2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0호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가 3월 2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제1차 환수기원법회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중단 및 부지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한전부지 환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조계종, 1차 환수기원법회… 무기한 정진 돌입

1970년 군사정권으로부터 강탈당한 옛 봉은사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불교계 환수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 이하 환수위)는 3월 2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만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강탈의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함성이 울려퍼졌다. 이날 불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전부지의 봉은사 환수 △현대차가 신청한 부지개발계획에 대한 인 · 허가 절차 즉시 중단 △봉은사 경내지 불법 강탈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1970년 정부 불법매입 후 민간매각

문제의 대상인 봉은사 옛 토지는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의 과거시험인 승과가 열렸던 승과평이었다. 토지 규모는 10만평에 달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 상공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상공부 청사 이전을 빌미로 이 10만평을 조계종으로부터 매입했다. 계약과정은 불법이었다.

조계종 환수위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인 윤진우가 만든 가상의 인물인 윤태진 명의로 매입을 추진한다. 공시지가의 반액인 평당 5300원이었다. 봉은사 측은 격렬히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조계종 총무원을 겁박해 계약을 이끌어 낸다. 계약 당사자인 봉은사 주지 날인이 들어가지 않은 불법계약을 진행한 것이었다.

당시 불교재산 처분 승인을 맡은 문공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들며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윤태진 명의 대신 상공부가 계약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강행했다.

문제는 정작 정부가 상공부를 이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1984년 한국전력만이 2만 5000여 평의 부지에 입주했고 정부는 나머지 7만 5000여 평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이후 국가기관이었던 한전마저 다시 민영기업에 이 2만 5000평을 매각하게 됐다.

대규모 개발에 LTE급 건축허가 의혹

문제는 이 2만 5000평에 현대차가 2021년까지 105층 규모의 신사옥과 6개 동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지을 예정이란 점이다. 전통사찰인 봉은사를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지만 서울시는 단 6개월 만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올 6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환수위 공동위원장)은 "초고층 건물 건축 허가에 수년이 소요되지만 서울시는 단 6개월 만에 사전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런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허가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환수위 대표스님들은 3월 10일과 14일, 법회가 열린 23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심지어 23일에는 서울시청에서 면담요청하는 스님들이 경찰병력에 의해 끌려나오며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환수위 "2000만 불자들 분개할 것"

환수위는 3월 23일부터 서울시청 앞에 천막으로 된 임시법당을 설치하고 서울시의 인허가 중단까지 무기한 기도정진에 돌입한 상태다. 임시법당 주지는 환수위 집행위원장 법원 스님이 맡으며 신도들과 스님들이 12시간 씩 교대로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봉석 환수위 대변인은 "이날 법회에서 봉은사 토지를 되찾을 때까지 2차와 3차 기원법회를 열고 100만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로펌을 선임해 1970년대 진행된 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차와 3차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지현 스님은 "과거 정권의 이익을 위해 계획되고 서울시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불교를 살리는 일"이라며 "불교계를 기망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참회가 없을 시 1만을 넘어 2000만 불자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덕현 기자

옛 봉은사 땅에 얽힌 수난사

선정릉 능찰 봉은사, 삼성동 일대 10만평 보유 (삼성동 명칭 유래)	
1555년 4월	'승과' 재개, 한전부지 '승과평'으로 불림
1969년 12월	이후락 비서실장 참관 하에 조계종 기관장 매매 동의
1970년 1월	윤진우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10만평 매매 계약
1970년 9월	문공부 주변시세 미흡한 계약에 재감정 및 적정가 처분 요구
1970년 9월	정부, 매수인 윤진우에서 상공부로 변경.
1984년	한국전력 2만 5000평에 입주
2007년	봉은사, 한전부지 환수 요청
2014년 9월	한전, 현대차에 부지 매각 결정
2016년 2월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 출범
2016년 3월 23일	제1차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 봉행

"군사정권, 불교계 겁박해 강탈"
당시 불법계약 · 압력 내용 드러나
1만 불자 모여 정부 · 서울시 규탄

부지매각 후 서울시 광속 인허가
환수위 "환경영향 고려없는 기망"
향후 100만 서명, 2차 집회 계획

경전 이야기, 그림으로 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변상도 800여점 아카이브로 제공

아카이브 사업 연구 결과물
기록문화유산 관리 · 활용 모델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자체 뷰어로 제공하는 '관무량수경' 변상도 이미지.

불교경전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그간 수집 · 연구한 변상도 이미지 856점을 최근 자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변상도(變相圖)는 불교 설화, 경전의 내용이나 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변(變)은 구전된 이야기를 문자나 그림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인데, 변상(變相)은 이 가운데서도 그림을 통해 불교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손꼽힌다. 변상은 넓은 의미에서 회화와 조각 등 부조까지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경전의 내용을 도상으로 설명하는 경전 그림'으로 사경화(寫經畵)와 판경화(版經畵)를 가리킨다.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을 진행해온 불교학술원은, 이를 소장처 별로 정리한 '신집성문헌 검색시스템'으로 공개해왔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집성문헌에 담겨있는 변상도를 소장처와 문헌별로 분류함으로써 변상도만을 특화한 '변상도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불교학술원이 공개한 변상도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동화사, 용흥사 등 11개소의 소장처에서 '관무량수불경' 등 156종 문헌에 나타난 856점의 변상도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각 문헌에 흩어져 있던 변상도를 모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해 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수행한 결과다. 불교학술원은 각 문헌의 변상도만을 볼 수 있는 변상도 뷰어를 개발하고, 해당 문헌에 수록된 변상도를 한 면 보기, 두 면 보기로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불교학술원은 공개된 변상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벡터화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픽셀로 표현된 이미지를 벡터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벡터화가 마무리된 이미지는 확대해도 해상도에 관계없이 형태와 색을 유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벡터화된 변상도는 색을 입혀서 보다 사실적인 전달을 위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변상도 이미지를 성격별로 분류해 각각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불교학술원은 "앞으로도 조사 및 촬영된 문헌에 포함된 변상도만 따로 모아, 이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대성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필요한 원천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축 맞아 저소득 아동 캠페인 실시

아름다운 동행, 5월 31일까지 ARS · 계좌 후원

불교계가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BTN불교TV(사장 구본일)와 함께 봉축 모금 캠페인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내외 빈곤 아동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은 3월 14일~5월 31일 진행된다. 전화 한 통화로 3,000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060-700-0011) 또는 계좌(023501-04-234755, 예금주 아름다운동행)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장학금,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지원, 모자가정 아동청소녀들의 소원 들어주기를 비롯해 해외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영양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02)737-959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 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8대 총림 실사 들어가

총림특위, 3월 24일 첫 회의…4월 말 범어사부터 시작

조계종 8대 총림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시 시작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총림특위)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4월 말 범어사와 통도사부터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림특위는 매월 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정기회의서 활동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8대 총림 실사는 총림 지정 이후 일부 총림이 총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림은 선 · 교 · 율을 닦는 종합수행도량으로 1946년 가야총림이 시작돼 1967년 해인총림으로 거듭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 덕숭총림 수덕사에 이어 1996년 고불총림 백양사가 지정됐으며 2012년 금정총림 범어사, 팔공총림 동화사, 쌍계총림 쌍계사가 한번에 지정됐다. 3개 총림의 지정 당시 일부 사찰의 총림 요건 미비로 보완 사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었으며, 2013년 1차로 총림실사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총림은 출가자 감소 등으로 총림 내 승가대학의 학년당 기준 인원이 미달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번 총림실사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와 교육원 관계자도 함께 문제해결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지난 15대 중앙종회에서의 3대 총림 지정 당시 2년 내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해당 사찰의 요건을 살피고 문제점을 확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JSA에 평화의 佛法 전해지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3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신축법당 무량수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 현역 군장교 및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사에 따라 무량수전은 82.32㎡(24.9평), 종각 9㎡(2.72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불사비용은 약 9억 원이 소요된다. 윤호섭 기자

비구니회, 조직 강화로 '新 성장동력' 만든다

3월 24일 정기총회서 회칙 제개정 결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이하 비구니회)가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 전반을 결의하는 운영위원회, 지역 의결기구인 지회를 정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초석을 놓았다.

비구니회는 3월 24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법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지회 구성 등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 모두 회원 스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불분명한 조항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켰던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대한 제개정이 이뤄졌다.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최고 의결기관 총회 활성화 △운영위원회 지회 대표 참여 확대 △집행부 기구 정비 및 활동근거 마련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절차 및 자격 기준 명시 △지회 활동의 자율성 확보 근거 마련 등이다. 이 같은 회칙 제개정은 지난해 불거졌던 내부 갈등을 넘어 결속력을 다지고 발전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회칙 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은 조계종 소속 비구니를 정회원으로, 사미니를 준회원으로 명시됐으며, 보문종 스님들은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원 권리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됐으며, 문제가 됐던 운영위원회의 임시 총회 대체 규정은 삭제됐다. 또한 △임원 선출 및 해임 △주요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해산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 설정 △장기자금 차입 등에 대한 사안이 신설돼 총회 의결 권한이 강화됐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은 강화됐다. 운영위원은 회장단, 집행부 부실장, 문화센터장 등 당연직 31명과 지회에서 선출돼 올라온 78명으로 구성된다.

총회 · 운영위원회 · 지회 활성화
집행부 정비 · 활동 근거 마련
중앙종회의원 선출 기준 명기
17개 지회 개편 · 원로회 구성도
보문종 스님 특별회원 참여 가능
카페 운영 등 회관 문호도 개방

또한 선출 기준이 불분명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명시돼 투명성을 확보됐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는 율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 문화재, 법제 · 행정, 국제 · 해외 10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이 되며,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4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법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제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도 2실, 7부로 변화했으며, 일상적 업무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종무회의를 신설했다. 지회도 14곳이었던 것을 17곳으로 확대 · 운영키로 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비구니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3월 25일 1층에 오픈한 카페 '메따'는 비구니회관을 일반에 문호 개방한다.

또한, 비구니 사업단(가칭)과 비구니 복지후원회(가칭)을 통해서는 장기 수익 구조를 만들고, 비구니 스님에게 이를 회향하는 순환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현재, 수요가 높은 커피 판매와 친환경 반찬 · 먹거리 유통 등이 1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도 이뤄졌다. 명예원로의원으로는 경순 · 혜해 · 광우 · 진관 · 법운 · 경희 · 정륜 · 경심 · 성타 스님이 이름을 올렸으며, 원로의원으로는 명성 · 제희 · 묘관 · 보각 · 혜운 · 자광 · 명수 · 운달 · 수현 · 법희 · 불필 · 자행 · 제운 · 자민 · 혜준 · 행돈 스님이 추대됐다. 또한 비구니회는 보문종 대인 스님을 특별원로의원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 대해 비구니회 기획실장 혜조 스님은 "회칙 제개정 요구는 전반적인 비구니 대중 스님들의 목소리였다. 지회 구성을 통해 제개정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총회준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회칙 제개정을 이끌었다"면서 "원로스님들을 여법하게 모시기 위한 원로회의 구성과 장기사업 승인도 비구니회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구니회는 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위한 결의문과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비구니회 대중은 기타 안건 토의를 통해 지난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기존 중앙종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인종차별 없애야 세계 평화 찾아올 것"

사회노동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성명문 발표

"세계 평화는 내 민족과 국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민족과 국가를 존중할 때 찾아올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공존과 평등,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라며,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정책도 과감히 개선되길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한국사회 곳곳에 산재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서 희생된 69명의 시민들을 추모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국제연합(UN)이 1966년 제정했다.

사회노동위는 "한국 사회에는 18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이웃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차별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장 변경제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등 반인간적인 행위들이 스스럼없이 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3월 21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총무원장 임기 5년 단임, 추천인단 500명 추진

조계종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 24일 선출법 제정안 마련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이른바 '염화미소법'의 입법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혁신특위)는 3월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사부대중100인대중공사에 전달할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번 특위의 '총무원장 선출법 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전체 500명의 추천인단이 복수추천한다. 추천인단은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해 법계 중덕 이상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추천한 10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추천인단 전체 20%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택되며 이 후보는 갈마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뒤 종정 스님의 최종 추첨을 통해 선출된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갈마위원회는 법계위원,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 계단위원, 선 · 율 · 강원 대표, 중앙신도회 추천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검증에는 갈마위원회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추천 후 갈마위원회서 검증
대중공사에 특위 참여, 토론 계획

종정 스님의 추첨에서 탈락한 후보는 추첨발표 후 1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1일 이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종정 스님의 추첨 후 원로회의는 3일 이내 승인 해야 한다.

특위 위원장 초격 스님은 "특위가 구성되며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번의 논의를 거쳐 좋은 안건이 도출됐다"며 "3월 31일 1차 중앙 대중공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 5월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1차 중앙 대중공사에서 장명 스님이 대표로 발제할 예정이며 화평 스님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염화미소법을 발의한 법등 스님에게도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혁신 특위는 대중공사에서 채택되는 안건을 토대로 5월 말 7차 회의를 열고 6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2016 불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불기2560년 불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와 한국불교 위상을 드높인 불자에게 수여하는 종단 내 최고상이다.

추천대상은 불법홍포나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종단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 등이며, 외국인과 고인(故人), 단체도 추천 가능하다.

추천자격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산하사찰 주지이다. 추천 접수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시상식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2011-1723

노덕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불교환경 '재도약' 선언… 4대강 순례길 오른다

불교환경연대, 3월 21일 신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

2010년 수경 스님의 칩거 이후 지도층 부재에 따라 유명무실화된 '불교환경연대'가 재도약을 선언하고, 첫 행보로 '4대강 100일 수행길'에 오른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21일 조계사 신도회관 4층 사무국에서 신임 공동대표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불교환경연대는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유정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대표단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21일 조계사 신도회관 4층 사무국에서 신임 공동대표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임 공동대표단 및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등을 발표했다.

법일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불교환경운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갖고,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불교적 사상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과거 불교환경운동을 발전 · 계승해 생명평화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9월 창립 후 북한산관통도로 건설저지 운동, 천성산 살리기 운동,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운동 등 범사회적 환경운동을 펼쳤을 뿐 아니라, 서산 · 구리남양주 · 강릉 · 광주 등 전국 지부를 창설하며 불교 환경운동의 저변을 넓혔다.

하지만 당시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2010년 사퇴와 함께 칩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도력 약화로 인해 '숲 해설가' 양성 등 환경교육활동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다. 공식 창립 전 준비위원장을 맡은 유정길 현 운영위원장은 "지도층 부재로 활동이 미비해지자 불교환경연대 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기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출범당시 활동한 사람들이 모여 새 대표단을 추천, 재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를 주창하며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오른다.

이번 수행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완료됐지만 더욱 악화되고 있는 환경폐해를 널리 알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개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계획됐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 활동방향 밝혀
"불교 환경운동 사상 · 전통 계승"
4월 3일 '4대강 100일 순례길' 올라
관심 환기 및 구체적 사업계획 구상

또한 그간 미약했던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구체적 사업 계획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일 스님은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미완의 일'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4대강 순례길은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둘러보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례는 4월 3일 영산강 하구둑을 시작으로 금강 하구언(4월 19일), 낙동강 하구언 (5월 10일), 충주댐(6월 21일) 등지를 거쳐 7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한다. 하루 10~15km 행보하며 오체투지 · 묵언 · 염불 · 좌선 · 법회 · 방생 등 불교적 수행과 함께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한다.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일반인들의 순례단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유정길 운영위원장은 순례 기간 동안 전국 사찰 등에서 숙박을 해결할 것이라 밝히며, 이에 대해 "사찰들에 대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교환경운동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교환경연대는 향후 활동방향을 △실천 △교육 △조직 총 3개 영역으로 나누고, 불교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환경 사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사찰환경을 수호하며 숲과 국립공원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난개발 시대에 중요한 환경사안이자 가람수호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제"라면서 "국립공원 및 사찰환경 수호, 사찰 숲 지키기, 생태사찰 만들기 운동 등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불교환경 조직과 교구본사별 환경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해 지역 생태 수호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현재까지(3월 21일 기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유정길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범해 · 법만 · 법현 · 심산 · 장명 · 행법 스님 등 10명 등 위촉했다. 7월 까지 대표단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7월 11일 서울 조계사에 진행되는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회향식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보은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임명

자승 스님, 문중 화합 당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주지에 정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3일 임명식을 열고 정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위〉

자승 스님은 정도 스님에게 "법주사는 금오스님의 종가사찰로 산중의 어른스님들 잘 모시고 화합해서 선원, 강원을 원만히 잘 운영해달라. 또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창룡사 주지 및 제14, 15,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성역화 불사 전국 모연 법회 열린다

4월 7일 초하루법회와 동시에

조계종이 4월 7일 전국사찰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위한 동시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본부(추진위원장 지현, 이하 성역화 추진본부)는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초하루법회를 기해 불자들에게 성역화 불사의 의미를 알리고 동참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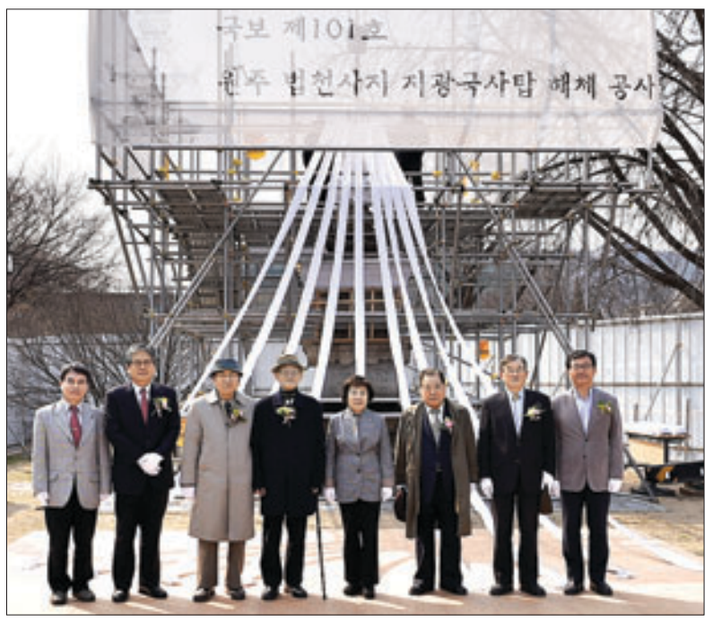
동시법회에서는 성역화불사 홍보 동영상 상영과 함께 문자 및 ARS모연이 진행된다. 각 사찰의 종무소와 게시판에는 이번 법회에 맞춰 홍보포스터도 부착된다.

한편, 성역화 추진본부는 3월 25일 조계사 일주문 앞마당에서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를 듣고 제막 및 발원문 낭독, 지신밟기 등의 행사일정을 소화했다.

신도회관에 입주한 불교계 NGO단체들은 조계사 교육관과 주차장의 임시사무실로 이전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 · 보수 시작

일제강점기 밀반출과 6.25 전쟁 당시 폭격 피해를 입고 9번 자리를 옮겼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보존처리를 위해 본격 해체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3월 22일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해체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구소는 탑의 상륜부(상층부)에 위치한 보주(寶珠, 구슬 모양의 장식)만 상징적으로 해체했다. 탑은 4월 2일까지 전체 부재가 해체되며, 해체된 부재는 4월 6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조 보존처리실로 운송돼 보존 작업에 들어간다. 연구소는 2019년까지 과학적 보존처리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해체 후다. 이전처를 놓고 불교계와 강원도 · 원주시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한 쌍으로 원주 법천사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문화재청



"북한 제재 조치와 함께 협상 출구 마련하라"

이서행 교수, 3월 21일 한평불 개최 토론회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대화의 길이 막히면 한반도 위기 조성과 안보문제는 장기간 불투명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출구 없는 제재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 이하 한평불)은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는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사진〉, 토론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이서행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정부의 제재 조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제재조치가 북한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결속과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라며 "단호함만으로 제재가 성공했다는 사례와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 정책의 문제는 북한에 제재 이후의 출구, 즉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이 더욱 고도화된 건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6자회담이 하나의 배경일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선언적 제재보다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같은 섬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욱식 대표는 평화협정을 하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현 국면에서 평화협정은 북의 핵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남한으로서는 '국가안보'와 '미래평화통일의 구상'이란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평화협정에서는 비핵화 시한 및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거룩한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 동산'
신성한 보리수 나무 앞에 '행복 1년 등'을 접수합니다.

한국불자님을 위한 행운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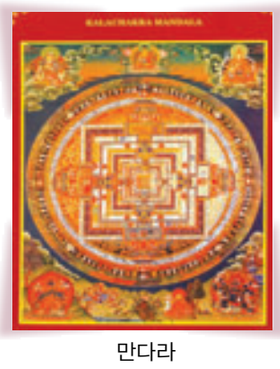
- 17명의 네팔 '라마승'들이 날마다 축원기도를 올립니다.
- 불자님이 직접 '연등을 달 수 있습니다.
- 수익금은 지진피해 후원으로 지원합니다.
- 1년간 '인증서'를 드리며 관리 책임을 집니다.
- 선착순 1,000명에게 '만다라' '보리수잎'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 각 사찰 주지스님께 신청하십시오.
- 네팔 관광과 함께 룸비니에서 연등을 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십시오.

승인기관 | 네팔업무담당 | 한국연등달기추진본부


설치된 연등




아기부처님


만다라


보리수 잎

문의 : 010-6757-6295 | 010-9320-0189 | 팩스 054)751-8882

일 주 문



보살계 수계 법회

현성 서울 도선사 조실 스님은 3월 16일 홍은동 현성정사에서 출가 열반절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보살계산림

영배 양산 통도사 주지 스님은 4월 11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보살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한다. 회향은 13일.



불교방송 상임이사 선출

정념 서울 흥천사 회주 스님은 3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94차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됐다.



마곡사 산사음악회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4월 30일 오후 7시 경내 특별무대에서 '마곡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성공회대서 채플 강의

법현 태고종 열린선원장 스님은 기독교 종립 성공회대에서 올해 1학기 동안 불교를 주제로 채플 강의를 진행한다.

"비수도권 최고 사립대로 육성"

Interview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발전기금 연간 40억원 모연 계획

불교발전위 발족 · 선센터 건립

창조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강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신임총장 취임을 계기로 비수도권 사립대학 중 3위 진입을 목표로 힘차게 발돋움한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3월 21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전에 대해 밝혔다.

이 총장은 "지금 대학은 변화를 주문받고 있다. '참사람 인재양성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기초교육 강화, 인성교육, 실용교육으로 교육의 내실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현재 비수도권 사립대 중 8위권인 경주 동국대를 3위까지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핵심과제도 소개했다.

첫째는 기초교육 강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를 위해 올해 이공계열 신입생들에게 학문기초 교과목 수준별 강의를 도입했다. 두 번째는 실용중심 교육이다. 이 총장은 "올해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대학에 선정됐다. 이와 연계해 취업 지원센터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인성교육 강화다. 불교종립대학 건립이념에 기반을 둔 교육을 강화하고 참사람 핵심역량 육성과정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다양화 시킬 계획이다. 네 번째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로 교양, 전공 교육 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운영 평가 분석 제도를 마련한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팔정도를 실천하고 생각해 좌우명이 되도록 하는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와 교육지원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30여억 원인 발전기금 모금액을 40여억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발전기금을 내고 싶은 대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불교발전위를 연내 발족하고, 선센터 건립, 고승학 연구, 사찰림 생태환경 연구 등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유력인사, 동문들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미래기획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한편, 이대원 총장은 1980년 동국대 농업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독일 Kiel대학원 석사, 1993년 동 대학원 박사를 취득했다. 1993년 동국대 교수로 부임해 바이오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3일 제297차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다. 이 총장의 취임식은 3월 3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비전선포식도 함께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노동위-비정규직네트워크 MOU

비정규직 노동자 마음건강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대표 이남신)와 3월 21일 MOU협약을 맺고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 및 심리 치유,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사회노동위는 비정규네트워크 소속 32개 단체와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박아름 기자

베트남서 한국어학당 입학식

국제연꽃마을, 쾅남성 탐키시에



(사)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은 3월 6일 베트남 쾅남성 탐키시에서 한국어학당 입학식 및 어린이집 기공식을 열었다. 원명 스님은 "탐키시 지역민 중에 한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글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서 "최고의 시설과 강사진으로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졸업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귀향, 뼈아픈 역사… 함께 기억하리

지구촌공생회, 3월 19일 영화 '귀향' 상영회



불교계 국제구호NGO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월 19일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후원자 초청 '귀향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할머니 4명과 조정래 감독, '귀향' 출연배우,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배우 전무송 씨와 강수연 씨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이자 나눔의집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는 월주 스님은 "위안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상영되지 못했는데 '귀향'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조정래 감독은 '귀향' 촬영에 앞서 11년 동안 나눔의집에 방문해 할머니들과 친분을 쌓고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귀향'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눔의집 김군자 할머니는 영화 상영에 앞서 지구촌공생회에 '빈곤국가 교육지원 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김군자 할머니가 그동안 받은 위로금을 쓰지 않고 모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박아름 기자**

현대불교문학상 고영섭 등 4인 선정

시 · 시조 · 소설 · 평론 부문… 4월 16일 시상식


고영섭


하순희


김용희


정효구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견 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 ·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제21회 수상자와 작품으로는 △시 부문 고영섭(시인, 동국대 교수)의 '길- 사랑의 지도' 외 4편 △시조 부문 하순희(시조시인)의 '제 3의 나라' 외 4편 △소설 부문 김용희(소설가)의 〈해랑〉 △평론 부문 정효구(문학평론가)의 '붓다와 함께 쓰는 시론'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수상에 대해 시 부문 수상자 고영섭 시인은 "이 땅의 시인들에게 불도유(佛道儒) 삼교와 무속 · 향가는 유전인자였듯이 신명을 실은 가무를 통해 만해의 '님의 침묵 님'과 미당의 '우리 님'에 다가가려 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소설가도 "식민지 시기, 살아남은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끔찍한 시절에 조선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부조리' '삶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부족한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4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손에 잡히는 평화 공유할 터"

평화살림콘서트 여는 변택주 살림연구가


변택주 살림연구가

"아이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학원 안 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찾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관념 속이 아닌 손에 잡히는 평화를요."

한반도에 꼬마평화도서관 1만개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활동중인 변택주 살림연구가는 3월 21일 서울 방배동 '마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진행하는 '평화살림콘서트'에 대해 설명했다.

평화살림콘서트는 3월 27일 〈미술관에 간 붓다〉 저자 명법스님을 첫 주자로 문화운동가 채현국 선생(5/29),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7/31), '한국 고기 없는 월요일' 대표 이현주 한약사(9/25),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저자 일진 스님(11/27)이 나설 예정이다. 행사는 서울 방배동 오신채 없는 밥집 '마지'에서 진행된다. 콘서트는 각 초청 인사들의 '평화이야기'로 문을 연다. 이후 변택주 씨와 초청 인사 간의 평화 대담이 이어진다. 이는 '평화(平和)'는 단 두 글자이지만 각자 받아들이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것이다. 또 평화를 주제로 한 동화책 구연, 문화공연, 청중과의 대화 등도 진행된다.

"신영복 선생께서 감옥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은 독방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겨우 신문지 크기만한 햇볕이었다고 하셨죠.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살고 죽는 건 작은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지 모색할 겁니다." **윤호섭 기자**

봄 가득 담아 선물 드려요!

중림福, 우리은행과 저소득가정 지원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3월 18일 '제2회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봄 가득 사랑 한 상자' 행사를 개최했다. '봄 가득 사랑 한 상자'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레트로트 식품 · 세안용품 · 양말 · 화장지 등을 담은 선물 상자를 전달하는 행사다.

박아름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4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물 흐르듯…
5작품 한정제작

■ 제목 : 해수관세움보살님-수곽1
■ 크기 : 1500(가로)×900(세로)×1800(높이)㎜
■ 재료 : Bronze(황동주물), 화강석 다이

불교조각연구원
상담전화
031-429-1077
010-9195-1044

국내외 불교문화, 한 자리에 총 출동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현장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주)다나가 마련한 '360VR'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VR기기를 착용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실제 예불이 진행되는 법당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어머~ 없는 게 없네. 오랫동안 신행생활을 해왔지만 불교와 관련된 문화상품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전혀 몰랐어요."

3월 24일, 불교박람회 구경을 위해 이른 아침 전라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온 정민숙(45) 씨는 행사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지방에서 말로만 듣던 박람회를 직접 찾아와 체험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불교관련 문화상품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 씨와 같이 온 지인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공감했다.

불교문화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박람회인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24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27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불교박람회에는 280여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급 위용을 자랑했다.

박람회는 총 3관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관은 '마음이 쉬는 공간'으로 불교관련 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산업전을 선보인다. 불사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공방과 시공업체 등 150여개 부스가 마련돼 있다. 제2관은 '예술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붓다아트페스티벌(BAF)을 필두로 한 예술전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3관은 '여유를 만드는 공간'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등을 통해 각종 체험과 관련 상품 판매 등이 이뤄진다.

올해 박람회 대주제는 '마음이 쉬는 공간-불사'다. 세상살이에 지친 중생들을 위해 곳곳의 도량이 문 열고 있다는 의미로 불교에 잘 어울리는 주제다. 이에 맞춰 국내 불사관련 산업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그래서 주제전도 전통사찰건축의 대가인 최기영 대목장전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 전시가 눈길을 끌었다. 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세운 묘엄 스님을 기리는 '우리스님, 묘엄 스님전'과 가상현실기술의 관심에 따라 마련된 '360VR', 불교미술계 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 '청년불교미술작가전' 등이 그것이다.

280여 업체 참가… 최대 규모
신규 전시회에 관람객 큰 호응
만들기 체험은 '스테디셀러'

제2관에 부스가 마련된 묘엄 스님전에는 수원 봉녕사가 소장한 묘엄 스님 유품 및 사진자료가 공개됐다. 생전에 묘엄 스님이 사용한 안경과 다구, 가사장삼 등이 전시됐으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도 공개돼 비구니스님과 우바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법명을 밝히지 않은 한 비구니 스님은 "묘엄 스님은 비구니계의 큰 어른으로서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으셨다. 가까이서 뵙지 못했지만 그 업적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렇게라도 스님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문화와 첨단 IT기술의 접목을 선보이기 위해 참가한 (주)다나의 '360VR'은 많은 불자들에게 신선하다는 평을 얻었다. 다나 측은 이번에 불국사와 송광사, 청암사에 대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했다. VR기기를 장착하면 예불이 진행되는 법당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불교박람회에 처음 왔다는 유인재(22) 씨는 "재밌고 정말 참신하다. VR기기는 처음 체험해본다"면서 "법당에서 스님들과 예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대종 (주)다나 대표는 "불교가 과학기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박람회에 참가했다"며 "기술이 개발될수록 아이들 교육용이나 불자들의 편의성 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의 또 다른 축인 붓다아트페스티벌(BAF)은 여느 해보다 젊은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막연히 불교는 무겁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편안한 그림체의 작품과 불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면서도 동국불교미술인회의 '헐즉보리전'과 현대미술특별전 '모던붓다전'은 자본주의 사회에 얼룩진 정신적 가치를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돕는 불교이미지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박람회에는 중국 샤먼(廈門) 국제불사용품전람회 측 업체와 푸첸성 측 업체, 대만 불광산사 분원 서울불광산사, 주한 스리랑카대사관 등이 참여해 해외불교를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의 장도 펼쳐졌다. 또한 이전부터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만들기', 봉은사의 '연꽃 만들기' 등 체험전은 올해에도 관람객들이 붐볐다.

우관 스님의 '연잎밥 만들기'를 체험한 류선순(58) 씨는 "친구 소개로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청주에서 올라왔다. 올해 불교대학에 입학하며 관심이 생겼다"며 "행사 분위기가 편안해 좋았다. 여기서 배운 레시피를 통해 집에서 사찰음식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외무대 오색실 커팅에 이어 내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대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공동운영위원장 지홍 · 주경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회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적, 문화예술적 진면목을 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다. 중국 · 일본 · 대만 · 스리랑카 등 이웃나라가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거듭난 불교박람회가 문화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붓다아트페스티벌'이 함께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나고 불교미술을 선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성취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불교문화는 수천 년 우리 민족의 긴 역사와 함께해온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모든 예술과 생활 분야에서 불교문화를 빼놓고는 우리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문화는 우리 역사와 문화 전반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며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국민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세계로 우리 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주 스님의 캐릭터 '다워니 발원이'를 종이와 전구로 꾸민 작품. 이외에도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다.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내빈들이 우리나라 전통색상인 오방색을 표현한 오색실 커팅을 하는 모습.


조계종 자승 · 천태종 춘광 총무원장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내빈이 차담을 나누고 있다.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중2병아 물렀거라”… Egg깨뜨림, 꿈사리 등

청소년 인성교육 불교 우수 프로그램 2選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마음등불’ 파라미타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실시하는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의 교육 모습. 학생들이 행공을 중심으로 한 13식 선기공을 체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 ‘중2병’. 처음엔 농담 삼아 시작된 단어가 어느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모든 것에 삐딱해지는 질풍노도의 시기, 내 마음을 돌아보는 불교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참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5월 말부터 내년 1월까지 ‘2016 청소년 마음등불’을 실시한다. 최근 이 사업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예산이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청소년 명상 상담’과 한마음선원 ‘꽃을 피우는 나무’ 외에 새롭게 추가된 용인 백담사의 ‘꿈사리’, 자비명상의 ‘Egg깨뜨림’ 등이 눈길을 끈다.

백담사 ‘꿈사리’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적극 활용한 2박3일 또는 5박6등의 템플스테이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님’의 이미지를 사념처 수행을 거쳐 확대하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중심 정서를 알아차리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억압돼온 정서를 편안히 꺼내놓고 함께 공감하며 아픔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비명상 ‘Egg깨뜨림’은 자기관을 살피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 응어리를 ‘Egg’로 지칭,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알아차림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지금 내 마음 알기 · 버리고 싶은 응어리 · 내가 살고 싶은 삶 · 상호의존성 이해 등으로 이어지며, 명상과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Egg는 달걀이다. 달걀을 밖에서 깨면 음식이 되고,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자비명상을 공부한 스님 200여 명이 전국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절로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오는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학교와 10개 사찰에서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에 선정된 이 사업은 올해 포교원 ‘청소년 마음등불’과 함께 우수사례로 뽑혔다. 지난해에만 연인원 1400여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정여 스님이 개발한 ‘명상 선기공 13식’을 중심으로 한다. 명상에 대해 정적이고 지루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움직임이 많은 행공을 알려 참여를 유도하는 명상법이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명상힐링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와 법회지도교사들이 직접 선기공을 배워 청소년들에게 가르친다. 학교의 경우 방과 후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연간 15시간이, 사찰에서는 1박2일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몸 안의 기운을 느끼도록 도와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는 사례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파라미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상처 받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나란다축제에서 공연까지 참여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반응이 좋다”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도 여유를 갖고 삶을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행복한 자비보살 되소서”… 우수 봉사자 인증 배지 수여

조계종 자원봉사센터, 3월 23일 근속 봉사자 시상 등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는 3월 23일 ‘20년 근속 자원봉사자 시상 및 9988백수연’을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부설 자원봉사센터(단장 보경)는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근속 자원봉사자 시상 및 9988백수연’을 개최했다.

근속상은 10 · 20년 간 쉼 없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여했다. 10년 근속상은 길음종합복지관 급식보조 유병순 씨를 비롯한 17명, 20년 근속상은 김금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자를 비롯한 17명이 영예를 안았다. 또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급식봉사팀 ‘등명회’ 등 7팀을 10 · 20년 근속 우수 자원봉사팀으로 선정했다.

20년 근속상을 수상한 김금란 씨는 “봉사를 시작한지 20년이나 흘렀다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내 마음이 즐거우니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남을 도우며 살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이어 조계종복지재단은 누적합계 200~3,000시간 봉사활동을 펼친 우수봉사자 135명에 대해 인증배지를 수여하고, 신규 단원 14명에 대한 환영식 및 신임봉사팀장 임명식도 진행했다.

3,000시간 봉사활동을 펼쳐 대표로 인증배지를 수여한 이명자(여 · 61)씨는 봉사팀 ‘진불회’에서 팀장을 맡아 30년 간 경락 · 침술 ·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비행을 펼쳐왔다. 이 씨는 “처음에는 신행의 방편으로 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이 된 후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면서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 노력하는 재능기부를 주로 하고 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 봉사라면, 그것이 바로 내 일이란 생각으로 앞으로도 여여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자비봉사는 ‘하고 싶다’는 열정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비보살님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지난 3월 21일 영등포 쪽방촌에서 1,000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장면 나눔 봉사’를 펼쳤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영등포 일대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주 1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료급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운영 중이다.

후원문의 (02)6334-2211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월드머시, 라오스에 승가 중·고교 건립

3월 24일 제6회 정기총회서 2016 사업계획서 발표

불교계 국제구호NGO ‘월드머시 코리아’가 2016년 신규 사업으로 라오스 지역에 승가 중 · 고등학교를 건립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월드머시코리아(이사장 현진, 이하 월드머시)는 3월 24일 서울 여의도포교당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월드머시는 이날 2016 사업 및 예산 계획서, 2015 수입 및 지출 결산서, 2015 감사의견서 등 안건을 상정 · 결의했다.

월드머시는 2016년 사업계획에서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장학 ·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신규 국외사업으로 라오스에 ‘쌈느아 승가 중 · 고등학교’를 건립한다. 승가 고등교육시설이 전무한 현지 사정을 고려, 스님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억1500만 원을 투자한다. 교무실 및 교실 공간 8개, 수도시설, 화장실 등을 포함해 2층 1동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 현진 스님은 “쌈느아 지역은 1,000여 명 스님이 머물 만큼 ‘승가 도시’로 유명하다. 그러나 라오스중앙불교회로부터 스님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단 소식을 접하고 승가학교 건립에 나섰다”면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완공 목표… 1억 여원 예산 영등포 선재어린이집 수탁도

또한 영등포 관내 ‘선재 어린이집’ 수탁을 맡게 돼 어린이 포교에도 한 걸음 다가갈 예정이다. 현진 스님은 “선재어린이집은 영등포 관내에서도 최대 규모 어린이집이다. 아이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운영 ·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와 원활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온오프라인 연수

스카우트불교연맹 4월 10일부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오는 4월 10일부터 ‘불교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초 · 중급과정’ 연수를 개설 운영한다.

연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며 온라인과정 수료자에 한해 2박3일 별도의 오프라인 실기과정 안내가 이뤄진다.

참가대상은 각 사찰 포교국장스님, 어린이 · 청소년법회 담당 법사, 불교스카우트 담당자, 포교사단, 종무원, 학부모 등이다.

온라인연수는 기간 내 15시간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이론과정과 실기과정을 모두 수료한 스님에게는 조계종 교육원이 인증한 가산점 30점을 부여한다. 또한 모든 수료자에게는 스카우트 훈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다. 아울러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로서 각종 국내외 행사 파견 특전이 주어진다.

이수 희망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20일간 온라인연수를 받아야 한다. 수강신청은 한국스카우트연맹 홈페이지(www.scout.or.kr)에서 하면 된다. 강좌는 △스카우트 운동의 이해 △스카우트 운동의 방법 7가지 △스카우트 운동의 실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호섭 기자

청년불자 위한 ‘선우 불교학당’ 열린다

우리는선우, 5월부터 12회 걸쳐

불교가 막연히 어렵기만 한 청년들을 위해 알기 쉽게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불교학당’이 문을 연다.

우리는선우는 청년불자 양성과정 일환으로 ‘선우 불교학당’ 1기를 모집한다. 5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월 2 · 4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리는 강좌는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강좌는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 △재가불자로 산다는 것 △불교문화 콘텐츠 △스트레스 벗어나는 방법 △인문학에서 바라본 불교 △간화선 실습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을 비롯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 박광서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02)2278-8672 윤호섭 기자

인생그래프 상담법 안내

프로그램 유형

-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체도와 그래프를 통하여 과거.현재.미래를 예측해 준다)
- 설문응답을 입력하면 (부와 명에 중 어디가 발달되었나)
- 숫자를 입력하면 (금년엔 재물 관계가 어떨까)
-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숨겨져 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순간 자료가 나오는 획기적 프로그램

【학생용】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뇌의 발달 여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은!
▶ 수시 1차. 2차. 정시 진학시 어느 계열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가!
1,2,3지망으로 계열,학과 안내

【성인용】

- 인체도를 보며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알려주며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관계를 정확히 전달
- 언제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려준다
▶ 나의 미래에 관해 궁금한 분!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로 나아 가는게 좋을까!
▶ 부와 명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운세 및 진로 적성 상담

애정. 궁합. 택일. 매매. 이사 및 행운방향. 진학 작명(신생아.개명.상호.아호). 건강. 진로. 직업

➔ 지사 모집 ➔

- 지사 참여 대상 : 종교인. 교육관련종사자.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학원운영자. 교육보험프리랜서. 미술치료심리상담
- 2016년 기준 : 여성이 남성의 직업을 추월 (하원갑자의 시대)
- 지사 산하에 여러개의 지점을 운영할 수 있다.
-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집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무점포. 무자본)
- 유년기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 가능

명리학 및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 안내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 시 간 : 오후반 14시 ~ 17시 (3시간)
⇨ 장 소 : 본 연구소 강의실 (401호)

- 학생들에겐 꿈과 희망을 드리며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안내하는 연구소!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힐링 상담소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직진 홍진빌딩 401호
문 의 : H·P 010-5418-5972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6. 4. 2(토) 오후 1시부터 ~ 4. 3(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10,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미래 경제 키워드… 마음공부, 창의성·소통교육

3월 불교포럼강좌… 주제 : 불교, 미래를 준비하자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

다가올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예측하고 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는 급변하는 현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중 하나다. 불교포럼(대표 김동건)이 3월 23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한 박영숙 대표 초청강연은 불교계 안팎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물론 박 대표가 예측하는 내용이 모두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언젠가는 이뤄질지 모르는 미래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현재를 맞이할 것이다. 이날 박 대표는 미래에 대한 상상과 예측은 현대의 기술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강연 내용을 정리해 독자에게 전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대표는… 미국 USC교육학석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박사를 수료한 뒤, 영국 호주정부에서 30여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30년간 미래예측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고 미래예측을 공부했다. 현재 18개 미래관련국제기구의 한국대표다. 연세대 생활과학대주거환경학과 미래예측교수, 대구사이버대학교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겸임교수로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다.

1900년 미국의 인구 중 50%가 농민이었습니다. 1945년 트랙터가 개발·보급되자 농업인구는 전체산업 인구의 1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965년에는 5%로 감소했고, 현재는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들 농민은 모두 어디로 갔을 까요. 1900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 구조 중 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3년에는 7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농민들이 자동차 공장으로 취업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개발과 혁신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들 삶의 변화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태양광에너지가 에너지산업 핵심

가장 먼저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대해 37%의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한편, 이제 누구나 신재생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의 독점적 위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공장에서는 이미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해 에너지 재생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서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장이 부상할 것이며, 이런 혁신 기술은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을 없애고 각 가정의 에너지를 사고 파는 스마트 그리드 시대를 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솔라하우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이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지붕에만 설치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집 전체를 발전 시설로 꾸미는 것입니다. 월 2~300만원 가량을 이런식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솔라클로스(solar cloth)나 솔라텐트로 보다 쉽게 태양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자동차의 CEO 엘론머스크는 올해 4월 말 파워월이나 에너지 저장고를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불교계에는 많은 사찰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각 사찰에서 이러한 설비를 설치한다면 종단 재정 수입과 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넘어 무소유경제로 전환

미래에는 자기 소유보다 공유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소유경제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자만이 지식을 갖고 있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스승을 찾아가 그 밑에서 몇 년동안 허드렛일을 하고나서야 마침내 일부 지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차곡차곡 챙겨서 고향에 돌아와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위키피디아에만 들어가면 무료입니다. 이런 무료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유료지식의 무료화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소유주가 없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는 경제가 가장 큰 경제가 됩니다.

창업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자동차 공유시스템인 우버는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기업이 됐고,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는 힐튼호텔보다 더 큰 기업이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방송사와 영화사를 잡아 먹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금융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현재도 전자은행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렌딩클럽은 은행을 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똑똑해 집니다. 똑똑한 개개인은 실시간으로 글로벌 상황을 알고 변화합니다. 기본 소득제도를 바탕으로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협업, 네트워크, 공유가 중요해집니다. 지구촌 인구의 90%이상이 1인기업이 되는 시기가 2030년 경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3D프린터의 발달도 이런 변화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집을 3D프린팅해 만들어 냅니다. 집은 매매하지 않고 쓰다가 버리거나 재활용합니다. 식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 배양육 같은 것을 통해 직접 자신이 만들어 냅니다.

무료교육, 인터넷 교육 시대로

또한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코세라(www.coursera.org)와 같은 대규모 무료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 됩니다. 코세라에서는 스탠포드대를 비롯한 전세계 명

변화 예측하는 자만 생존 가능
문제해결 능력 배양 가장 필요
각사찰, 태양광 설비 관심가질 때

문대학의 유명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온라인 공개수업 무크(MOOC)가 대학교육을 대체하고 초중등 교육도 위키피디아, 구글 등을 통해 공짜로 얻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줍니다. 더 나아가 몸 속에 주입된 바이오컴퓨터는 수시로 훈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기존의 시험 체제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바이오 컴퓨터가 몸 안에 있는데, 시험으로 변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기는 누구도 정확히 짚어내긴 어렵지만 제조업이 추락하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될 것입니다. 다만 전문인력이 도출하는 전문성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미래 변화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를 예측하는 이만이 살아남습니다.

선진국서는 이미 미래교육

만약 수백년 전 농부에게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면 그들은 주저 없이 우유생산기술과 밭농사기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각 세대에서 심지어 한 세대 내에서도 어떤 직업은 사라져가고 어떤 직업은 새로 생겨납니다.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는 대부분 자동화되고 지금도 더 많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인 블로거, 프로그래머, 애견산책대행인 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직업 사이클이 가속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할까요.

예전에는 수명이 60세 정도여서 25세까지 배워서 30년 정도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술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딩 관련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들도 학생들이 취업시장에 들어갈 때쯤이면 적절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이 필요없고 3개월 대학을 주장하는 마이크로칼리지도 만들어졌고, 1년짜리 나노디그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핀란드는 2020년이 되면 전통적인 수업과정이 4C, 즉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사고(Critical thinking) 협력(Collaboration)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21세기 성공적인 사업가들과 직접적으로 일치되는 기술입니다. 변화의 가속이란 오늘날 교육받은 직업이 내일이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는 헬스케어로 진화

사람의 생명과도 연계된 의료분야에서도 큰 변화는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픈 사람이 더 아파야 병원에서 고쳐줍니다. 미래에는 진정한 의미의 헬스케어가 도입됩니다.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거나 미리 치료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의료분야에서는 2025년이면 500만명의 게놈분석이 끝난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병을 미리 진단,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암치료가 쉬워지고 줄기세포 연구 등을 통해 수명연장도 가능해집니다.

의료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시대에 의사 능력과 권위를 따르면서 그 것을 존중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 중 에너지기업이 수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바이오메디슨 기업입니다. 암수술시에도 암세포를 확인해 정확하게 절제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연동한 시스템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또 IBM 슈퍼컴퓨터인 왓슨은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서적인 안정과 창의성 교육입니다. 이 지식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한 안정과 문제해결,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와 정부에서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따른 부상산업과 유망직종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주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제18기 신입생 추가모집

◆ **기초반 1년 과정** : (평염불) 천수경 부터 ~ 지장불공, 퇴공, 관음시식, 화음시식 순으로
◆ **2 년 과 정** : 모든 재반의식(49재, 천도재, 상주권공, 범패의식, 천수바라춤, 도량게), 다게(나비춤), 회심곡, 법고무(혜공스님 직강)

지원자격	스님, 포교사, 교임, 법사, 일반불자 등 등
통 신 생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날 12시까지
입 학 식	**서기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추가등록	**2016년 4월 30일까지 등록 마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문의전화	H·P 011-624-8604 / ☎ 062-362-8604

전통의식, 범패,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 제대로 배워서 후계자 되실 분
기간 약 5년 20~30대 초반 돈 일체 받지 않음 (절에서 함께 생활하실 분)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 비디오, DVD 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1	대령/관욕	15	신중불공	29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게)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2	상주권공지장불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5	화엄시식
4	회심 곡(화청) 1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청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화청) 2	19	종사관욕	33	아침저녁종성	47	시련의식
6	구병시식	20	종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창혼의식
7	관음시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욕(간단한관욕)	49	영가왕생게춤,지옥게
8	점안시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제,천도재,실기의식 1,2,3,4,5개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49제의식 1		
10	사물 다루는 법	24	전통조석예불	38	상주권공49제의식 2	51	20일간 상주권공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1	안 택	25	천수경/장엄염불	39	상주권공49제의식 3		
12	시 다 림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0	상주권공49제의식 4		
13	산신불공	27	사시상단불공	41	제사불공	52	교재 2권 (1,2권) 100,000원
14	미타불공	28	작법무(복청게천수바라)	42	삼신이운		

▶비디오 각 20,000원 / DVD 각 25,000원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제품 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학장 혜공 스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조선 초 소조불상서 다량 복장품 발견

고불선원, 복장 개방… 옥제 약사불 · 진신사리 등 나와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조 불상 복장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충주 고불선원(원장 석암)은 "지난 3월 9일 고미술협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조불상을 감정 의뢰한 결과 복장물로 조선 초기 명문과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3월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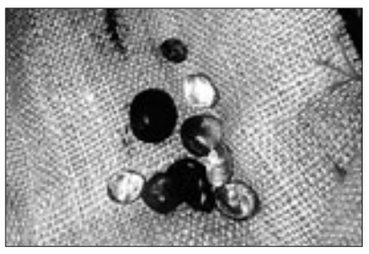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이오희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 4명이 개봉해 발견된 복장 유물로는 사리함을 비롯해 사리 9과, 관세음보살 진언, 반야심경 진언, 부적, 옥제 약사여래좌상 등이다.

사리함은 청동을 두들겨 은박을 입힌 것이며, 9과의 사리는 크고 영롱해 진신사리로 추정된다. 사리함에 삼베로 싸인채로 발견된 옥제 약사여래좌상은 소조불상보다 먼저 제작된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당시 개봉을 담당했던 이오희 문화재위원은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다"며 "옥제 불상은 물론 목판본 인쇄, 부적 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고불선원은 소조여래좌상을 주불로 모시고 있으며, 다양한 유물이 소장돼 있다. 소조여래좌상은 충북도문화자료 제 78호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357호 묘법연화경 1권(1574년 월악산 덕주사 간행). 제 358호 묘법연화경 1권(1634년 복천사 간행) 등 불교문화재 이외에도 청동기 시대 돌도끼 등 석물 27점은 충주박물관에 위탁돼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 1,350점을 조사, 연구 중이다.





충주 고불선원 주불 소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품인 고려 옥제 약사여래불상(사진 위)와 사리 9과(사진 아래)

신성민 기자

사찰음식 원형은 '수행'과 '상생'
"대중화 위해 원형성 고민해야"

김현구 교수, 〈정토학 연구〉 기고 논문서 주장

사찰음식 원형 문화 파악을 위한 원로 스님들을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한국 사찰음식의 원형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현구 전남대 BK21플러스 학술연구교수는 〈정토학 연구〉 24집에 기고한 '한국불교 식문화의 특징과 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문을 통해 사찰음식 원형을 고찰했다.

김 교수가 토대로 한 조사결과는 2013년 3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기획한 '사찰음식 원형문화 파악을 위한 원로 인터뷰 조사'다. 조사에서는 원로 스님과 공양주, 사찰음식 연구가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실시됐다.

김 교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식 △죽 △국과 탕류 △된장 △나물 △생채와 무침 △김치 △장아찌 △튀김 △전과 구이 △다과 등에 대한 1970~80년대 사찰음식 원형의 추이를 살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70년대에는 쌀만으로 밥을 지어 먹지 않고 다양한 식자재를 넣어 분식을 했다. 국과 탕류에서는 제철에 나는 산나물이나 재배한 야채 등을 넣고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화사에서는 추석을 전후한 가을에 팔공산 적송 아래 송이를 채취해 송잇국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원로 스님, 공양주 등 인터뷰해
주식부터 장류 · 국 · 다과 등 조사
1970 · 80년대 사찰음식 원형 탐구

또한 간장과 된장과 같이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발표식품이 사찰 식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식자재 본연의 맛과 향을 해치지 않는 단순한 조리법을 선호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아닌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사람의 몸과 자연을 밀접한 상생의 관계로 파악하는 불교 정신에 입각한 식문화를 구축해 왔다. 현대에도 사찰음식이 대중에게 향유되는 방향도 그 근본정신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양한 사찰음식 문화에 대한 원형을 소개한 김 교수는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콘텐츠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스토리텔링 사례는 한국불교를 이해하고 접근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찰음식이 문화 코드로서 재가자를 넘어 일반대중에게 인기를 누리는 지금,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 사찰음식에 대한 원형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원로 스님들의 인터뷰 속에는 사찰음식의 본래 정신과 수행자의 자세가 충분히 녹아있다"면서 "원로 스님들의 증언에 기초한 사찰음식에 대한 구술자료는 자료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와 인도철학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원효연구 · 인도철학회 세미나

한국불교와 인도 철학에 대해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원효연구사업단(회장 박태원)과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는 공동으로 오는 4월 9일 오후 1시 울산대 인문관에서 '한국불교와 인도철학'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 발표는 △원효전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들 · 한문불서의 번역 조건들과 관련하여 (박태원 울산대 교수) △〈대승기신론소별기〉 표종체문의 번역 사례 연구 (강찬국 울산대 교수) △〈집량론〉과 〈기신론〉의 귀경게 비교 연구 (성청환 동국대 교수) △좌우 콧구멍 호흡과 스트레스의 상관성에 대하여(김재민 동국대) △디그나가의 언어철학 (배경아 울산대 교수) △아비달마 초기 논서에 나타난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위상(김준호 울산대 교수) 등이 진행된다.

논평 및 토론에는 조은수 교수(서울대), 최원호 교수(연세대), 권서용 교수(부산대), 김동환 교수(동국대), 박기열 교수(동국대), 임승택 교수(경북대)가 나선다.

하성미 기자

오대산 한암선문 위상을 논하다

한국불교학회, 4월 22일 '한암선문' 주제 학술대회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해온 오대산 한암선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오는 4월 22일 낮 12시 30분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한암선문'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한암 중원과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나옹의 공부십절목에 대한 한암의 답변과 관점'을,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한암 중원과 탄허 택성'을, 탄허박물관 연구실장 문광 스님이 '탄허 택성과 동양철학'을,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현칙과 산중일지'를 발표한다.

이어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이 '원보산과 상원 · 월정사판 서적'을, 원영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사무국장이 '난암 유종묵의 수행교화와 일본행적'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보문 현로와 이타행'을,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만화 희찬과 월정사'를, 이성운 동방대학원대 연구교수가 '한암 중원과 이종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한국불교학회는 "한암과 그 선문들은 20세기 이후 오대산 지역을 성역화하고 불서의 간행, 사고의 정비, 불전의 국역, 수련원의 설치와 교육, 대일본 관련 대응 등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부단히 진력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사에서 오대산과 한암선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미국 계관시인 머윈 詩에는 선적 천착 담겨

설태수 세명대 교수
동서비교문학 기고 논문서

1970년대부터 불교에 심취
작품엔 불교적 세계관 내포

W.S 머윈은 미국 17대 계관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970년대 이후 불교에 심취하면서 참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거주지를 하와이로 옮기기도 했다. 머윈의 불교적 시 세계를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설태수 세명대 교수는 〈동서비교문학저널〉 34호에 기고한 논문 'W.S 머윈 시에서의 선(禪)'을 통해 불교적 관점으로 머윈의 작품 세계를 살펴봤다.

가장 먼저, 설 교수는 머윈을 "독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했던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머윈의 시에는 선적 화법이 적지 않게 표출돼 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본 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설 교수는 머윈의 시를 '해 뜰 시간에 버섯 찾기' '공기' '잠의 무게' '스승 찾기' 등을 불교적 분석했다.



W.S 머윈의 모습.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이후 불교에 심취해 참선을 연구하게 된다. 이런 선적 천착은 그의 시 세계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화자가 낚시하는 친구를 만나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는 '스승 찾기'의 경우 선적인 향취가 두드러진다. 설 교수에 따르면 이 시에서 반전을 보여주는 구절은 '그의 낚시줄에 바늘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 교수는 "화자의 오랜 친구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낚싯대를 통해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는 불교에서 참선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했다.

설 교수는 "이분법적인 일상적 틀에 갇힌 사고의 영역을 선풍을 통해 한결 높은 수승한 세계로 인식체계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머윈의 시는 깊게 천착할 만한 매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진부해지기 쉬운 우리의 관점을 아주 색다르게 환기시키는 머윈의 시를 보면, 그의 시세계에는 선시의 표현 기법이 적지 않게 녹아 있다"고 총평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 국제개발 통합전략 모색 논의

문화재청, 유네스코 유산 워크숍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와 공동으로 '2016 유네스코 유산 국제개발협력 워크숍'을 3월 3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기쇼 라오 전(前) 세계유산센터 소장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벨기에, 일본의 전문가들이 '선진국의 문화유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발표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서 '한국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문화재청의 발표가 펼쳐진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국제협력재단 등 국내 관련 기관들이 모여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늙지 않고 청춘을 돌려주는 건강 부귀 장수 비전법인 지구촌 최대이슈 이생애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성불도통, 수명연장, 천하대도 법회

부처님께서도 천안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재인 천안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천궁통 철야기도 대용맹정진 양력 2016년 4월 7일 – 8일 무박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울 인제 도인 선녀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도 주문이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초상상문 이사 주당 혼인주당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용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의 신통조화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인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초능력 얻는 무박2일 천하대법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성현, 선녀,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고, 단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광 진법으로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법겁에 천인류를 살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는 법이고 현재 부리고 있는 각종 신들은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손으로 가지않는 해원 상생법으로 계론, 시론, 생천론으로 해원상생하는 법이니라.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心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 입 제 일 : 2016년 4월 7일(음력 3월 1일) 목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6년 4월 8일(음력 3월 2일) 금요일 오후 9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30만원 (구좌번호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복장 및 세면도구
■ 상담전화 : 032)502-6625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용천사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금강진법수육보영
천지공사 진광미륵달마 천궁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정진으로 실천”

부산 소림사, 열반재일 참회산림법회 개최

‘법에 의지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에 따라 부산 소림사가 70년동안 참회산림 법회를 이어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부산 소림사(주지 종인)는 열반재일을 맞아 3월 23~27일 5일동안 ‘참회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300여 사부대중은 ‘지심귀명례’에 맞춰 부처님의 명호를 하나하나 불렀으며, 증명법사로 등단한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문을 경청했다. 이날 스님은 〈열반경〉의 내용을 설명하며 그 뜻에 따라 바르게 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도영 스님은 “부처님의 열반재일을 맞아 기억해야 할 것은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이라는 〈열반경〉 말씀이다”며 “모든 것이 무상하며 생과 멸이 사라지면 그것이 곧 적멸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 무상함을 알고 〈열반경〉에 말씀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참회산림법회 기간 동안에는 도영 스님(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前 포교원장), 자광 스님(前 직지사 주지), 해수 스님(前 동국대 정각원장)이 법문을 설했다. 불자들은 매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참회하며 발심의 계기를 얻는다고 입을 모았다.

법석에 참석한 장영자 씨는 “참석한지 40년이 넘었는데 매년마다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1947년 화엄산림으로 시작해
법화·열반·참회산림법회 이어가
열반절 의미 되새기고 정진 당부

계를 어겼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며 “법석을 통해 얻는 가르침으로 가족과 제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회향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심채란 씨는 “매년 스님들을 모시고 법석에 참여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특히 부처님의 열반에 맞춰 정진에 대해 설해주시니 더욱 신심이 생긴다. 앞으로도 빠짐 없이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림사는 열반재일을 맞아 3월 23~27일 참회산림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열반경〉과 바른 정진에 대해 설했다.

소림사 참회산림법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법사인 소림사 금광 스님이 화엄산림법회를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다. 1947년 문을 연 화엄산림법회는 이 후 10년간 봉행되다 광우 스님의 법화산림, 철우 스님의 열반산림으로 각각 10년씩 진행됐다. 이후 1978년부터 참회산림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법회가 흔치 않았던 당시, 하루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법회였을 정도로 위상이 컸다. 특히 도심포교를 담당한 사찰로 청소년, 거사림, 대학생들의 보금자리였으며 매일 법석이 열려 전법 포교도량의 역할을 담당했다.

주지 종인 스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 온 산림법석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것이며 수행 전통을 계승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정토마을, 적멸보궁 되다

3월 21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법회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사장 능행 · 이하 정토마을)이 부처님 진신 사리를 봉안했다.

3월 21일 정토마을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법회를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정부가 정토마을에서 진행 중인 ‘호스피스 전문 완화의료병동’ 원만 건립불사를 발원하며 희사한 것이다. 정토마을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보궁으로 정토마을을 인식해 줄 것과 불교호스피스 활동에 많은 관심을 독려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운 법회는 먼저 거리 퍼레이드로 시작됐다. 언양 파출소에서 언양성당까지 총 40분 동안 언양읍 번화가를 걸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 이운을 축하하며 그 기쁨을 시민들과 나눴다. 이어 법회는 △삼신이운 및 천수바라 △공양작법 △육법공양 △음성공양 △경과보고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토마을은 3월 23일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백일기도에 입재해 정진하고 있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3월 21일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희사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을 축하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정토마을은 “현재 저희 정토마을관 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의 모자란 병상을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 완화의료병동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립불사를 지지하는 스리랑카 정부에 감사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통 앞에 차별 없는 돌봄’을 실천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능행 스님을 비롯해 정토마을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스리랑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진각종 부산교구 진각누리단 첫 공연

진각누리단의 첫 공연이 개최됐다.

진각누리단은 진각종 부산교구(교구장 효원정사)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창단한 단체다.

3월 19일 해운대 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흥부네 대박났다 전해라’는 제목의 퓨전 난타 창작극이며 희망과 해학을 담아 인과응보 및 교훈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는 진각종 부산교구 어린이회 자성동이팀, 청소년 및 청년회 30명 참여했으며 행사에는 통리원 문화사회부 부장 호당정사, 부산교구 청장 효원정사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여해 응원했다.


진각종 부산교구 진각누리단이 창단 이후 첫 공연을 3월 19일 개최했다.

진각종 부산교구는 “청소년에게 또 다른 놀이 문화를 선사하고 타악 공연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 문화를 통해 청소년을 포교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지수 대종사 원적 12주기 다례재

17일 직지사 중암서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17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원적 12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직지사 부주지 정신 스님, 통도사 前 주지 원산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관응 문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분향 삼배가 있은 후 “눈에 보이는 모두가 도다”라는 지수 대종사 스님의 육성법문이 있었다.

관응문도 상좌 덕해스님은 “12주기 이날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직지사 중암은 3월 17일 ‘관응당 지수 대종사 원적 1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佛都 부산, 나눔으로 더불어 행복

조계종 부산연합회 등
자비의 쌀 및 후원금 잇달아

부산 불교계가 자비 나눔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3월 22일 안국선원교육관에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백미 20kg 290포 총 5천8백kg는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산하 무료급식소 및 노인요양원 등 28개 복지 기관에 전달됐다. 이날 자비의 쌀 전달식에는 회장 수진 스님을 비롯해 회원 스님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수진 스님은 “부처님의 여러 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눔 일 것이다”며 “자비의 쌀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3월 20일 라메르 뷔페에서 대학교 불교동아리 지원금을 희사했다. 지원금은 부산대, 동아대, 해양대 불교 동아리에 전달됐다. 제1차 정기 총회를 맞아 진행한 이번 지원금 전달식을 통해 화엄승가회는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부산에서 불교 단체 및 사찰들이 나눔을 실천했다. 마이산 부산분원 구평사 주지 진성 스님이 지역의 노동자를 격려하며 쌀을 전달하고 있다.

회장 자인 스님은 “화엄승가회의 창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자리이타이다”며 “특히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인재불사에 매진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마이산탑사 부산사하분원 구평사(주지 진성)는 ㈜복성산업개발과 함께 3월 23일 부산 구평동 이편한세상 2차 공사현장에서 사하구 건설 노동자 1천2백 가구에게 백미 10kg 1포대씩 총 백미 1만2천kg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 전달식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6백명과 지역의 노동자 6백명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달식에 이어 아파트 공사 안전기원으로 봉화산 산신제, 감천만용신수륙대재 및 유주무주 고혼 천도재를 함께 봉행했다.

진성 스님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행복한 삶의 도량이 되고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주해주는 쌀을 헛되이 쓰지 않고 베품으로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뜻을 전했다.

부산개인택시법륜회(회장 이상조)는 쌀 10kg 200포를 부산불교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3월 17일 부산 흥법사 대적광전에서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맞아 진행한 전달식에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이상조 법륜회 회장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 · 용호복지관 18일 MOU 체결

동명불원(주지 화랑)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하고 매월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생일 잔치연 봉사 및 후원을 약속했다.

3월 1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주지 화랑 스님은 “협약식을 통해 나눔의 발판을 든든히 뒤 기쁘다”며 “솔선수범해 더 많고 다양한 활동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18일 협약식을 통해 지역 나눔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LEADER
社團法人 世界佛教 法王廳

수 많은 불교국가 중에 승려 수 60 ~ 65만 명의 불교나라 미얀마 연방 승가회 (미얀마 종정스님)회장을 2015년 6월 2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봉행하였고 11월 1일에는 모든 각료들의 임명을 법왕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영광스런 행사를 봉행하였습니다.

각 나라 승가 최고스님들께서 법왕을 보필하는 상임 최고 장로로서의 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r 우 꾸마라 (세계불교도의 법왕)

세계불교 위상과 단합된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없이 불제자로서의 인품, 인성도 인격도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부합하면 동참하다가 임명장만 받고는 참여도 아니하고 자신의 사찰에 임명장 걸어놓고 신도들에게 자랑하면서도 동참은 커녕 소리없이 사라지는 자칭 큰스님들 수 없이 겪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참신한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같이 할 종단, 출가자, 재가자 모두 포함한 사부대중에서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대표 전화번호 : 011-229-6061. 기획실 : 010-4467-9600

다문화요리체험 행복교실 운영

자비나눔실천단, 7월까지 지역아동센터서



전북도내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운영하고 있는 '자비나눔실천단'이 '2016 다문화요리체험 행복교실'을 진행해 이목을 끌고 있다.〈사진〉

올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2회씩 전주와 완주군 소재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다문화요리체험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다문화요리를 함께 만드는 다문화 체험 요리수업과 동아시아 국가의 놀이와 전래동화를 배워보는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사)착한벗들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문화를 나누고 보살피는 일은 다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일반시민들과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일"이라며 "결혼이주여성 스스로도 우리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나눔실천단'은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로서 2014년 발족 이후 지역 내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간식 만들기, 정리수납지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남 대흥사, 전남도 10대 경관 선정

선호도 조사 · 전문가 평가 거쳐

해남 두륜산 대흥사(주지 월우)가 전라남도가 선정한 '전남 으뜸경관 10선'에 선정됐다. '전남 으뜸경관 10선'은 지난해 11월 도내 55개소에 대해 인터넷 선호도 조사 이후 전문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평가에는 여행작가, 한국관광공사, 관광업체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중국 언론인과 유학생 등이 참여해 국내는 물론 해외 여행객이 선호하는 '스토리텔링이 있고, 전남다운 경관'을 중심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대흥사는 천개의 옥불이 봉안된 천불전과 차의 성지 일지암, 서산대사를 모신 표충사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유서 깊은 불교 역사와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한국의 대표 사찰로, 두륜산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서남해의 독특한 자연 풍광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평장터서 3.1 만세운동 재현

종립 김제 금산중 연극반 공연



전라북도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 학생들이 김제 원평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금산중학교 여래연극반 학생 20여 명은 3월 19일 김제 최초 만세운동 발생지인 원평장터에서 만세운동의 재현극을 공연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이우실 전북서부 보훈지청장, 지역주민 3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일제에 항거한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금산중학교 연극반 학생들은 당시의 만세운동에 대한 고증을 통해 선열들이 원평장터에서 일경과 부딪히고 쓰러지면서 항거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은 김제지역의 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원평장터에서 "대한독립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당시 일본 헌병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원평장터는 1919년 음력 2월 19일, 원평 장날 오후 6시 독립투사 9명의 주도로 장꾼들과 김제지역 최초로 일제 탄압에 항거하는 3.1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곳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시대의 스승, 석전 스님 업적 기리리"

종걸 스님, 〈석전 박한영〉 출간



〈석전 박한영〉


종걸 스님

자료 수집 10년, 집필 3년 대장정
한권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사
석전 스님 출생부터 입적까지 정리
4월 6일 선운사 추모재서 헌정 예정

조선불교 초대 교정을 지낸 근대 한국불교 대강백이자 선지식인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80년 일생을 최초로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 부석암 혜봉 스님은 최근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을 출간했다. 10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3년의 집필기간이 소요된 대장정 끝에 출간된 〈석전 박한영〉은 석전 스님의 출생에서부터 입적까지 일대기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1870년 완주군에서 출생해 1948년 내장사에서 법랍 60세, 세수 79세로 입적할 때까지의 석전 스님 일대기를 통해 구한말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사를 되돌아 볼 수 있다. 5백여 점에 이르는 당시 사진자료들과 신문보도, 간찰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한국 불교계의 현실, 다양한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종걸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석전 스님의 생가터, 호적자료, 체포기사를 포함한 독립운동 자료를 새로 공개했다. 석전시초와 석전문초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과 미발표 간찰, 여행기, 서화류, 금석문을 수집했다. 또 최초의 인보(印譜)와 석전연표를 정리했다. 이밖에 미발표 전법게와 석전 스님의 소장인이 찍힌 도서를 소개하고 은사 스님인 금산대영(錦山大營) 스님의 법명이 적힌 은종파첩(恩宗派) 및 대원암 강원 강주시절 사진, 백두산 천지에 사찰이 있었다는 사진 등 새로운 자료를 대거 발굴했다.

종걸 스님은 871쪽에 이르는 이 책을 통해 석전 스님의 일생을 총 7편의 시기로 정리했다. △1편-강학의 시대 △2편-교학시대와 항일운동기 △3~5편-기행시대 한라에서 백두까지 △6편-교정시대 △7편-만년의 삶으로 구성하고, 부록으로 석전 박한영대종사 연보, 입적 후 선양사업, 화엄종주영호당 재종사 부도비명 병서, 영호당 정호대종사 법맥과 전등, 간찰목록, 전법게 목록, 비문 상량문, 금석문등의 기록문을 수록했다.

1편 강학의 시대에는 출가이전 스님의 생가터인 완주군 삼례읍 조사마을과 스님의 가족관계, 출가과정과 설유 스님과의 만남, 개강과 삼장강설과 당시 일본의 한국불교예속화 과정과 불교유신운동을 다뤘다.

2편 교학시대와 항일운동기는 석전 스님이 불학강사로 활동하는 시기의 기록을 비롯해 3.1운동과 한성임시정부, 대동단 활동, 일본 임제종 부속운동 저지,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書) 불교계 대표로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 기록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3~5편의 기행시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춘원 이광수, 가람 이병기, 육당 최남선 등과 함께 금강산, 백두산 등 조선의 명찰을 순례하며 당시의 지식인들과 교류한 과정을 담았다.

6편 교정시대는 개운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조선불교선교양종 교정, 조선불교 항일비밀결사조직 만당,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시절의 기록을 정리했다.

7편 만년의 삶은 석전 스님의 금강관과 스님의 논평, 스님의 시문학과 시론, 물외도인의 일화, 광복직후 초대교정, 동국대학교 시절 이야기 등 석전 스님의 일화가 기록돼 있다.

이 책에서 석전 스님은 청담, 청우, 운어, 운기 스님의 스승으로 한용운, 최남선, 정인보, 이병기, 서정주, 조지훈, 신석정, 김달진을 길러낸 시대의 선각자이자 문학가로 정의된다. 또 한성임시정부 전북대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서에 불교대표로 서명한 독립운동가로, 백양사 광성의숙부터 명진학교와 동국대 전신의 혜화전문까지 반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쓴 교육자로서 석전 스님의 일생을 정리했다.

종걸 스님은 "지난 2001년 정읍 내장사에서 소임을 살면서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며 문중의 어른인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이때부터 10년에 걸쳐 전국의 도서관을 찾아 서적을 탐독하고 일제강점기 언론기사, 사진 등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석전 박한영〉은 4월 6일 선운사 석전 스님 67주기 추모재에 헌정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의 근본 초기불교로 정진하자"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 졸업 · 입학식 봉행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 졸업 · 입학식에 참여한 스님들이 자비경 독경을 하고 있다.

초기불전을 연구하는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원장 재연)이 3월 22일 4회 졸업식과 6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빨리어 삼귀오계와 자비경 독경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4명의 스님이 졸업과 수료했으며, 전문과정과 연구과정 각각 3명의 스님이 새로 입학했다.

졸업식과 입학식에는 대학원장 재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교수사 환성 스님, 원감 성륜 스님 등 대학원 스님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또 선운사 합창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학인스님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졸업식에서는 법인 스님이 교육원장상을, 원산 스님이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운사가 초기불교승가대학을 설립한 것은 불교의 근원이 초기불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초기불교대학을 졸업한 학인스님들은 선운사와 한국불교의 보람이자 희망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선운사의 아름다움 풍광의 화룡정점은 공부하는 스님들의 모습이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큰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고 학인스님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에 이어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장 이취임식이 봉행됐다. 선운사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 설립초기부터 대학원을 이끌었던 재연 스님이 퇴임하고 환성 스님이 신임 대학원장에 취임했다.

환성 스님은 해인사에서 무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강원 졸업 후 인도와 스리랑카 대학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방선방에서 정진하다 선운사초기불교대학원에서 교수사로 학인스님들을 지도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산행단체에 불교입문 책자 전달

광주 성거사(주지 혜공,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는 3월 22일 대웅전에서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산행단체인 광주불교산우회(회장 김등수)에 불교입문 서적 200여권을 전달했다.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전달한 불교입문 서적은 〈불교신행산책〉으로 불교입문자를 위한 불교예절 · 문화 · 교리 · 역사 등을 문답형태로 엮은 해설서다. 전달된 교재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교육책자로 사용될 예정이다.

혜공 스님은 전달식에서 "사찰순례와 산행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산악회 회원들에게 불교를 쉽게 알리고, 산행과 신심을 같이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등수 회장은 책을 전달받고 "처음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재가 늘 필요했다. 이 책을 통해 작으나마 불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 @2,500원(60개이상)
• 바림·공단등(8㎝) @3,000원(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 @6,000원(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 @13,000원(6개이상)
• 바림·공단등(20㎝) @35,000원(2개이상)
• 바림·공단등(30㎝) @90,000원(1개이상)
• 황 금 등(6㎝) @2,700원(60개이상)
• 황 금 등(8㎝) @3,300원(30개이상)
• 황 금 등(10.5㎝) @6,500원(16개이상)
• 황 금 등(13㎝) @15,000원(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7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정진의 힘이 욕망을 지혜로 돌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㊶ 손오공 설득하는 용마



그림 · 최주현

전 회에 말한 뻔한 전개…. 그럼 그 전개가 과연 얼마나 뻔한지 나가 볼까요? 요괴의 부인인 백화수공주 도움으로 요괴의 소굴을 벗어나고, 그 부탁으로 보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공주의 편지를 전하니, 국왕이 요괴를 토벌하겠다고 나서지요. 거기에 저팔계가 만용을 부립니다. 이 저팔계는 정말 곳곳에서 말썽을 피우지요? 욕망에 게으름에, 거기다 영웅심과 공명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밉상인데, 이 미운 화상을 보고 있자면 조금 정드는 건 또 뭘까요? 우리의 속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저팔계가 사건 일으키는 대목마다, "아, 저게 내 모습 아닐까?"하는 반성이 들면서, "애고고, 나도 저래서 문제야!"하는 자탄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다가도 왠지 안쓰러워지기도 하는 존재, 바로 그게 저팔계 아닐까 싶습니다. 저팔계의 공명심에 요괴토벌에 나서지만, 앞으로의 전개에서 밝혀지듯이 이 요괴가 정말 비보통 요괴에요. 사오정까지 합세해서 나서지만 당할 수가 없지요. 거기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팔계가 또 뒷전으로 꽁무니를 빼는 정말 밉상 짓을 하지요. 그 때의 상황을 그대로 한번 들려 드릴까요? "동생이 잠시 저놈과 싸우고 있어. 난 똥좀 누고 올게." 아고고, 여러분들도 성질나시죠? 만일 정말 저팔계가 똥을 누고 있다면 그 똥 위로 팍 주저앉히고 싶지 않으세요? 상황이 이리 되니 어쩌겠어요? 사오정 잡히고, 앞에서 압축 팍팍 해드린대로 현장법사가 오히려 모든 일의 원흉인 요괴 호랑이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요괴는 호랑이한테 잡혀가던 공주를 구해준 의인(義人)이 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요. 세상살이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고, 의인은 비참하게 스러지는 그런 경우가 역사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믿지만, 그건 믿음이거나 우리의 바람에 불과한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또 복 받은 상태라는 믿음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지 않게 살고, 악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한 상태이며,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복된 상태에 있은 것이지요.

이야기가 잠시 너무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갔나요? 여기서 현장법사가 잠시 호랑이로 억지 둔갑을 하게 되지만, 앞에서 말한 뻔한 이야기 전개로 보아 그냥 그대로 억울하게 죽지는 않을 게 분명한 일.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짜잔! 용마나 나오십니다. 갑자기 웬 말이 등장하느냐구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은 앞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지 않으신 분! 다시 한 번 정독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현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이 또한 비보통 말이지요? 용왕의 아들로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을 관세음보살이 구하여 주고, 현장법사 태우고 인도까지 갈 사명을 준, 말 그대로 용마입니다. 용이 변신해 있는 말이란 말이지요. 자꾸 말, 말 하니까 헷갈린다구요? 하하! 그러네요. 아무튼 이 용마가 나섭니다. 예쁜 궁녀로 변신하여 요괴한테 아양을 떨며 열심히 술을 권하고…. 여차저차…. 요괴를 코가 삐뚤어지게 취하게 만들고는 틈을 타서 번개같이! 기습을 하지만…. 역시 통하지 않네요. 비보통 요괴에게 형편없이 두들겨 맞고는 도망가서 다시 말로 변신하여 얌전하게 누구라도 오기를 기다리네요. 불쌍한 용마…. 여기서 공을 세웠으면 인도 가는 길 내내 좀 뻐기며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절호의 기회라고 덤빈 것이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려니 사오정 잡혀가게끔 농땡이 부리던 저팔계가 터덜터덜 돌아오는군요. "아이고, 형님! 왜 이제야, 그것도 혼자서 오십니까?" 용마가 대충 내막을 알면서도 물으니 저팔계, 우물쭈물 변명…. 여차저차…. 그런데 저 얄미운 저팔계는 상황을 알자마자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달아나서, 현장법사 모시기 전의 고가장 사위로 돌아가 편안히 살 궁리를 하네요. 그걸 말리느라고 용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무튼 용마의 설득이 먹혀들어가 저팔계가 손오공 다시 불러오려 화과산 수렴동으로 행차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앞 이야기에서 이 대목의 서유기 제목을 슬며시 알려드렸지요? "뜻 말이 마음 원숭이를 생각하네" 였던가요? 그리고 나칠계씨한테 이 의미를 아느냐구 물었던 거 같지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겠죠?

올바르지 않은 삶, 그 자체가 '불행'
근심 · 걱정 덜기 위한 '염' 수행 중요
서원 바탕 둔 정진이 필요한 때

정확하게 전체 제목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삿된 마군이가 바른 법을 침노하니, 뜻 말이 마음 원숭이를 생각하네."(邪魔侵正法, 意馬憶心猿)

바로 우리의 뜻을 말에 비유하고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흔히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여기서 용마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여 지향하는 뜻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요. 일단 어떤 사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정(情)이라고 합니다. 이 정은 내 마음대로 안되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아파 버립니다. "아프면 안돼! 아프지 마!" 그래봐야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이 정의 차원에서는 수양이 안됩니다. 일단 정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사촌이 땅을 사는 경우에, 배가 아픈 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촌이 땅을 산 것을 기뻐하는 정도 있거든요. 그러한 정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나오는 정이 시키는 방향을 잘 선택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려는 수양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여러 정들을 살피고 선택하는 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부터는 수양이 가능하지요. 유학(儒學)에서 '뜻을 성실하게 함'(誠意)를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정을 늘 성실하게 살펴서 그 가운데 도덕적인 정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그 정을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유학(儒學)의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유기에서 말하는 뜻도 큰 선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경을 가지러 가는 것을 선택하고,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뜻! 그것을 현장법사를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용마로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용마를 '뜻'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불교적으로 자세히 말하자면 단순한 뜻이 아니라 올바른 정진(精進)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서유기의 설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지요.

인도로 경을 가지러 가는 일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현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마, 그렇게 다섯이지요? 이 다섯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들도 있고, 서유기의 대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해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열반을 향해 나가게 하는 다섯 가지 힘, 즉 오력(五力)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힘이란 첫 번째가 믿음의 힘(信力)이며 두 번째는 정진의 힘(精進力), 세 번째는 바른 생각의 힘(念力), 네 번째는 바른 선정의 힘(定力), 다섯 번째는 지혜의 힘(慧力)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유기의 다섯 주인공을 오력에 한번 배치시켜 보세요. 잠시 검문, 아니 시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작성 끝나셨나요? 그럼 정답과 대조해볼까요? 현장법사는 믿음의 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마가 바로 정진의 힘에 해당하구요. 저팔계는 바른 생각의 힘에 해당하는데, 바로 계율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염(念)'이라는 것은 탐욕과 근심 걱정 등을 항복받는 것을 말합니까요. 그리고 사오정은 선정의 힘에 해당하지요. 사오정은 본래 물귀신입니다. 쉽게 요동치는 물, 그렇지만 본래적인 고요함을 가진 물의 두 측면을 나타냅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극복하고 고요함을 얻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서유기에서 거의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오공은 지혜의 힘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익숙하게 아시는 이야기지요?

자~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용마가 나서고, 저팔계를 설득하여 손오공 찾으러 보내는 대목이죠? 이것은 바로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니 한 방향을 향해 나가던 뜻, 올바른 생각으로 노력을 기울이던 뜻이 감정과 욕망을 달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욕망은 자칫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거나, 나태와 안일에 빠지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 상징이 바로 저팔계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바로 모두 팽개치고 고가장에 돌아가 사위노릇이나 하려는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것을 변함없는 뜻이 설득하는 겁니다. 그 눈물겨운 설득의 대사 하나만 읊어볼까요?

"형님, 절대로 태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절대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사부님을 구하려면 형님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길 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손오공이죠. 앞의 오력에서는 지혜의 힘에 해당하는 손오공, 그리고 지혜의 힘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큰 힘이기에 어떤 경우는 그냥 마음 원숭이라 불리는 손오공이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반야지혜로 완성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정진의 힘인 용마가 엇갈린 길로 들어서려는 욕망을 구슬려서 지혜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

저팔계도 그 본성 때문에 잠시 농땡이를 부리고 딴 길을 헤매지만, 큰 깨달음을 향한 서원을 낸 존재지요. 용마의 간절한 설득에 손오공을 데려오기 위해 떠납니다. 한 짓이 있으니 좀 쭈뼛 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용케 꾀를 내어서, 손오공을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하네요. 한편으로는 현장법사가 그래도 손오공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해서 손오공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지요. 다음에는 요괴가 손오공을 완전히 깔보고, "단매에 때려죽여 원숭이 젓갈을 만들어 버리겠다"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다시 손오공을 울컥~컥컥컥…. 그래서 아무튼 성공입니다. 집나간, 아니 집에서 쫓겨난 손오공 다시 복귀신고를 하고 요괴 때려잡기에 나섭니다. 호랑이로 억지 둔갑을 한 현장법사 구하러 나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이 요괴, 정말 수상해요. 비보통인 요소가 많아요. 손오공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지… 좀 걱정이네요. 애고, 나칠계님…. 뻔한 전개, 이미 알고 있다는 저 표정! 알았어요. 정말 뻔한 전개인지, 다음 시간에 봐요!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집의 빛

⑦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연화화생벽화

극락정토에 모인 사람들

극락정토, 아미타 48대원으로 세운 불국

'정토(淨土)'는 청정 불국토의 줄임말이다. 일체의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다. 아미타여래의 정토는 극락정토이고, 약사여래의 정토는 유리광정토다. 하지만 정토의 실상은 시방삼세에 갠지스강 모래 수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불가설불가설의 불국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토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다. 극락정토의 생성 인과와 장엄세계의 실상, 극락왕생의 방법을 밝힌 경전이 '정토삼부경'이다. 정토삼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엮은 정토사상의 소의경전이다.

극락정토는 〈아미타경〉에서 말했듯이 '제상선인 구회일처(諸上善人 俱會一處)', 즉 어질고 선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곳이다.

정토의 원인은 아미타여래의 48대원이고, 그 결과가 극락정토다. 즉 중생구제 48대원을 세우고, 5겁 동안 사유하고 섭취(攝取)해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창조하신 청정국토가 정토사상의 근원인 극락정토다. 아미타불께서 성불하기 전 법장비구 였을 때 세운 48대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원은 '미타본원(彌陀本願)'으로 부르는 제18원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을 내어 아미타불을 다만 열 번만 불러도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는 감동적인 서원이다. 저 서원의 본원력에 의지해서 하루나 7일 정도 신심으로 불보살을 관상하며 염불하면 누구나 극락왕생 할 수 있다. 그것은 벌써 48대원을 이루신 아미타불의 약속이시다. 그러니 굳게 믿고 따르면 된다. 그처럼 쉬운 일도 없다. 오죽 쉬우면 '나무아미타불' 지명염불(指名念佛)을 이행법(易行法)이라 할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극락왕생의 지위가 더 아래로 물러나지 않는 자리인 아비발치, 곧 불퇴전지(不退轉地)라는 사실이다. 그 중에는 일생 한번만 더 거치면 곧바로 부처가 될 일생보처(一生補處)보살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선한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구회일처의 극락정토인 것이다.

세존, 관무량수경의 16관 보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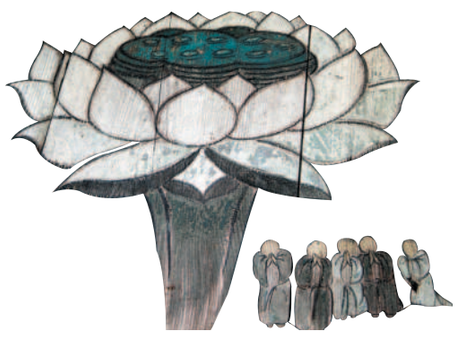
하지만 왕생의 방법이 너무 쉬우니 의심 많은 중생들이 믿지 않고 경시한다.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께서 증명설주로 직접 나서신다. 〈관무량수경〉에 낱낱이 전하고 있다. 〈관무량수경〉은 석가모니불께서 '왕사성의 비극'에 등장하는 위제희 왕비의 간곡한 요청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와 극락왕생 수행법을 설하신 내용의 경전이다. 석가모니불의 위신력에 의해 모든 중생들이 청정한 극락세계를 마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 보는 것과 같이 여실하게 보게 된 것이다. 〈관무량수경〉의 핵심인 정종분의 내용은 극락정토의 16장면인 '16관상(觀想)'이다. 이 거룩한 설법의 내용을 회화의 방편으로 표현한 그림이 고려, 혹은 조선불화 〈관경16관 변상도〉다. 비단이나 삼베에 그린 탱화가 일반적이다. 벽화로 전해지는 관경16관 변상도는 우리나라에선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외벽에 변상도의 유일무이한 귀중한 벽화가 남아 있다. 16관(觀) 중에서 14, 15, 16관의 구품왕생 장면을 그린 연화화생도다. 그런데 벽화의 재질도 일반적이지 않다. 벽화는 보통 흙벽에 회죽으로 바탕을 마감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 보광사 대웅보전 외벽은 흙이 아니라 나무판이다. 세로로 긴 나무판을 칸칸이 짜맞춘 판벽에다 그린 벽화다. 외벽에 연화화생도를 비롯해서 열 가지 제재의 작품을 대형벽화로 장엄했다. 재료공학적으로 시간과 물리적 풍화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나무판 벽화는 김천 청암사 대웅전, 문경 대승사, 의성 고운사 연수전 등에서도 간혹 만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연화화생도 벽화

벽화의 주제는 연화화생 장면이고, 벽화의 공간설정 무대는 허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극락세계 구품연지(九品蓮池)다. 〈관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불은 아난과 위제희 부인에게 국토에 광명을 놓아 극락정토를 낱낱이 보여주시고는 16장면으로 극락왕생의 수행방법을 설하신다. 제1관은 서쪽으로 지는 해를 관상(觀想)하는 일상관(日想觀)이다. 이어서 물의 변화와 보배나무, 대지, 칠보궁전, 칠보로 장엄한 연못 등 극락정토의 공덕장엄을 세세히 보게 해서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신심을 끌어내신다. 제6관까지가 극락정토의 경계를 아우른 총관상(總觀想)이다. 보광사 연화화생도 벽화에서는 상단 부분에 궁전누각과 극락조, 칠보문, 불로장생의 영지문, 산개 등의 상징조형을 통해서 극락정토를 대단히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그런 연후에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일념으로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게 해서 불보살의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관하게 이끄셨다. 중생의 선근과 쌓아온 공덕에 따라 일체중생은 상품상생에서 하품하생까지 극락왕생한다. 〈관무량수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존속살인 등의 오역죄와 가지가지 악업을 행한 사람에게도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 두었다는데 있다. 단지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완전히 부르면 죄업을 면하고 연화화생하여 극락세계에 나아간다.

하루나 7일 신심 염불하면 극락왕생
구품왕생 연화화생도는 판벽화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의 형식과 구도
상단 모서리 연화대는 아미타불 상징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장엄한 대형 연화대와 다섯 분 스님들. 연화대는 아미타불을 상징한다.



구품연지 연화화생과 구품왕생 장면. 왼쪽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하품하생에서 상품상생으로 전개하고 있다.



왕생자와 불보살의 세부. 불보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로 모두 중품중생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벽화는 중생의 선근에 따른 구품왕생의 장면을 담고 있다. 연화화생도의 화면 크기는 대략 세로 2m, 가로 3m에 이른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벽화의 구도와 시점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며 하품하생에서 상품상생으로 전개한다. 그림의 몇 몇 곳은 비바람에 채색이 떨어져 나가 원형을 잃었다. 벽화 속 왕생자는 19명이다. 두 분의 보살과 일곱 분의 여래께서 등장한다. 그런데 한 분의 여래는 연화좌만 남아 있고, 존상은 퇴색해서 없다. 채색의 흔적으로 실재를 짐작할 수 있다. 벽화의 내용은 구품연지에서의 연화화생과 왕생자에 대한 아미타내영도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아홉 분의 불보살 중에서 두 분의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짐작된다. 16관상에서 제10관이 관음관이고, 제11관이 대세지관이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관음보살은 머리에 천관을 쓰고, 천관에는 화신불 한 분이 서 계신다고 묘사한다. 그에 비해 대세지보살은 머리에 홍련화와 오백 가지 보배꽃으로 장식하고 하나의 보병이 있어 그 병안에 온갖 광명이 가득하다고 해서, 두 분에 대한 도상학적 차이를 두었다. 벽화에서는 하품하생의 자리에는 관음보살을, 상품하생의 자리에 대세지보살을 봉안하였다. 관음보살은 자비를,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한 곳에 모인 구회일처의 구품왕생도

구품왕생의 아홉 장면은 한 장면마다 아미타내영도의 축소판이다. 장면마다 모든 왕생자는 오른쪽 위에 계신 불보살을 향해 연꽃이나 연잎에 꿇어앉아 합장의 예경을 올리고, 불보살은 왼쪽 아래쪽에 연화화생으로 막 극락왕생한 중생을 자애로운 표정으로 내영하고 계신다.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의 형식, 구도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아미타불과 두 보살은 한결같이 중품중생의 아미타 구품인을 수인으로 취하고 있어 장엄장인들이 중생근기의 중간수준에 눈높이를 맞췄음을 짐작케 한다. 즉 모든 불보살의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붙인 중품중생의 구품인이다. 일반적으로 아미타여래께서 취하는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부분까지 들어 세워 보이고, 왼손은 배 부분에 눕힌 형식이다. 그런데 벽화에서는 오른 손을 내리고, 왼손을 가슴까지 올려서 눈길을 끈다. 업장의 두께에 따른 하품, 중품, 상품의 품계가 상승함에 따라 벽화 속 왕생자의 연륜대도 소년, 청년, 중장년으로 심화되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마치 대학졸업식에 학사, 석사, 박사를 자리배치한 풍경을 닮았다.

무엇보다 벽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배치한 커다란 '연화대(蓮花臺)'다. 연화대 밑에는 다섯 분의 스님들이 합장의 예를 올리고 있다. 대형연꽃은 청색의 연밥을 갖추고 흰색 꽃잎을 활짝 펼쳤다. 연화에 신령함과 거룩함이 흐르는 예사롭지 않은 연꽃인데, 이 꽃은 바로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연화대다. 석가모니불은 16관의 제7관 '화좌관(華座觀)'에서 만약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연화대를 지성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다. 번잡한 마음을 접고 연화대의 낱낱의 꽃잎과 알알의 구슬, 낱낱의 꽃받침을 분명히 보면 반드시 윤회의 업을 끊고 극락정토에 날 것이다고 설하셨던 그 연화대다. 어쩌면 연화대 밑의 다섯 스님은 이 벽화를 조성한 금어와 발원자들인지도 모르겠다. 저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림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수행 소리가 합창으로 들려온다

일체대중이 지성(至誠)과 신심(信心)으로 회향발원한 '나무아미타불'의 염불로 극락정토 한 자리에 극적으로 모였다. 우리는 저마다의 길에서 저마다의 욕망을 꿈꾸며 살지만 아미타불의 명호를 받드는 날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바다에서 하나가 된다. 벽화 속 저 곳은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곳, 구회일처(俱會一處)의 국토다. 저 절집의 빛, 석가모니불께서 광명을 놓아 극락정토를 보이신 감동적인 자내증의 빛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승려와 격의 없는 대화로 속진 덜어내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⑱ 월사 이정귀

천하에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이정귀(李廷龜, 1564~1635)는 어린 나이에 당대의 문장가 한유((韓愈)의 '남산시(南山詩)'를 차운(次韻)하여 시를 지을 만큼 글재주가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이 14세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증광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던 그는 중국어에 능해 어전통관(御前通官)으로 조정을 대표하여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등 외교 활동에 높은 수완을 발휘하였다.

그가 공을 세운 탁월한 활약상은 바로 명나라 병부주사 정응태(丁應泰)를 파직시킨 일이다. 바로 정응태가 조선을 무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는 조선의 입장을 불리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임응태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이 명나라를 침범하기 위해 왜병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명나라에 파견된 이정귀는 '무술변무주(戊戌辨誣奏)'를 써서 조선의 무고를 주장함으로써 정응태의 무고가 밝혀져 파직된다. 조선으로선 통쾌한 결말을 얻은 것이니 그의 외교적 수완은 이처럼 출중했다.

특히 선조의 신임을 받았던 그는 조정의 중요한 직책인 병조판서,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는 등 그의 환로는 순탄하였다. 높은 관직을 두루 거쳤던 그는 늘 임금을 도와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충심을 쏟았고, '글로써 나라를 빛낸다((以文華國)'는 관인문학을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일찍이 명나라 사람 양지원(梁之垣)은 이정귀의 글을 "호탕하고 표일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 문장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고, 장유(張維, 1587~1638) 또한 그의 문학적 재능을 칭찬하였다.

한편 그의 출생과 관련된 기인한 일은 〈국조인물고〉에 "그가 막 태어날 무렵에 호랑이가 문밖에 와서 엎드려 있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가 태어나자 호랑이가 떠나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이롭게 여겼다"고 한다. 일국의 동량이 될 재목은 출생의 기인함도 이처럼 남다른 다른 듯하다.

늘 아속(雅俗)을 포용했던 이정귀는 40여 년간 벼슬을 살았지만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국조인물고〉에 세자가 조문을 왔다가 돌아가 주변 사람들에 말하기를 '이 사부(李師傅)는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는 집이 매우 누추하였으니 그 검소가 숭상할 만하다'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학문은 육경(六經)을 근본으로 삼아 정진했으며 〈장자〉에도 깊이 공부하였다. 언제나 재능과 부귀로 사람을 압도하지 않았던 그는 사람들과 담소할 적마다 모인 사람들을 심취(心醉)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소탈하면서도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듯하고, 말년에는 한가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승려들과 교유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그는 승려들과의 시를 통해 교유했는데 이는 그가 선조와 광해군 시대에 유불교유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연유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유불의 교유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런 분위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다소 개선되긴 하였지만 승려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깊은 수행력을 갖춘 승려들은 출중한 문장력을 토대로 문사들과 함께 시를 짓고 시집을 남긴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이름 높은 사대부들에게 시집의 제문을 받는 등 유불의 교유는 끊어지지 않았다. 특히 문장력이 출중했던 이정귀는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의 시권(詩卷)에 차운하는 시를 수편이나 남겼지만 실제로는 교유가 없었던 승려들의 시권에도 글을 써준 사례가 간간이 확인된다. 이런 사례는 그의 '증금강산인쌍익서(贈金剛山人雙翼序)'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늙을수록 번잡한 것이 싫어 건방진 동네 사람들의 소란이 매우 괴로웠다. 그래서 조정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문을 닫고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 시를 지어 달라고 찾아오는 산승(山僧)은 차마 사절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반겨 맞지는 않고 그저 가지고 온 시권(詩卷)에 흥이 일면 시를 적어 주고 흥이 일지 않으면 그냥 둘 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를 적어 준 승려의 시권은 많지만 승려의 얼굴을 본 경우는 드물었다. 올해 봄에 내가 한가로이 앉아 쉬는데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글을 물으러 온 학자(學子)였고, 또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승려 쌍익(雙翼)이었다. 사절하여 만나주지는 않고 절구(絶句) 20자(字)를 써서 보내 주었다. 그리고 듣건대 그 승려가 무언가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듯 문밖에서 서성이다가 떠났다 하기에 노쇠한 몸이 나태하여 공문(空門)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탄식하였다.(余老益厭鬧 頗苦鄕里項領 公退輒杜門 却掃山僧之乞詩來者 雖不忍謝遣 而亦不喜接應 只取其詩卷 遇興則題之 不遇興則置之已耳 以故題僧卷多而見僧面少 今歲之春 余方燕坐 有叩門聲 問字學子也 又有叩門聲 山人雙翼也 謝不能見 書絶句二十字而送之 聞僧彷徨門外 若有不滿意而去 自嘆衰懶見嗔於空門也)



〈국조인물고〉 '이정귀비명'

> 14세에 승보시 장원 급제 후
> 조정 대표해 中외교 담당해
> 말년에 승려와 교유 늘면서
> 돈독한 우정 글로 남기기도



도판 이정귀 글씨

앞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를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는 승려들이 많았던 듯한데 이는 이미 이정귀의 글 솜씨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승려 쌍익과 만난 인연도 처음에는 만나지도 않고 글만 써 주었는데 시권에 글을 받아 간 쌍익 스님이 다시 이정귀를 찾아와 담소를 나누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쌍익 스님은 얼마나 시를 좋아했던지 이정귀의 〈동사집(東ª V集)〉에 수록된 시를 줄줄 외울 정도였다. 그가 쌍익 스님을 만난 상세한 과정은 "홀연히 승려 한 사람이 산기슭을 따라 지름길로 곧장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나에게 절하였다. 이에 그 이름을 물었더니 쌍익이었고, 그 거처를 물었더니 풍악(楓嶽)이었다. 바로 지난날 내가 그 시권에 시만 적어주고 얼굴은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서른이 채 못 된 나이에 얼굴이 곱고 기운이 고요하였으며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정신이 맑고 밝았다.(忽見釋子從山麓 徑造叉手而拜 問其名 雙翼也 問其居 楓嶽也 卽前日題其卷而不見面者也 年未三十 貌姸氣靜 與之語 靈臺炯炯) 그는 또 천성으로 책을 좋아하여 나의 〈동사집(東ª V集)〉에 실린 시들을 줄줄 외는 등 학문하려는 뜻이 자못 있었다(性又嗜書 能誦余東ª V集諸詩 頗有願學之志)"고 한다. 특히 그와 교유했던 많은 승려들 중에 '정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여(次政上人詩軸韻)'가 눈에 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질 못해 두릉에 부끄러우니(語不驚人愧杜陵)시축 첫머리에 시 적는 일 내 어찌 할 수 있으랴(首 題贈我何能)서로 만나면 도리어 산중의 일을 이야기하느라(相逢却語山中事)쓸쓸한 방 한밤의 등잔 심지를 돋우어 다 태운다(挑盡寒齋半夜燈)

정 스님과의 만남이 엄마나 흡족했기에 산중에 일 이야기 나누랴 등잔 심지를 돋울까. 깊은 밤 등불을 돋우며 나눈 이들의 격의 없는 문답은 모든 속진을 털어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질 못해 두릉에 부끄러우니"라고 한 것은 두보(杜甫)를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정귀는 글 솜씨도 미흡한 자신이 어찌 정 스님의 시축에 글을 쓰겠느냐는 말이니 그의 겸손함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유란 그저 변화무쌍할 뿐 오랫동안 변함없이 자신을 찾아온 이는 승려 윤해뿐이었다. 그의 '차윤해축상운(次允海軸上韻)'에는 무상과 돈독한 우정을 함께 드러냈다.

병이 많아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걸 탄식했더니(索居多病歎離群)지팡이 짚고 찾아와 준 이는 오직 그대뿐(飛錫相尋獨有君)다시금 세상 밖 벗들과 친교 맺고 싶노니(更欲托交須世外)세상의 벗들 우정이란 너무도 변화무쌍해라(世間交道劇紛紛)

이군삭거(離群索居)는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지가 오래이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 늙어가는 인생사에서 가장 좋은 건 자신을 찾아주는 벗일 뿐임을 그도 절감한 듯하다. 천하의 문장가 이정귀의 글은 〈월사집(月沙集)〉에 수록되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봉 원효성사 열반성지 골굴사(혈사) 행

12처 석굴사원 원형복원을 위한 마애여래불 다례제



신라 천년의 아름다운 미소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골굴사 마애여래불(보물 제 581호)

산곡과 동천에 무량광의 밝은 빛을 비추며 기적을 행하던 영험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골굴사 마애여래불의 가피와 기적을 찬탄하고 불자님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육법공양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제는 원효성사의 마지막 혼이 깃든 골굴사(혈사)에서 열림과 동시에 인도석굴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의 원형 복원을 알리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양의 공덕을 통해서 불자님과 불자님 가정에 마애여래불의 이적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이번 다례제는 경주지역 불교문화의 한 장을 형성하고, 골굴사와 마애여래불의 신앙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동참으로 한해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이번 다례제에 동참하시어 수승공덕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 상주 기도안내 : 원효성사의 열반지인 골굴사에서 상주하며, 기적과 치유의 신비를 나투던 마애여래불전에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가행정진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일 시 : 불기 2660년(2016) 3월 26일 오전 10시
장 소 : 골굴사 대적광전 문 의 : 054-744-1689
내 용 : 마애여래불 다례제 - 육법공양 / 대적광전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 진달래 화전 템플스테이

원효성사 열반성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혈사) 주지 적운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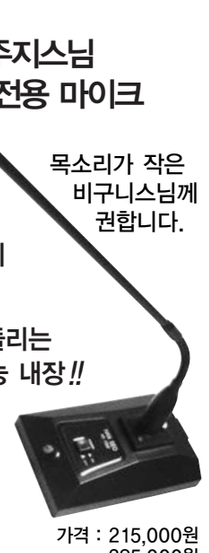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니까야서 길을 묻다 8. 오늘날 필요한 계(戒)④

소유 따른 이익·쾌락 넘어서라

〈잡아함〉 제15 '번뇌의 경'(使經)에서는 '신가비가출가'(信家非家出家)라는 원문을 만날 수 있다. 우리말로 옮기면, "믿음으로써 '집[을 소유하는 생활]'(家)에서 '집을 [소유하지] 않는 곳'(非家)으로 향하여 집을 떠난다"는 뜻이다. 이른바 출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으로써 '집 없는 삶'(非家)이야말로 '출가(出家)'의 참뜻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불교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삶을 이상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집'이란 그저 살아가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집은 세속의 일상을 꾸려가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핵심으로써 요즘의 언어로는 '소유에 기대어 이익과 쾌락 추구를 선택하는 길'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집'일 것이다. 따라서 소유에 기대어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세속의 길이라고 부른다면, 이익과 쾌락의 길을 넘어서서 사람과 세상의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탈속의 길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집을 소유하여 이익과 쾌락을 무한정 누리려는 행위'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집이 도심 한가운데 있든 산속 저 너머에 있든 공간의 위치가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처음부터 나누어주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잡아함〉의 메시지는 '성스러운 공간'이란 그 어떤 푯말을 세우는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삶의 길을 지향하는 실천에서 마련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일상이라면 그것은 세속적이며 성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덧붙여.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이익과 쾌락의 맛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에서 이들을 넘어서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를 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일상이 이익과 쾌락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챙겨서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탈속의 길을 가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 오늘날에 필요한 계(戒)가 필요한 이유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고타마 싯타르타가 부처가 된 뒤 곧바로 설법하기를 주저했던 이유를 되살려보자. 욕망을 좋아하고 욕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이 도를 알기는 어렵다는 진단, 혹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마치 그것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는 비유를 생각해보면, 성스러움의 추구는 지속적인 노력과 튼튼한 결심을 필요로 한다는 요구를 만나게 된다. 계(戒)가 필요한 지점이다.

한자어 '계(戒)'는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설명에 따르면 '손에 창을 움켜쥐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즉, 창으로 무장한 병사가 적으로부터 성문(城門)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계(戒)이다. 감각대상이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길목,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의 지킴이 바로 계(戒)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계(戒)는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 맡고 있으며, 맛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내 몸에 접촉되는 대상과 내 생각의 대상들이 어떻게 마음을 동요시켜 욕망과 감정 등이 발생되는지를 지켜보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계(戒)는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을 만나는 그 지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계학(戒學)은 몇 번의 지킴, 한때의 실천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규칙이자 원칙을 바로 세움이다. 그것은 소유에 기댄 이익과 쾌락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길을 지속해나가려는 튼튼한 지킴의 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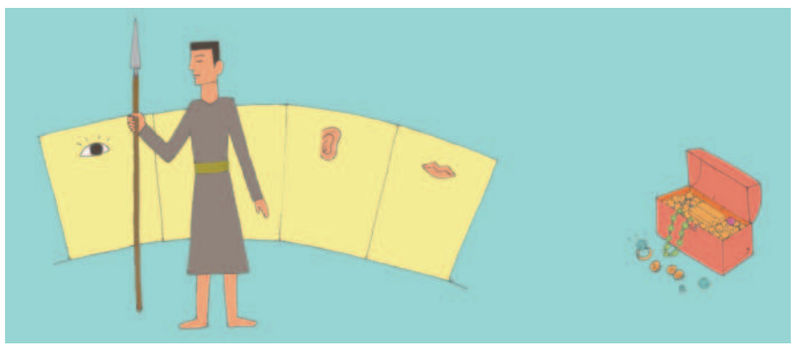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우리는 절집 아이돌"…



2004년 8월 창단한 JnB. 창단 이후 현재까지 100여 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20~30대 청년불자로 구성된 JnB는 군법당 · 복지관 · 교도소 등에서 음성공양 봉사를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道伴의 향기

진각청년 보컬밴드 JnB

2004년 창단 후 100여 명 거쳐 가
'노래' 하나로 청년불자 한데 뭉쳐
체계적 교육 아래 '음성공양' 봉사
"대중적 접근 위해 주류 문화 탈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불교가 좋아 신행생활을 이어오던 20대 청년불자들이 '노래'라는 공통적인 취미 아래 뭉쳤다. 사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호회가 합창단이었지만 대부분 40~60대로 구성돼 있어 젊은이들이 다가가기에는 낯설었고, 당시의 찬불가 역시 중장년층 기호에 맞춰진 것들이 많아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령대가 맞는 청년회마저도 세대별 친목위주로 운영돼 개인적인 취미를 함께하기 어려웠던 터라 노래를 사랑한 청년불자들은 결국 뜻을 모아 진각청년 보컬밴드 'JnB(Jingak New buddhist vocal Band)'를 만들었다.

창단 후 첫 무대는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이었다. JnB 단원들은 처음부터 기존 사찰합창단과는 다른 젊은 감각으로 노래하자는 목표로 모였기에 대중가요나 대중음악형태의 찬불가를 주로 선보였다. 게다가 20대 초중반 남녀들로 구성돼 있어 장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로 JnB는 매년 10여회가 넘는 기획 · 초청공연과 위문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대중음악 형태의 찬불가 선보여

2004년 8월 22일 결성된 JnB. 현재 진각종 서울교구의 문화신행단체이자 청년예술단체로서 청년불자들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음악 만들기와 대중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래동호회'다.

물론 JnB 이전에 '에밀레' 등의 몇몇 노래동아리가 있었으나 전문지도자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노래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그래서 JnB 창단멤버들은 기존 노래동아리들의 실패사례를 참고하고, 불교음악중창단 LMB 싱어즈(Love Music Buddhism singers) 김양희 소프라노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JnB를 거쳐 간 단원만 100여 명이다. 현역단원도 2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사실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불자들이 모였지만 3~4년 정도는 많이 고생했습니다. 심지어 2기 단원은 두 명밖에 받지 못해서 걱정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동아리보다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악적 장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과감하게 합창 위주의 패턴을 벗어나 대중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JnB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최근에는 진선여중 댄스동아리나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밴드와 협연도 했습니다."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지도를 맡고 있는 법정 구장현 지휘자는 JnB의 산 증인이다. 그는 단체의 성장 배경을 '체계적 교육'으로 꼽았다. 전문단체는 아니기에 가볍게 시작했지만 누군가에게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에서 '대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3년째 꾸준한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JnB 단원 자격은 20~40세 정도의 불자이지만 20대 단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젊은 편이다. 7기 단원으로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오미연 씨가 3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불교계에서는 보기 드문 젊은 동호회다. 그렇다면 단원들은 JnB를 어떻게 알고 가입하게 된 걸까?

김도엽 총무(29)는 "지방에서 절을 다니다 회당문화축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 때 JnB 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마치 '절집 성가대' 같은 느낌이 독특했다"며 "그 인연으로 자성학교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식단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입단한 이종윤 단원(20)은 "고등학생 때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선지식캠프에 참여했다가 JnB를 알게 됐다. 평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상경하게 된 뒤 입단했다"며 "모든 단원들이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음성공양"

앞서 밝힌 것처럼 JnB의 운영은 매우 체계적이다. 우선 입단을 위한 오디션은 공중파 방송의 그것과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심인당 강당에서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춰놓고 실제 가수 무대처럼 꾸민 뒤 오디션을 진행한다. 엄격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노래를 준비하는 이의 마음과 과정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오디션 전에 입단희망자에게 겁을 주긴 하지만 사실 입단에 노래실력은 중요치 않은 요소다.

오디션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단하면 기존 단원과 멘토 · 멘티를 정한다. 선배인 멘토들은 신입단원들의 곡 선정과 가이드 등을 도우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단원들은 각 기수별로 나뉘지만 서로 존중하는 도반이기에 유대관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 가야 공단등 : 다홍, 보라 8cm
▶ 비닐만월등
▶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 황금등 : 8cm
*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佛音으로 소통하는 新 문화포교



2014년 열린 JnB콘서트 현장 모습.


여의나루역 광장서 버스킹하고 있는 JnB.



2년마다 열리는 JnB콘서트는 많은 불자들이 기다리는 문화포교 현장이기도 하다.

계 역시 상당히 끈끈하다. 아울러 구장현 지휘자는 주중에 단원들의 개인 연습을, 주말에 중창 연습을 지도하고 있다. 단원들보다 더 큰 지도자의 열정이 돋보인다.

구장현 지휘자는 "신입단원은 입단 후 한 달간 따로 연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각자에게 맞는 음역대와 음색을 알아보고,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곡을 찾는다"며 "프로 가수처럼 만들어 줄 수는 없어도 한 곡만큼은 가수처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nB는 많은 공연을 하는 단체이지만 기본적으로 '봉사단체' 성격이 짙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소정의 수고비 외에 공연비 명목의 돈을 받지 않는다. 주로 회비와 종단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공연 장비를 마련하고, 군법당이나 복지관, 종립학교 등에서 다양한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마음 씀씀이 덕분일까. 많진 않지만 이제는 조금씩 팬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오미연 단장(33)은 "단원들의 노래실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게다가 JnB의 활동을 단순한 노래 이상으로 바라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점차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단원들의 신심과 소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JnB의 특색은 봉사 외에도 노래와 함께 신행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칫 노래에만 집중해 신행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불자들이기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틈이 신행생활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교리가 청년불자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노래는 단순한 '소리'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꾸준한 신행 덕분에 청년불자들은 노래를 연습하면서 교리를 학습하기도 한다.

노래 외에도 신행생활은 기본
버스킹 · 풍경소리 앨범 녹음 등
전법활동에도 열정 가득 쏟아내
"타종교와의 교류도 꿈꿔 봐요"

구장현 지휘자는 "노래를 통해 솔로파트를 연습하면 자기성찰을 배우고, 중창을 연습하면 인연을 배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연기법을 노래연습에서 느끼는 일이 많다"며 "자기만 잘하고 돋보이려는 친구들도 이곳에서 겪는 대인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배워간다"고 설명했다.

"갇힌 신행서 벗어나 전법"

JnB는 창단 후 지속적으로 다른 음악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다. 폭 넓은 전법을 펼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계에는 인프라가 적었고, 타종교와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불교계에는 그나마 조계사 소리마루합창단이나 청량사 어린이 · 청소년밴드가 있었지만 JnB 단원들과는 연령대 차이가 컸다.

김도엽 총무는 "불교계에 JnB와 비슷한 단체가 없다. 비록 나이 차이는 있어도 소리마루합창단이나 청량사 밴드와 연합공연 등을 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JnB는 길거리에서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하고, 몇몇 단원은 좋은벗풍경소리 앨범에 보컬로 참여하는 등 전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단원들에게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좋은 연습이 되고, 더 넓게는 많은 단체 혹은 타종교와의 음악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장현 지휘자는 "JnB와 같은 단체들은 포교 연구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신행조직이 보다 많이 구현되길 바란다"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법이기 때문에 전법하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라고 생각한다. 문화시대에 교리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단체가 늘어나고, 잘 이끌어주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마음가짐에서 JnB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아직까지 작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연등회나 좋은벗풍경소리가 발표하는 곡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도적으로 곡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또한 SNS를 통해 노래실력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을 알려 새로운 신행조직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런 일환으로 오는 4월 2일 홍대 스테이라운지서 JnB 콘서트도 개최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노력해온 음성포교 활동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연을 하면서 청년불교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담았다.

오미연 단장은 "JnB를 통해 단순히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을 넘어 음성포교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됐다. 이번 콘서트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느 공연보다 가장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원과 관객 모두 화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젊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과 끝없는 도전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그렇기에 젊은이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해지는 것이라고. 새로운 도전과 포기를 모르는 젊은 열정은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사자후로 거듭나기 위해 탁마에 힘쓴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전법일기

처녀 총각 인연 맺어주기

지금껏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으로 많은 사연들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늘 혼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저런 인연들로 얽혀 있었다.

누구나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또한 제각기 어울리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편하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은 일이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쉬리가 있는가 하면, 좀 심하게 과장해서 썩은 음식이나 오물에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구더기도 있다. 우리네 인생도 자연현상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일신이 편안한 것이다.

오래전에 일 때문에 관공서에 갔다가 능력 있고 성실한 한 직원을 알게 되었다. 그 청년은 젊을 때는 공부만 하다가 혼기를 놓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손자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걱정하고 있었다.

"아, 이런 처녀 총각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부처님 공덕이겠구나. 내가 가진 역량을 이 분야에 회향해야겠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청춘남녀를 엮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 중매를 서기는 어려웠다. 가장 먼저 지역신문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신문의 광고를 보고 한두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인터넷 카페 '따뜻한 만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법회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200여 쌍이 결혼하게 됐다.

이 2200여 쌍 중에는 재미있는 사연도 많다. 한번은 추석 명절을 2주가량 앞두고 한 청년이 찾아왔다.

"스님, 큰일입니다. 부모님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는 꼭 결혼할 여자분을 데려가리라 생각했는데…결국 이렇게 혼자네요…스님이 중매로 유명하시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은 황당하기도 했다. 명절 때문에 결혼이 급하다니…. 불교에서 말하는 부부의 연은 1겁의 연인데 1겁이란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때까지 걸리는 무한대의 시간이니, 그만큼 소중하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인연이기에 중매에 나서기로 했다. 다행히 카페에 가입된 한 여성분이 호감을 보였다.

"스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이도 맞고 성실하신 분 같으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에 중매를 서는 본인이 당황했다. 보통 청춘 남녀를 만나면 평생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너무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살펴보라고 권유한다. 오히려 너무 빠른 만남에 조심스럽게 만나야 한다고 당부까지 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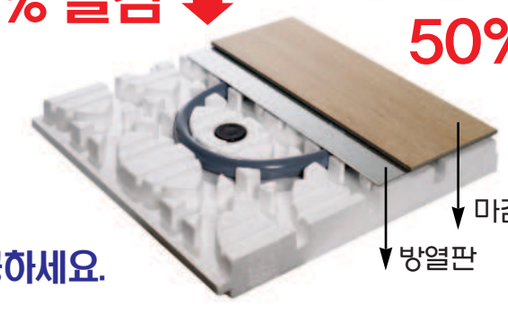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렇게 두 분이 만나고 싶으시면 일요일에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그 곳에서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옥천사에서는 계절마다 사찰을 개방하고 있다. 일요일마다 종교의 벽을 허물고 성당이고 교회고 함께 어울려 즐겁게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산사음악회에서 만난 두 남녀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6개월 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이 두 사람이 사찰 법회에 더욱 열심히 나오게 됐음은 물론이다.

인연을 만났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보길 바란다.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진여 자체에는 욕망도 고통도 없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가 일으키는 훈습은 무명을 없애가는 힘을 발휘한다. 진여훈습이 향기라면 무명훈습은 악취라 할 것이다. 향기가 강하면 악취가 없어지고 악취가 강하면 향기가 없어진다. 본문에서 진여의 훈습에는 자체에서 훈습되는 것(自體相薰習)과 작용에서 훈습되는 것(用薰習)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자체상훈습'이란 진여 자체인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저절로 훈습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수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다. 보통의 범부들이 발휘할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이 진여 자체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일체의 고통과 무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 자체인 마음에는 아무런 욕망과 고통이 없다. 본성이 밝고 깨끗하여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각(覺)의 설명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전인격 속에 들어있는 완전성을 향하여 진여의 훈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진여를 통한 훈습이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의 안팎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진여훈습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일체 중생이 누구나 진여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모두가 진여훈습이 되어야 할 것이거늘 어째서 믿는 이도 있고 믿지 못하는 이도 있어 한없는 차별이 있는가? 응당히 모두가 다 같이 진여법이 있는 것을 알아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똑같이 열반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다.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한량없고 가없는 무명이 있어 개인의 성품에 물든 정도가 차별되어 두텁고 엷음이 같지 아니한 까닭에 항하의 모래알 수 보다 많은 번뇌가 무명에 의해서 차별을 일으키며, 아견애염번뇌(我見愛染煩惱)가 무명에 의해 차별을 일으키니, 이렇듯 무명이 의한 번뇌 때문에 진여를 바르게 믿거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스승 등 외적 계기 있어야
佛法 성취해 깨달음 증득 가능

다시 말하면 무명에서 일어난 번뇌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진여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중생에게 전해지는데 있어서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내적인 인(因)과 외적인 조건(緣)이 다 갖추어져야 불법을 수지하게 되는 하나의 통칙(通則)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무 계속 마찰시키면 불이 이어난다. 나무 속에 불의 인(火因)이 있어 내적인 원인이 되고 사람의 힘으로 마찰시키는 행위는 외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마찰을 시켜 열이 나오도록 했을 때 불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두면 나무에서 저절로 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생의 경우도 이와 같아 마음속에 무명을 타파할만한 진여의 훈습력인 내적 원인이 있지만, 만약 지혜로운 진정한 구도자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등 발심하는 외적인 계기가 없으며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지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계기 곧 인연이 갖추어질 때 불법(佛法)을 성취하여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진여의 작용에 의한 훈습(用薰習)은 진여의 마음이 중생의 자각을 위한 외적인 계기가 되어 훈습하는 것을 말한다. 중생이 깨달아 가는데 있어서 그 근본원인이 되는 것은 진여의 마음 그 자체이고 그 외적인 계기가 되는 것에는 불 · 보살이 있다. 외적인 조건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별된 조건과 또 하나는 평등한 조건이다. 차별연은 개별적인 것으로 개개인의 내적 준비나 수용자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차별이라 한다.

평등연이란 보편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훈습하여 중생을 거두어 주는 불 · 보살의 대비 원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풍기듯 깨달은 자의 진여의 마음에서 자타를 구별하지 않는 동체의식을 통한 지혜가 나와 보고 듣는 대로 중생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때 중생들은 그 삼매의 힘으로 언제 어디서 든지 부처님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으므로 평등연이라 한다.

구함 · 해탈 · 자비심… 보시가 가진 세 가지 맛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⑬ 보시하는 즐거움

智人喜惠施 甘樂菩提味
(지인희혜시 감락보리미)
深見三有過 涅槃味甚樂
(심견삼유과 열반미심락)
速疾欲遠離 一念頃不住
(속질욕원리 일념경불주)
又見於施樂 復過於涅槃
(우견어시락 부과어열반)
愛樂施自在 心則忘菩提
(애락시자재 심칙망보리)
心ㅡ 忘菩提 謂菩提難得
(심기망보리 위보리난득)
自觀樂施心 由悲眾生故
(자관락시심 유비중생고)
不覺施味樂 施有三樂味
(불각시미락 시유삼락미)
一者求報施味 二者求解脫施味 三者求大悲心施味 此三種味者名增長樂味施(일자구보시미 이자구해탈시미 삼자구대비심시미 차삼종미자명증장락미시)

번역

지혜로운 사람의 즐겁고 은혜로운 보시는 달고도 즐거운 보리(菩提)의 맛이며, 깊은 견해로 삼계윤회의 생사를 지난 열반의 맛이어서 심히 즐겁습니다.

속히 괴로움과 욕심을 멀리 여의어 한 생각에라도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되거니와, 또한 보시의 즐거움을 보며 다시 열반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즐거운 보시에 자유자재할지라도 마음에 보리심을 잃거나, 마음에 이미 보리심을 잃었다면, 보리(菩提)를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 보시하는 마음을 즐겁게 관찰해야 하는데, 중생이라서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까닭이라면, 보시하는 즐거움을 맛을 모르는 것이니, 보시에는 세 가지 즐거운 맛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를 통해 과보를 구하는 맛이며, 둘째는 보시를 통해 해탈을 구하는 맛이며, 셋째는 보시를 통해 자비심을 구하는 맛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름하여 즐거움을 증장하는 보시의 맛이라고 합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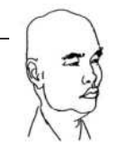
이번 게송에서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이 하고자 했던 법문을 간략히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 즐겁고 은혜롭게 베푸는 보시는 달고도 즐거운 보리(菩提)의 맛이 나고, 깊은 견해로 삼계윤회의 생사를 지나는 열반의 맛이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괴로움과 욕심에 한 생각이라도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되듯이 보시를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보시를 하였다는 집착심이자 보시 받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면서 보시물에 대한 집착이다.

둘째, 보시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시의 과보와, 보시를 통한 해탈과, 보시를 통한 대자비심(大慈悲心)이다.

보시의 마음은 보시를 받는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보시 받는 이가 중생이라서 보시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비의 보시가 아니라고 하였다. 보시하는 이는 보시를 받는 이를 통해 비로소 보시의 과보를 받을 수 있고, 보시를 할 수 있기에 해탈의 맛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보시를 받는 이는 보시를 하는 이에게 오히려 은혜로운 이가 되는 것이다. 구걸하는 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이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생각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락(三樂)에 대한 해석으로 덧붙이자면, 〈대보적경〉에 이르기를, 열 가지 선업(善業)을 닦은 이가 천상에 나서 받는 즐거움인 천락(天樂)과, 선정에 들어 적정(寂靜)의 즐거움을 받는 선락(禪樂)과, 나고 죽는 고통과 즐거움까지 모두 없는 구경락(究竟樂)이 있다고 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설렘과 우울증

설렘과 우울증은 빛과 어둠과 같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기 때문이다. 설렘은 희망으로부터 비롯되고 우울증은 절망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느 책 제목처럼 새벽마다 설렘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는 빛과 희망으로 충만한 승리자이다.

몸과 마음이 나른하고 꿈과 기대마저 사라져버린 할 일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둠과 절망의 늪과 터널에 갇힌 패배자이다.

〈법화경〉의 '사람이 곧 부처'라는 열린 진리와 〈화엄경〉의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의 밝은 빛은 누구에게나 희망의 메시지이자 삶의 등대임이 분명하다. 중생이 곧 부처일 수 있고, 번뇌가 곧 깨달음에 이르는 터전임을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통해 무한대의 힘을 얻는다.

불교의 깊은 사상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닌 하나요 열고 닫음의 마음의 조화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앞뒤처럼 가까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야 청춘이다는 말과 같이 아파야 인생의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배가 고파야 먹거리가 약 인줄 알기 때문이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이며 축복

사람은 누구나 불만과 권태 사이로 끊임없이 오고가는 벽시계의 시계추 같은 삶을 이어간다. 먹거리가 많아도 원초적 배고픔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고, 마실 것은 많아도 본능적 타는 목마름은 생명의 무게만큼 질기고 길다. 사람은 많아도 마음 나눌 자 찾기 어렵고, 친구는 많아도 진정한 의미의 대화자는 만나기 어렵다. 홀수로 있을 때는 짝수를 그리워하나, 짝수로 있을 때의 삭풍이 몰아치는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결핍은 홀수 때의 홀가분할 자유를 그립게 만든다.

하여,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지만 몸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찰떡궁합은 신기루처럼 쥘 수 없는 아지랑이이다. 아침에 한 결심을 저녁까지 지키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너트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입안의 혀일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누구의 것이 온전히 될 수 없으면서도 그 누구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적 아집(我執)에 사로잡힌 망상 중 망상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 넘어가고 입장 바꿔 상대를 용서하며 설득보다는 배려로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닐 하나로 어우러져 살 일이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여섯 가지 실천덕목 중 그 첫째가 나눔의 행위에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부드러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고 두려움을 가시게 하는 말 등은 보시(布施)의 첫 길목인 언시(言施)에 속한다.

혼자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하면 여럿 속에 있는 것이요, 여럿 속에 있어도 마음이 맑으면 혼자만의 여유와 개운함을 누리는 것이다.

늙지 않는 비결은 없겠지만, 더디게 곱게 늙은 비결은 설렘이다. 반대로 빨리 늙고 추하게 늙은 길은 우울증이다. 설렘은 누구에게나 삶의 활력소가 되어 빛을 부르지만, 우울증은 의학계에서도 병으로 규정해 치료해야할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상살이의 가치기준은 어차피 사람마다의 눈높이에 의해 재단되고 결정된다.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착각은 빛을 불러들인다. 긍정은 설렘과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착각은 어둠을 몰고 온다. 어둠과 우울증은 쌍둥이 같은 닮음 꼴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다.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삶이 소중하고 나의 오늘은 인생살이에 있어 최고의 전성기임을 잊지 말자. 나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도 기적이자 또 하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 순금
- 작품크기 30㎝ × 2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2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78,000원 (액자 포함)
- 나한도족자 : 100,000원 (44㎝ × 72㎝)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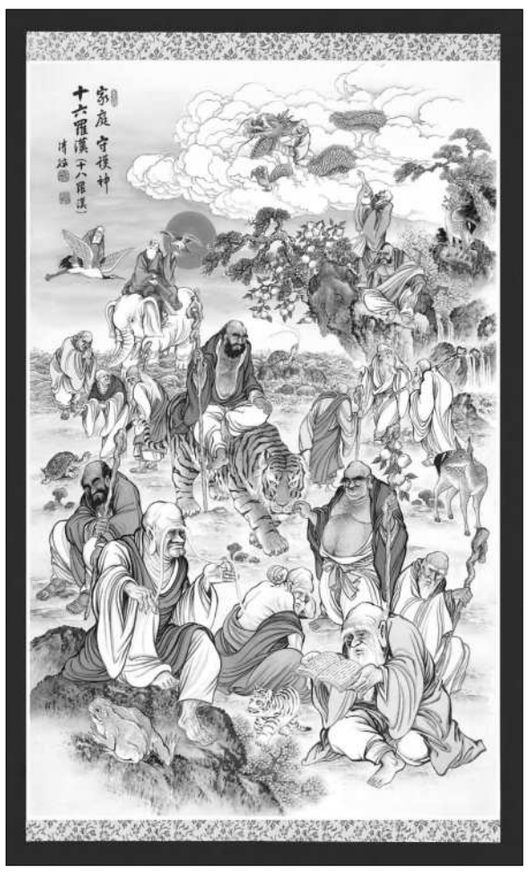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 소림 달마도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한도 족자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는 족자 완성품임.)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보이는 것 전부 아니다… 관념 넘은 본질 보라

禪과 현대미술
⑥ 안토니 따피에스 (Antoni Tápies)

시각적인 자극에 의하여 느껴지는 다양한 인식의 흐름들은 많은 관념적 사고를 가지게 한다. 자신이 체험하고 인식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질료를 이용한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표현하는 작가가 있다.

안토니 따피에스(Antoni Tàpies, 1923~2012, 스페인)은 현대미술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작가 중의 한 명이다. 법학을 공부하던 그가 예술가가 되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방식에 깊은 통찰을 하기 시작한 따피에스는 동양사상과 선(禪)사상에 심취하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보이는 것의 허상을 직시하기시작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현실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치유는 외부로 표출되는 변화에 현혹되기보다 내면의 본질적 변화를 통한 진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립하기 위하여 아시아를 여행하게 되며 많은 수행자들을 보면서 내면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가'에 대한 의문은 자신이 직접 선을 체험하고 나서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가 추구하는 예술은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다.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적 여건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대상을 버리고 정신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성찰은 일상의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흙, 모래, 헌옷, 실, 돌가루, 천 등의 재료를 통하여 삶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전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이러한 오브제를 사용한 방법들은 당시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각각의 재료가 주는 특성들이 사라지고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조합과 색채를 더한 이미지들은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공부를 한 그가 1950년 이후 파리에 정착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 이며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거주하며 교류를 하던 장소였다. 젊은 따피에스에게 파리는 살아있는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앵포르멜,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등 예술과 철학이 혼재되어 각각의 특성들을 통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각축을 벌일 때, 그는 그러한 소용들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인식들을 정립하기 시작하며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대미술에서 따피에스의 예술정신을 하나의 장르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커다란 의미에서 추상미술에 포함이 되지만 추상미술과 표현주의 경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예술성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만의 표현기법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였을까?

따피에스는 예술은 철학이며 수행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어떠한 것도

동양사상 · 禪 심취한 작가
자신의 철학, 작품으로 승화
"정신세계를 표현"이 화두
흙 · 모래 등 오브제로 구성

'단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의 상태를 자신이 선택한 재료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Grande peinture aux aiguilles de pin〉(1970)은 '소나무 바늘과 큰 그림'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마치 선사들의 선문답과 유사해 보인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어법이기도 하다.

따피에스의 작품은 많은 관객들에게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여 그들이 철학적 사유를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어법인지도 모른다. 즉, 자신의 작품은 그 작품에 표현된 이미지나 색채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화되고 기호화된 암호인 것이다.

따피에스가 선을 처음 접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마치 암호를 해독해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것은 바보이거나 천재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은 어떠한 힘에 이끌려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으며 선사들이 말하는 깊은 깨달음에는 다다르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새로운 체험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고 한다.


안토니 따피에스의 1970년 작품 〈Toile marron tendue〉. '팽팽한 캔버스'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작품은 다양한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작가는 강조한다.


1970년 작품 〈Grande peinture aux aiguilles de pin〉는 번역하면 '소나무 바늘과 큰 그림'이다. 마치 선사들의 선문답과 유사해 보인다.

작품을 대할 때 많은 관객들은 작품의 제목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일부러 작품제목을 붙여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지이다. 왜 사람들은 작품을 앞에 놓고 그 작품을 보고 내면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알아차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 사고 속으로 넣으려고 할까하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 속에 그 작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작품은 앞에 현존하는데 자신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제목이라도 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작가가 어떠한 제목을 붙였다고 하여도 그 제목은 그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그 제목과 그 작품이 일치하는 데는 없다. 마치 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면서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Toile marron tendue〉(1970)은 '팽팽한 캔버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작품도 앞의 작품과 유사하다. 제목이 주는 느낌보다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색, 기호나 선들을 보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보면 된다. 하지만 보이는 작품은 하나인데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것은 각각의 몫이다. 이것이 추상작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중의 하나이다. 추상미술의 발전은 크게 과학기술의 발전과 선사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시각보다 뛰어난 현미경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서 보이기 시작한 세계를 보이는 표현으로 가지고 온 부분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추구해 온 인간의 가치와 존재,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선의 세계와 결합이 되며 본질적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정신성의 구현으로 나타나며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표현의 모티브가 되었다.

정신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에 대한 물음에서 이성적 관점의 집합체인 철학적 사고 즉, 합리성, 논리성, 객관성 등이 더 이상 인간정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의식의 전환에서 탈 이성적 특성을 보이는 선의 관점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직관 · 감각적 관점들을 통하여 인식되는 정신의 실체들이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추상미술이 모두 심오한 정신성을 표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추상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신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추상미술은 저 하늘에 보이는 달을 표현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관념적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객들에게 이러한 시도와 표현은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불러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여 진다.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사실(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추상미술의 등장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가 'ZEN style'이다. 추상미술의 등장과 함께 선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추상미술의 등장은 미술관, 갤러리 등 새로운 건축을 만들게 하였다. 왜냐하면 추상미술을 전시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잘 어울리는 전시공간과 조명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는 건축, 문학, 음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었다.

따피에스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한 작가 중의 한사람이다. 자신의 선적 경험들에서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낸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작품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며 많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한 사람의 예술가에 의해서 파생이 된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예술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식의 범주를 확장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다.



따피에스의 작품을 보면서 선사의 호흡이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된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禪筆로 담아낸 '心外無法'의 경구들

서예가 청우 윤상민 '마음전' 초대 전시



소년은 어릴 적부터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소년에게 시련만을 안겼다. 그런 그를 지탱한 것은 대행 선사(1927~2012)의 마음수행이었다. 장애로 인한 차별로 삼수 끝에 대학에 입학한 그는 모교 동국대에서 서예를 만났다. 자신의 한을 달래듯 수행과 서예에 매진했다. '선(禪)과 선(線)은 둘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일념으로 매진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

일편의 인생사에서 나타나듯 불자 서예가 청우 윤상민(61 · 사진)의 작품 세계에는 '마음'에 대한 성찰과 '서예'에 대한 애정이 오롯이 담겨있다. '마음'과 '서예'가 만나는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 초대 전시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 로비 갤러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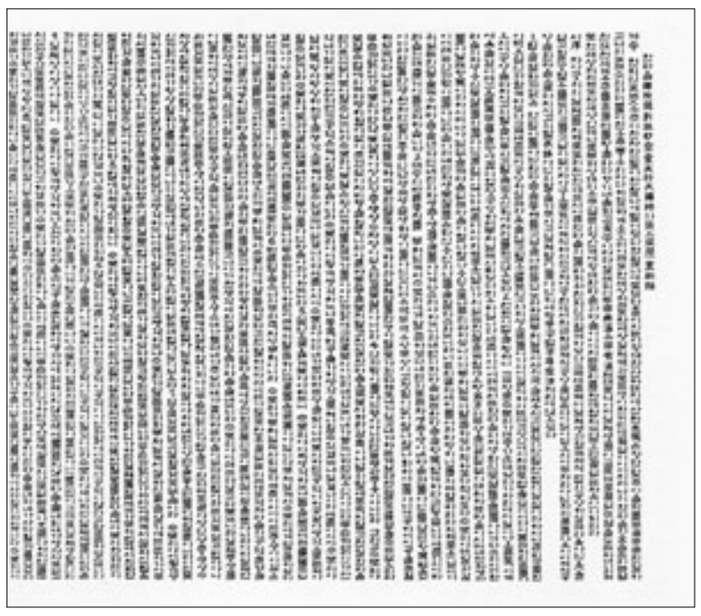
'마음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대행선사 법어와 불교 · 유교 · 도교 경전의 마음 관련 명구(名句)를 담은 47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번 작품 중 백미는 대행 선사가 한문 금강경을 한글로 쉽게 뜻으로 풀어 놓은 1만3천165자를 한지에 쓴 10폭 병풍(70㎝×135㎝×10)이다. 작품을 완성하는 데 만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대작이다.

블룸비스타서 6월 30일까지
대행선사 법어 · 유교 경전 등
마음 수행 관련 名句들 담아

"禪과 線은 둘이 아니다" 화두
서예 통해 심신의 장애 이겨내
마음수행 기반한 墨筆 '독창적'

"2달여 동안 하루 종일 혼신을 다해 썼습니다. 그럼에도 오 · 탈자가 나왔어요. 글씨가 마음에 안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째로 3번을 쓰고 엎고 했지만, 완성되고 나니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윤상민 서예가의 작품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70㎝×135㎝×10)' 중 일부. 1만 3천여 자가 담긴 10폭 병풍의 진면목은 전시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심'(53㎝×25㎝)는 얼마나 남지 않은 먹을 묻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작품으로 작가가 가진 묵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1만 3천자가 넘는 대작인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을 대하고 보니 그 노력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저절로 마음이 모아진다"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상민 서예가는 선사 법어, 〈금강경〉 〈논어〉 〈맹자〉 〈명심보감〉 〈채근담〉 〈노자〉 등에서 마음 관련 명구들을 선별해 필묵으로 담아냈다. 사용한 서체들도 다양하다. 한문의 전서 · 예서 · 해서 · 행서 · 초서와 한글의 궁체 · 판본체(정음체), 그리고 전각까지 그 스펙트럼이 광대하다.

특히 작가를 유명 국전 작가 반열에 오르게 한 행서와 초서, 40년 동안 매진해 이뤄진 특유의 판본체 작품들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중 '부동심'(53㎝×25㎝)는 얼마나 남지 않은 먹을 묻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작품으로 작가가 가진 묵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선주선 원광대 서예과 교수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조형은 조형대로, 필력은 필력대로 새 경지를 이뤘다"면서 "한문서예도 일격(一格)이지만 특히 정음체 한글 글씨는 단연 독창적인 면목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교수는 "필획의 유연과 질삽(疾澁, 매끄러운 획과 까칠한 획)은 먹이 춤을 추듯 하고 유동미의 흐름도 뛰어날 뿐 아니라 결구(글자의 짜임)와 장법(작품의 짜임) 또한 자유자재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윤상민 서예가는 대중들이 마음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으면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내비쳤다.

"저에게는 붓을 잡는 일도 수행의 길입니다. '수행자는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행 선사의 법어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작품에 임합니다. 많은 대중들도 이번 전시회의 대행 선사의 법어 등을 통해 '깊고 간절한 한 마음이 닿지 못한 것이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윤상민 서예가는 "대행 선사의 법어만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40년 작가 인생을 회향할 것"이라는 원력도 밝혔다.

"잘 나가는 은행을 접고 전업 서예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은 만류했지만 오직 대행 선사님만이 '그래, 잘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고 여기까지 작품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청우(靑雨)라는 법명 겸 호도 스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제 작품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작가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031)770-881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찬불가 사랑한다면 실력을 보여주세요

BTN · 풍경소리, 찬불가 대회

좋은 벗 풍경소리와 BTN 불교 TV는 공동으로 불기 2560(201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찬불가 열창대회는 예선(4월 24일)과 본선(5월 19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모두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독창과 8인 이하 중창까지 가능하다. 참가곡은 찬불가, 찬불가요이며, 대중가요 개사는 금지된다. 반주는 출연자가 동반하며, MR 반주도 가능하다.

신청은 '좋은 벗 풍경소리'와 '붓다콘서트 카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4월 16일까지다. (02)723-9836 신성민 기자

클래식 · 짓소리 '콜라보' 마음 울리네

성담 스님 · 임현정 피아니스트 '어둠에서 빛으로' 콘서트

4월 8일 부산 영화의 전당서 피아노 선율 · 짓소리 울림 만남

클래식과 범패 짓소리의 콜라보레이션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파워풀한 연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임현정 피아니스트와 성담 스님의 합동 프로젝트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4월 8일 오후 7시30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성담 스님과 임현정의 콜라보 프로젝트 콘서트는 해외에서는 이미 'The Pianist and The Sage'이라는 타이틀의 연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주 형식이다.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 곡 사이마다 성담 스님의 범패 짓소리가 더해지는 혁신적인 형태의 연주다.



범패 짓소리는 사찰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소리로 안채비들이 부르는 안채비 소리, 겉채비들이 부르는 홑소리 · 짓소리 · 화청(和請)이 있는데, 이 중 짓소리는 홑소리를 모두 배워야 가능하다.

이번 연주는 음악과 영성에 대한 내용의 짓는 소리가 하나의 음악이 되어 피아노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2015년 더블린 피아노 페스티벌에 초청돼 연주된 바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환경을 위한 'COP21 24시간 명상프로젝트' 행사에도 상연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제 현지언론은 "성담 스님과 임현정의 연주는 동서양 최고의 만남, 음양의 조화를 이뤘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임현정은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8번'을 비롯해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타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라벨의 '소나티네 Op.40', 쇼팽의 '에튀드 Op.25 No.1' 등을 연주한다. 여기에 성담 스님은 '빛은 어디에나', '해탈' 등 짓소리로 공연의 깊이를 더한다.

공연을 주최한 행복기술원은 "이번 연주는 단순히 음악과 종교와의 만남을 넘어 인간과 세계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것, 고민과 번뇌에 대한 여정을 보여준다"고 기대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1544-1555)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따뜻한 봄, 당신이 생각났어요

경륜 스님, 서울 · 구미서 '착한 전시회'

아이들과 생활하며 느낀 감성
귀여운 동자승 작품으로 화현



누군가 그랬다. '동심(童心)이 곧 불심(佛心)'이라고.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을 바라보면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는 경륜 스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옮긴다. 일종의 그림일기다. 그래서 경륜 스님의 그림에는 항상 웃고 있는 천진한 동자승이 화제(畵題)다.

아이의 엉뚱하면서도 즐거운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낸 경륜 스님의 전시회가 따뜻한 봄, 다시 대중을 찾는다. 2014년에 이은 다섯 번째 전시회로, '좋은 생각이 났어. 니 생각'이 이번 전시회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9~16일에는 구미 여정아트 갤러리에서, 4월 26~27일에는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경륜 스님은 "우리 연꽃둥이들의 생각은 날마다 착한 생각, 맑은 생각, 바다를 닮은 생각뿐이다"면서 "함께 지낸 연꽃둥이들의 엉뚱한 에피소드들을 그림에 담았다. 많은 분들 와서 봐주고 '좋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054)456-3100, (02)541-3111

신성민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3.16~2015.3.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6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7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8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툽텐최된	불광출판사
9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10	약사경강의	남회근	부키



"나는 내 삶의 진짜 주인"

괜찮아, 나는 나니까

글 성전 스님 | 담앤북스 펴냄 | 1만 4천원



잔잔한 감성적 필체로 불자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는 성전 스님이 4년 만에 산문집을 펴냈다. 성전 스님은 남해 염불암서 주석한다. 암자를 찾은 사람들이 가끔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 적적하지 않으세요?" 스님은 답한다. "가끔 적적하고 대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묻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스님이 다시 웃으면서 답한다. "나는 나니까요." 이 책 제목인 이 말은 성전 스님이 외우는 일종의 행복 주문이다.

"나는 나니까 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상황이나 평가에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모든 가치와 기준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삶을 열어 가는 것이 바로 주인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즐겁고 외부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펴낸 산문집에는 총 91편의 글이 실려 있다. 스님이 2013년부터 신문 칼럼에 연재한 것에다가 최근에 쓴 글을 보태 한 권으로 엮었다. 책 속에는 절집의 아름다운 풍경과 아랫마을 할머니의 귀여운 하소연 같은 소소한 일상서부터 실크로드로 떠난 구법(求法) 여행기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다. 성전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 나에게서' 희망 찾는 법을 들려준다.

또한 책에는 땅에서 넘진 자들이 짚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스님이 전하는 희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지혜와 마음가짐 그 자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성전 스님은 한때 '라디오 스타' 였다.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 〈행복한 미소〉 DJ 시절, '미소 스님' 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최근에는 불교TV의 〈뮤직에세이 편지〉 진행자를 맡고 있다. 방송 일로 가끔 서울에 머물지만 대개는 산사서 지낸다. 산중에 살아도 적적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 '나는 나니까' 하는 마음가짐 덕분인데, '절친들' 의 공(功)도 크다고 스님은 피력한다. 남해 푸른 바다와 호구산, 밤새 절 마당을 지키는 달빛, 사철 피고 지는 꽃과 나무가 모두 스님의 벗이다. 숲은 계절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는 무상(無常) 진리를 색(色)으로 보여 주는 존재요. 달빛은 겸손과 부드러운 말씨의 미덕을 말없이 비추는 벗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겨울나무는 여름날 무성한 녹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 버린 겨울나무에 봄이 오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여쁘게 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 버린 겨울나무가 회복해낸 희망입니다. 놓을 땐 완전하게 놓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스님 주변의 자연과 사람들을 치켜세우지만, 사실 스님의 수행 도량은 경계가 없다. 산중의 절은 물론 병원과 공항, 미얀마의 어느 허름한 골목까지. 스님은 당신이 머무는 모든 시간과 장소를 마음 도량으로 삼는다. 그것이 스님이 생각하는 바로 '마음의 힘' 이다.

크고 작은 일상서 자신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일로 좌절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성전 스님은 다시금 '마음의 힘' 을 떠올린다.

2013년 이후 신문칼럼 등 91편 실어
절집풍경, 구법여행기 등 소재 다양

성전 스님은 "이 길 위에서 나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과정이고 우리들 고통의 원인은 사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방식에 있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는 있습니다."이라고 설명한다.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워 주저앉은 이들, 사람에게 상처받아 괴로운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성전 스님이 건네는 희망은 다름 아닌 '마음' 이다. 다른 누구의 마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것 말이다. 책에는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지혜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성전 스님은 책 속에서 조언한다. "문제를 좇아가지 말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일이 문제를 대하는 가장 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산을 다 가죽으로 덮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발을 가죽으로 감싸기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쉬운 일은 마다하고 온 산을 가죽으로 다 덮는 그 어려운 일을 하고자 오늘도 헐떡이고 있습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매일 하나 문장 얻고 하나의 욕심 버리다

나는 도시에서 수행하듯 살기로 했다

김종건 지음 | 도그지어 펴냄 | 1만 3천원



'물건을 버리고 행복을 되찾자' 는 단샤리 열풍이 국내에도 거세다. 심플라이프를 주창하는 이 유행의 배경에는 삶의 복잡다단함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팍팍한 현실이 자리한다. 이 책의 저자는 '물건 버리기'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도시서 수행하듯 살기를 제안한다. 지금은 더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더 비우기 위한 마음공부' 가 절실한 때라는 것이다. 즉 수행자처럼 사는 삶이야말로 도시서 마음 중심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를 도발하는 것들에 쉽게 반응치 않고 '고요해지는 연습' 을 통해 하루를 수행하듯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수행은 '성현들의 삶을 본받아 단 하루라도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화두로부터 시작, '단순함' 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도, 명상, 경전 공부로 점철돼 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나태해지는 자신을 바로잡아 줄 자경문(自警文)을 여러 고전서 취해 이 책의 적재적소에 수록했다.

'하루' 라는 일상의 최소단위를 수행하는 자세로 살기로 한 후, 저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음을 고백한다. 이 책은 인문학 고전의 정수를 읽고 따라 쓰는 기쁨과, 하루를 반성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트랜스포머 자기 수양서이다.

저자, "수행은 도시서도 충분히 가능"
인문학 고전 정수 통한 자기 수양서

지금 우리는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끊임없는 경쟁과 그로 인한 불안, 분노, 강박이 우리의 정신을 온통 쥐고 흔든다. 그 결과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 하면 서로에게 폭발적 분노를 쏟아내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돼 있다. 저자는 이런때일수록 중심을 잃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도시인들에게 '고요해지는 연습' 을 권한다. 〈장자〉 덕충부 편에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말고 고요한 물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는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고사가 나온다. 흙탕물은 마실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모든 이물질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고요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으로 저자는 쉽게 반응하지 않는 삶을 제안한다. 〈도덕경〉 16장서 노자는 '지극한 비움에 이르고 완전한 고요를 지키는 것' 이야말로 지혜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발하는 것들에 쉽게 반응치 않는 공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일상의 최소단위인 하루를 조각내 고전 속 성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낯선 경험을 제공한다. 매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선물처럼 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유불도 경전과 여러 고전을 다양하게 인용하며 독자들을 기도, 명상, 참선, 위빠사나 같은 생활 속 수행으로 이끈다. 하지만 하루 수행을 실천하는 자신의 분투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수행하는 삶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주일 기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죽음 3가지는?

보석같은 지혜

해설 라마 글렌 | 번역 김영로 | 마트리 북스 펴냄 | 1만원



이 책은 제7대 달라이 라마(1708-1757)의 저술인데, 정식 명칭은 보석 같은 지혜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이 책은 〈로종(Lojong)과 람림(Ram Rim) 경험에 관한 게송과 신비한 시들(mystical poems)〉이란 명칭의 7대 달라이 라마의 저술 선집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이 선집은 11세기 중반에 인도 벵골 출신의 위대한 스승인 아띠샤 디빰까라 슈리즈냐나(Atisha Dipamkara Shrijnana)가 티베트로 가져와서 곧 모든 티베트 불교학파의 기반이 된 로종과 람림 전승 분야에서의 7대 달라이 라마의 저술로 구성되어 있다. 라마 글렌에 의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 외적인 죽음. 이것은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죽거나, 무의미하거나 헛되이 삶으로써 서서히 죽어가는, 성공하지 못한 삶에 의한 죽음을 가리킨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통해 사고나 질병을 예방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적인 죽음인데, 이것은 번뇌 때문에 자신의 본성에 충실히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탐욕에 갇힌 사람들은 탐욕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 이런 면에서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또한 화를 잘 내는 이들은 참된 사랑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은 밝은 지혜를 성취한 분들이 누리는 한없는 자유와 희열을 모른다. 모든 고통의 근원인 미혹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내적인 죽음 대신에 모든 경험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셋째는 은밀한 죽음으로, 이것은 자기 자신의 불성(佛性), 마음의 본래의 지혜와 몸의 본래의 큰 안락을 모르는 것을 가리킨다.

보석같은 지혜에 관한 질의 응답 수록
7대 달라이라마 선집 중 마지막 부분

7대 달라이 라마는 생애의 많은 시간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쳤다. 하지만, 때때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거처서 몰래 나와, 신분을 숨긴 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때에 그의 수행원들은 그가 뽀딸라서 안거에 들어간 것처럼 행동했다. 종종 이렇게 달라이 라마는 단순 여행자 혹은 거지로 가장해, 공식 모임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상생활 상황의 방편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7대 달라이 라마의 이런 즉흥적인 외도(外道)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그는 집집마다 자신의 서비스를 팔러 다니는 전문적인 기도문을 읽어주는, 가장 낮은 계급의 승려의 복장을 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는 이 위장 신분으로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들은 이 겸손한 스님의 소박함과 상냥함에 감동받았다.

김주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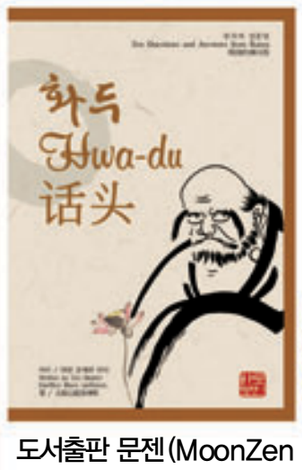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화 두



'화두' 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MoonZen Press)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토피 자가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불자는 증가하는데”… 中정부 종교 지원 시급

TIME, 공산주의 체제 속 고초 겪는 中 불교 ‘조명’



중국 내에서 불교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찰들이 정부의 법적 ·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TIME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다. 이처럼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는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종교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인구의 18%에 달하는 규모인 2억4500만 명이 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의 21%는 토속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 토속신앙 중에서는 대다수가 불교적 의식도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불교 관련 산업도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2회 중국 국제 불교 용품 박람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방문, 불상 · 향 · 염주 등 다양한 불교용품과 채식음식 전시를 관람하며 성황을 이뤘다.

당시 전시에 참여한 ‘붓다랜드 화물’ 대표 푸루 솟탐 씨는 향로와 좌선용 방석, 카페트 등을 출품해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었다. 네팔 사업가로서 10년 간 중국과 거래해 왔다는 그는 “최근 불교 관련 산업이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인 불자들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더욱 밝다”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마친 후 중국 남쪽의 우한과 상해로 불교 용품을 팔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중국 내에서 불교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법적 ·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최근 중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나 공산주의 체제로 인해 법적 장애를 겪고 있는 중국불교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문화혁명(마오쩌둥이 주도한 대규모의 사상 · 정치 투쟁으로, 독재정권이 주민대중들을 문화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해 실시한 인간정신개조운동. 1966~1969) 당시 북경에는 6,843개의 불교문화유산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4,922개가 훼손됐다. 이밖에도 50만 점 이상의 골동품이 파괴됐으며, 경전들은 불태워지고 스님들은 고문당했다.

최근에는 집권당인 공산당이 불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종교시설이 법적 ·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중국 종교 담당 국무처 관계자들의 권한에 달려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더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교회와 이슬람교는 예배 활동을 금지 당했다.

특히 북경 근처의 비구니 천년고찰인 창싱사(長興寺)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찰 운영에 고초를 겪고 있다.

창싱사 주지 미아오 펑 스님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포교를 하고 있다. 채식음식을 즐기는 불자들의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며, 자신의 팔로워에게는 음력 설 명절에 외울 수 있는 경구(警句)를 보내주고, 부처님 이미지와 찬불가를 게시하는 등 인터넷 포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 급성장 속 ‘삶의 질’ 추구
종교 관심 증대, 특히 불교 ‘각광’
정부 공식 등록돼야 사찰 운영可
“종교 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해야”

하지만 창싱사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미아오 펑 스님은 “당국의 공식 허가가 없으면 우리는 불자들에게 시주조차 받을 수 없다”면서 “신도들은 사찰을 재건하길 바라지만 보시금을 받기 어려우니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아오 펑 스님은 정부에 공식 종교시설로 등록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지역에 불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교를 더 홍보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싱사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얀루(27) 사미니는 “고대 몇몇 왕조들이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사용했지만, 현 중국 정부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국가 운영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교가 정부나 거대기업과 밀접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종교가 발전하는 길을 막을 것이다. 나는 불교가 정부와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창싱사와 달리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다른 사찰들은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경 끝자락에 있는 룽취안사(龙泉寺)는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한 사찰 중 하나다. 수백 명의 인파들이 주말마다 선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 명문인 칭화대와 북경대 출신 엔지니어들은 기술지원 자원봉사 일환으로, 사찰 방문객들이 불교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불교가 제도적으로 원만히 자리잡기 위해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셩 후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시급히 종교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일부 기득권층이 벌써부터 사찰 자산들을 개인 소유로 취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에는 종교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통제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난 달 종교법안 재정을 촉구하는 선거 운동을 펼쳤지만, 중국 공산당은 당 내 주요부서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종교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며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제 당원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세계적 스타 셰프, 불자 된 계기는?

에릭 리퍼트, ‘더 가디언’과 인터뷰서 불교 가치관 밝혀

“불교, 고통의 굴레 해방시켜”
평소 ‘화(火)’는 ‘친절’로 다스려
“변해야 한다” 깨달아 불교 입문
생선 요리할 때 ‘내적갈등’ 커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 · 사진)가 영국 신문 ‘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불교는 내 인생을 바꿨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출처=The Guardian

미슐링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은 세계적인 셰프, 에릭 리퍼트(Eric Ripert · 50)가 “불교는 내 인생을 바꿨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에릭 리퍼트는 3월 20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더 가디언(The Guardian)’과 인터뷰에서 “불교는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모든 존재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종교”라면서 “나도 주방에서 화를 낼 때가 있다. 그러나 화를 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처럼 화는 강함이 아닌 약함의 상징이고, 나는 되도록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퍼트는 “친절은 ‘내가 너를 안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약점을 보살펴주고, 보완해주겠다는 의미”라며 “나는 내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요리사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관용이자 친절이다”고 말했다.

리퍼트는 프랑스 출신으로 17세에 파리의 400년 전통 레스토랑 ‘라 투르 장(La Tour D’ Argent)’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이후 프랑스 요리계의 전설 조엘 로부숑(Joel Robuchon)의 레스토랑 ‘자민(Jamin)’을 거쳐 1994년부터 뉴욕의 ‘레 베르나르딘’ 레스토랑에서 수석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스타 셰프’로 주목받은 그가 불자가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리퍼트는 처음 요리를 시작한 17세 때를 회상하며 “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성공했고, 촉망받는 요리사였으며 멋진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성질이 고약했다”면서 “나는 스스로 정신적 빈곤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고, 그럴 수 없다고 느끼자마자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리퍼트는 달라이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락연설 영상을 접한것이 바로 그가 불교에 입문한 결정적 계기였다. 리퍼트는 “나는 달라이라마의 연설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나의 오감을 일으켰으며,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그는 불교에 더욱 심취했으며, 자택에 명상방을 두고, 네팔 스님으로부터 명상 과외를 받는 등 수행에도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Gelukpa) 학교에서 달라이라마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며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퍼트가 요리사이자 불자로서 겪는 가장 큰 내적 고통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각을 충족시켜 줄 육류 · 해산물 등을 조리하면서도 불교계율의 ‘불살생(不殺生)’을 어긴다는 생각에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요리를 시작한지 오래됐지만 이 점은 지금도 내게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러나 최소한 육류나 생선류 등을 그저 요리의 재료로 취급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의식을 갖고 요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의식과 장인 정신 등에 지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리퍼트는 지난해 8월 사찰 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바 있다. 또한 2월에는 그가 진행하는 PBS-TV ‘아벡 에릭(Avec Eric) 시즌3’ 프로그램에서 사찰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당시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이 출연해 한국의 전통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8월 방한 당시 리퍼트는 “사찰음식은 육류를 사용하지 않아 고통이 없는 음식이며,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을 밝힌다. 사찰음식 요리는 하나의 수행으로써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기에 요리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보시할 때 달고 기름진 음식 피해주세요”

태국 스님 절반 이상 비만 · 성인질환에 시달려



방콕 아카데미 연구결과 스님들 절반 이상이 보시로 받는 음식들로 인해 비만과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인디펜던트 닷컴

태국 스님들의 과반수가 비만 혹은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닷컴’은 3월 18일(현지시간) ‘방콕아카데미’ 연구결과에 따라 “스님들 절반 이상이 보시로 받는 음식들로 인해 비만과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스님들이 보시로 받는 음식들은 인스턴트 차, 커피, 주스, 설탕이 들어간 각종 음료와 달고 기름진 태국 전통음식들이다.

방콕 출랄롱코른대학의 종짓 앙카타바닉 건강영양학 교수는 “조사에 참가한 48%의 스님들이 비만으로 거의 시한폭탄에 가까운 수준의 건강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 42%가 고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으며 23%가 고혈압, 10%가 당뇨질환이다. 2012년에만 스님들의 병원 진료비용으로 약 30억 바트(한화 약 98억 원) 정도가 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공공보건관리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스님들이 의료비용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에 나섰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300여 명 스님들에게는 쭐랄롱꼰랏위타얄라이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파일럿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식들이 공급됐다.

종짓 앙카타바닉 교수는 “8주가 넘는 기간 동안 스님들은 영양 식단을 제공받으며 몸을 많이 움직였다. 그 결과 스님들의 몸무게가 평균 1kg 줄었으며 허리둘레도 평균 1인치 감소했다.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철야기도 도량

무심사 무심선원 약사여래마애대불 점안 및 제 9회 낙동강 수륙. 용왕 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낙동강변 영축산 약사여래마애대불를 친견하시고, 물에나 육지에 있는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대법회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주 고혼 영가천도에 무량 공덕 지으셔서 가정 편안하고 세세생생 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 무심사 무심선원 사부대중일동 합장 –



■ 일 시 : 2016년 4월 10일(일요일) 오전 10시
■ 집 전 : 무형문화재영산회 전수자스님 다수
■ 법 사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회주)
■ 장 소 : 무심사 무심선원경 내



무심사 무심선원 선방 안내

■ 매주 토요일 다라니 철야정진
매주 1째, 3째 토요일 능엄신주 독성기도 오후 2시
선방시설완비(단체, 개인 참선방)

■ 무심사 셔틀버스운행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 4번출구 앞 대기)
· 무심사 홈페이지
다음카페 ‘낙동강 무심사’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천하절경’ 낙동강변 영축산 무심사 무심선원 ☎ 053)616-8080/010-9898-0108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손실길62-215(송곡리), 네이비주소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과학남로2길 12-5 (대암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 학 마 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참여
- 배우면서 행사 함께 참여 하실 분 (대구)모집
010-8674-114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運을 올리는 작명, 개명
- 이름과 숫자(은행비밀번호 등)가 運命을 좌우한다
- 아폴로13호 : 고장으로 귀환
- 2016년 5월 : 괴변이 예상됨
- 신생아는 진용일, 진용시에 출생신고 하여야 運이 크게 올라간다
작명제일 용님선원
010-2849-385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불사용 달마도
40cm×62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051-202-8770 /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청암달마원
10장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 넣어드립니다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록명법 특강
전귀명자,부동산투자,성공, 폭패,파택살자,부도,사채회수 불가,국인일,천사통수, 건리,경문,당선되고,마두대재, 창업성공, 봉황록귀,부귀양명, 비재성자,횡재 등
쉬운 천고비법강의
010-7189-7674

부전스님 모십니다
(양산, 작은암자)
010-3574-3303

비구니 기도스님, 법당 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3579-6444
051-761-144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성북구)
02)742-8120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055-374-646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산)
010-3955-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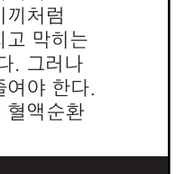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고 마음 어두운
사람은 자랑을 한다. 자랑일랑 그만두게나
나 이미 내가 아니며 어디에도 자식과 재물은 없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전통와가 사찰◀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00평, 주차장 13평 별도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3동)
- 가액 : 1억 4천(은행대출 4억 2천)

▶관 광 사 찰◀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관광버스주차장
- 건물 : 법당 48평, 요사채38평, 원주실 15평
- 가액 : 14억 5천

※세계불교박물관 (벼락맞은 5,400여년전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 보유)

051-863-6622
010-3560-8522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공주시 추천암자 안내 (www.이박사.com)
- 요사채 90㎡, 토지 660㎡
- 남향으로 좋은터
- 마곡사 IC부근, 산중조용하고 기도암자로 적당함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건물 리모델링함. 주차장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대지 : 65평	◎ 대지 : 2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옛 금강공원입구)
- 총부지 : 203평
- 1건물 : 법당(30평), 요사채(2동), 주차장
- 2건물 : 사찰에 딸린 원룸 1동 (룸12개), 점포(2개) 전세 2억 월 400만원 나옴
- 가액 : 은행대출안고 6억 5천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공주시(급) 토굴
갑사 방향 산속토굴
- 토지 1600㎡, 건물 80㎡
- 산중이며 주변에 마을없어 조용함
- 기도토굴,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수행하기 좋음
- 가액 : 1억 1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보이 호텔옆
- 평수 60평, 5층건물중 낮은 3층
- 방3개, 화장실, 법당, 베란다
- 겨울난방, 여름난방 필요없음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 종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5천 (스님 건강문제로)

010-4628-569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산 남천 신석리
- 정남향 조용하고 아늑함 뒤는 낮은 산
- 나대지 90평
- 실제 사용평수 110평
- 전기 측량 완료
- 평당 30만원

010-3805-2778

토굴(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남중동 (4차선 대로변)
- 평수: 약 30평, 상가주택 2층 중 2층(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후불, 신중, 산신 등)
- 법당,주지실,상담실,넓은거실리모델링
- 냉장고,에어컨,세탁기,목욕탕,간판 등
- 가액 : 전세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교통편리

010-9288-6889

토굴 팝니다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면사무소에서 3.6km)
- 건물 : 30평(목조기와) 대지 : 100평
- 금액 : 1억 5천만원
- 위치 : 문경읍 관음리(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목조강판기와),부지 : 82평
- 금액 : 7천만원

연락처 : 010-8555-44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 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연등,집기일체,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은거토굴 안내
대명당
- 위치: 대구 동구 팔공산 중대동
- 평수 : 대지 200평, 2층건물
- 방3, 거실, 주방, 정남향
- 대명당에 기운으로 행정고시 2명 배출한 터입니다.
- 가액 : 5억 8천만원

010-9355-177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
- 2층 50평
- 방3, 법당1, 삼존불, 탱화 화장실2, 주방, 거실
- 법당만도 가능, 최고시설 완벽
- 가액 : 2,500만원 월 160만 시설 인테리어 총 합 9,000만원

010-2333-3005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산 중턱 전원 주택지 내
- 단층 한옥 암자
- 대지 230, 건물 52
- 민원 없이 즉시 예불 가능
- 삼존불외 모든 기물 포함
- 가액 : 4억 (융자포함 전세 1억 6천)

010-9470-42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
- 평수: 50평, 4층건물에 3층
- 법당,상담실,친견실,침실
- 보증금 :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는 급 양도로 3천만원 들어간자리 1200만원만 받습니다.

010-6220-235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2천만원(가격절충)

010-4564-8108
010-7161-2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길 22-31
- 대지 1,240평, 산신각, 미륵불 있음
- 요사채 없음, 암반수, 전기시설
- 가액 : 7,000만원

010-3763-2809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건물포함)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평수 : 약 80평, 2층 건물의 2층, 법당, 방 3개
- 화장실, 옥상사용 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정가능)

010-5298-7357
010-4916-94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인접
- 상가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170)
- 가액 : 500만원, 월 9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문화재 사찰
- 터, 또는 작은 암자
- 귀농하실분 주택포함
- 융자가능
- 직거래

010-3288-1317

아주 큰 포교원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전철역 5분거리
- 4층 건물의 4층, 약 90평, 법당 30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 용왕, 영가단, 지장탱화, 삼성각 10평, 영가단 20평, 공양간 20평
- 방 3개, 밖에 가마솥 4개 도시가스 설치 바닥 전체 도시가스, 해우소 2개,연등 3천개, 에어컨 4개, 냉장고 2개 • 6년째 운영
- 가액: 5천만원 월 155만원(관리비 포함) 시설비는 아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010-2127-4755

포교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소재 시내 황금동 교통 10분대 김천혁신 도시 15분대
- 단청건물:벽돌조 독채 104.54㎡(32평) 법원 개인등기(사찰 등재)
- 대지: 도지료 1년 35만
- 내용:법당, 거실, 주방, 방2, 세면장(욕실) 면 중심소재 2차선 대로변 남향 (교통좋음)
- 가액 : 4천 8백만원(절충가)

010-7295-1259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 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2 중 1방은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가액 : 2억 4천만원
- 산중 작은 암자나 토굴 교환가능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011-9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2-60 (상계로 13-6) 4호선 당고개역 바로 앞, 재개발 구역
- 지하 1, 지상 2층 단독주택(토지건물 포함)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763-2809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설산, 적송숲 가람조성 5년!
- 종교부지 650평, 삼존불, 노천약사석불, 조립식건물 3동
- 산 1만3천평 사용가능함
- 가액 : 2억 2천만
- 전세 가능함

011-677-8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법당 포교원 임대
- 위치: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가
- 시설비포함 3500/월세 60 실평수 23평
- 지하철, 홈플러스 걸어서5분. 초역세권. 입지조건 최고 갤러리아백화점 신축확정, 아파트 학교 회사밀집지역
- 법당 상담실겸 스님방 주방 다용도실
- 법당시설 완비(불,탱,CCTV, 전기조명,기타) 풀리모델링
- 주차장편리. 단골신도포교에 유리. 민원없음

총무 010-5967-3689
010-8532-891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5018-33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0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전원 주택지 명당터 안내
하늘이 내린 천생산 자락에 명예와 부귀를 부르는터 ..."정남향"
- 위치 : 경북 구미시 신동 사각지 못 바로 앞
- 대지 : 1.약 200평 2. 300평
- 기반시설 완료 : 오셔서 건축 바로 하시면 됨
- 가액 : 평당 170만원
- 현장 답사후 가격 절충

010-3503-416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3개, 친견실, 공양간,화장실3개, 삼성각 12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1층 37평, 욕실, 도시가스 방 2칸, 앰프 시설 완비
- 부처님은 청동불 (석가모니, 지장)
- 주차 시설 완비
- 가액: 5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2,300만원(절충가능)

010-9150-002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8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정선
- 대웅전 10평, 산신각2평, 용왕각1평반, 요사채15평. 11평
- 차실8평, 종교부지176평
- 가액 : 1억 5천 7백만원 (절충불가)

010-6628-827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골목
- 3층 약 40평 옥상사용가능
- 각시설 완비(아미타불, 탱화, 호신불 100불)
- 가액 : 5백 월 2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5366-149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가격 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 토지 315평
- 건물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 종각 일주문 및 사천왕
- 가액 : 3억 5천만원 상담후 금액 조절가능

017-488-190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IC 5분거리
- 평수: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 1동 33평
- 약사기도 도량임
- 가액 : 2억 5천만원 (은행대출 6천5백만원) 시설물 일체
- 양도, 전 월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1억 월30만원)

010-7183-011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농가주택(토굴)
- 위치 : 경기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건물 2동
- 가액 : 4천만원
- 문중땅이며 건물만
- 건물 등기 있음
- 도지세 년 20만원

010-9849-7727
덕산 합장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동 (무지개 폭포 가는길)
- 평수 : 106평
- 삼존불(법당 시설), 법당, 공양간, 아랫채, 해우소 2칸
- 가액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258-289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 등기 24평 실평수(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도심숲속 공원內 사찰
- 위치 : 부산 범일동 공원 內
- 교통부 R위 10m 버스도로 옆 계단 있음
- 대지 98평 (건 100평)
- 2층 법당 35평, 1층 법당30평 1층 요사채(방2개, 거실 별도 대문) 화장실5, 방8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511-7000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 4천

010-3305-4559
010-9004-7212

사찰(신축)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구미공단과 왜관인접)
- 작오산 호국공원을 배경으로 낙동강 칠곡보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기도처요,요양지 임
- 1층: 요양원 및 요사채 90평 2층: 법당 삼존불 30평
- 대지면적 : 538평,동시주차 20대
- 가액 : 20억

010-4545-0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종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IC 5분거리 (마을 제일 윗집)
- 토지: 173평(종교부지)
- 건평 : 인법당 25평 요사 28평
- 가액 : 3억

010-4344-86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35평,욕실,주방,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 답사 후 절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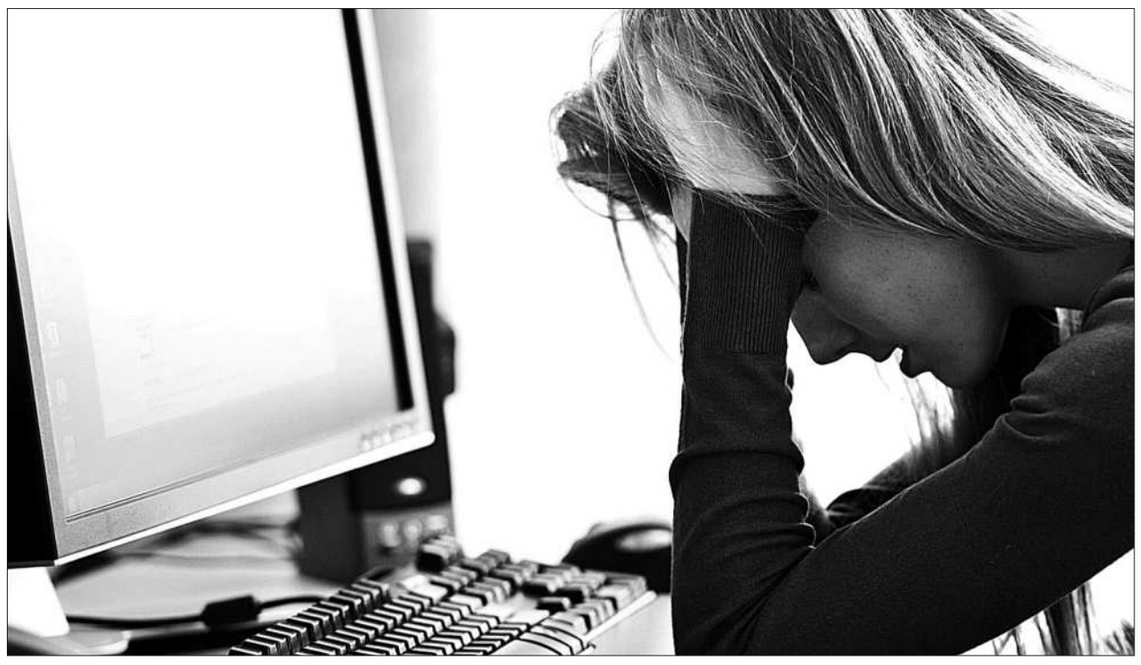
010-4646-3638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2〉 마음은 스트레스 발전소 (上)

잘못된 사고방식이 스트레스 키운다



스트레스의 씨앗

스트레스를 만드는 동기는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해서 충족이나 충족예상보다는 좌절이나 좌절예상을 만들기 쉽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동기가 과도한 동기인 줄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동기는 바라는 바(즉 동기의 '목표' 요소)에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절대로' 등이 포함된다. 즉 자신이 바라는 바가 시간상으로 예외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동기에는 '모든'이 포함된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공간상으로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 대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기의 목표가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동기의 목표가 이러한 극단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빈도와 정도는 높아지고 커질 것이다.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동기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바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바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지나간 과거가 다르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러한 비현실적 동기를 내려놓지 못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구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언제나 나와야 한다."

이런 욕구를 갖는 사람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이런 과도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좌절을 피하기 어렵다. 잘 지내다가도 만나자고 할 때 나오지 못하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나면 '이 친구도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고 멀어지게 된다. 혹은 '진정한 친구는 모든 면에서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친구에 대해 과도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런 사람은 친구에 관한 얘기 중 모르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부부관계를 원할 때 아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런 욕구를 갖는 남편은, 아내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들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내는 부부관계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고, 결국 남편의 동기는 좌절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남편은 '부부관계를 원할 때 아내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자녀 양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가사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욕구를 갖는 아내는 남편에게 과도한 것을 바라고, 결국 동기가 충족되지 않아 남편과의 불화를 피하기 어렵다. 어쩌면 이런 아내는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 교육에도 관심을 보이고, 가사도 분담하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고른 줄은 항상 최선의 줄이어야 한다."

이런 욕구를 갖는 사람에게는 동기충족이 아닌 동기좌절의 기회가 줄을 선다. 공항 출국심사대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는 가장 빨리 사람이 빠지는 줄에 서야 하고, 화장실에서는 제일 먼저 볼일을 마치는 칸 앞에서 기다려야 하고, 지하철에서서 갈 때는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사람 앞에 서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항상 그러기는 가능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절대적 당위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 것이다. 우리의 동기가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정도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욕구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

사람들과 모임에서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도 왠지 우울하다면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동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동기는 충족되기 어렵고 결국 침울한 기분이라는 열매를 낳는다.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맞벌이하는 여성 중에는 직장에서도 '여자라서 어떻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 완벽하게 일을 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러한 과도한 동기를 갖는 여성은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과거가 달랐어야 한다는 착각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과거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현재의 모습에 불만족해하고 그동안의 자기 행동을 후회하면서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행동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소망은 현실적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소망을 깨끗이 버리지 못하고 자꾸 반추하게 되면 동기좌절의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이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크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과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행동이 달랐기를 바라는 비현실적 동기도 있다. 여기에는 가까운 사람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자신이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어야 했다거나, 주변 사람의 실책 혹은 잘못에 대해 자신이 그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었어야 했다거나 하는 등의 당위적 바람이 포함된다. 이런 비현실적 동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과거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 달랐기를 바라는 비현실적 동기를 갖는 경우처럼 분노와 원한의 불덩이를 계속 쥐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약속에 늦은 친구에 분개하며 그 친구가 약속에 늦지 말았어야 했다거나, 변심한 애인의 지난 행동들을 비난하며 원망을 쌓고 있거나, 주변 사람의 실책 혹은 잘못에 대해 그들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등의 당위적 생각을 곱씹으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태가 달랐기를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고착된 자기 지식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 과도한 목표 때문에 좌절 스트레스 경험하게 돼

누구나 '앎'에 대한 욕구 가져 부정확한 지식, 스트레스 생성

접근동기vs회피동기

동기의 목표 요인이 특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접근 동기고, 목표요인이 특정 상태를 피하는 것은 회피동기다. 앞에서 동기는 '목표'(혹은 목표 상태)와 '목표를 획득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 혹은 추동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접근동기가 원하는 목표 상태가 정적으로 표현되는 상태라면, 회피동기는 목표 상태가 부적으로 표현되는 상태다. 예를 들면 질문에 답을 잘해서 교사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 상태인 경우는 접근동기지만, 질문에 답을 못해서 교사의 야단을 맞지 않는 것이 목표 상태인 경우는 회피동기다. 밖으로는 동일하게 공부하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 작용하는 동기는 다르다.

또 다른 예로는, 존중을 받고자 하는 동기는 접근동기지만, 무시를 받지 않는 것이 목표 상태인 경우는 회피동기다. 존중받고자 하는 동기는 과도하지만 않다면 웰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시 받지 않고자 하는 동기는 약간만 높아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무시의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 또 조금이라도 무시의 징후가 탐지되면 그것 하나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코웃음이나 '칫'하는 소리에 민감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이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거나 하지는 않는지 예민하게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회피동기가 클 경우 스트레스와 병리적으로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스트레스 씨앗에 물주기

앞에서 보았듯이 인지는 동기의 형성과 상태에 영향을 줌으로써 스트레스와 웰빙의 구성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구성에 관여하는 인지는 무엇인가?

충족되기가 어렵거나 좌절되기가 쉬운 과도한 혹은 비현실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웬만해서는 동기의 충족이 어려울 것이며 걸핏하면 좌절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기충족 예상의 웰빙은 어렵고 동기좌절예상의 스트레스는 쉽게 형성된다.

충족되기가 어렵거나 좌절되기가 쉬운 과도한 혹은 비현실적 동기의 형성에 기여하는 인지, 또는 동기의 상태를 좌절 또는 좌절예상으로 인식하는 인지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인지다. 이러한 인지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식, 즉 서술적 지식에 속하는데, 대체로 사실적 지식보다는 판단적 지식이다.

'나는 A기업의 면접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보다도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라는 판단이 더 큰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전자는 한 가지의 동기좌절이라는 스트레스를 일으키지만, 후자는 그것에 더해 수많은 영역에서도 동기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여 막대한 크기의 동기좌절예상이라는 스트레스를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스트레스의 구성에 관여하는 판단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비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비합리적 인지(irrational cognition)라고 불린다. 한편 비합리적 인지 혹은 인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심리학에서 비합리적 인지전략(irrational cognitive strategies)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사고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전략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절차적 지식에 해당한다.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자동화되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한다. 어떤 떡 재료를 넣어도 똑같은 문양의 떡으로 찍어내는 떡살처럼, 특정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상의 경험에서 유사한 형식의 생각을 자주 한다.

인지전략은 스트레스나 웰빙의 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스트레스의 구성에 관여하는 인지전략을 비합리적 인지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흑백논리, 과일반화, 독심술사고, 확대와 축소의 4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나와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면 그것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앎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나와 세상이 단순하다면 요구되는 행동도 복잡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흑백논리는 자신과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도식화하려는 시도이고 과일반화는 적은 사례로 전체의 특징을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부정확한 지식은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만들어 낸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부처의 숲

누군가는 돌에서 부처를 찾아내고, 새들은 돌과 부처 사이를 난다. 그렇게 새들이 죄를 씻고, 바람은 돌과 부처 사이에서 피안의 풍경을 본다.

죄를 씻은 새들이 돌과 부처 사이에 집을 짓고, 피안의 풍경을 바라본 바람은 돌과 부처 사이에 꽃을 심는다.

누군가 돌에서 부처를 찾아내던 날에 돌과 부처 사이엔 새들의 집들이 늘고, 바람의 꽃밭이 커져만 간다.

저녁 햇살에 부처의 주름이 깊어간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문경 대승사마애여래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머리에 연꽃 모양을 새긴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먼저 베풀고 사랑하면 그곳이 '극락'

'보감사관' 명상

모든 인간관계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주고받거나 나쁜 것(-)을 주거나 받는 관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듯,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쁜 말로 응답하진 않는다. 또한 내가 나쁜 말(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좋은 말로 응답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플러스(+)적인 것을 주고받는 일은 하면 할수록 좋다. 문제는 마이너스(-)적인 것을 주고받을 때이다. 마이너스적인 것을 주고받다보면 안으로는 점차 고통이 쌓이다 마침내 그것이 폭발하면 싸움이 되고 만다.

나의 스승인 용타 큰스님은 이것을 '보감사관(보시 · 감사 · 사과 · 관용)' 명상이라고 했다. '보감사관' 명상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덕목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 한다. 베푸는 것은 평화와 행복의 밑거름이다. 말, 표정, 선물, 재물 그 어떤 것이든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건 다 +적인 베풂(보시)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들 리 없다. 정신이상자가 아닌 한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응답하진 않는다.

그렇게 상대방이 베푼 좋은 것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그것은 또한 준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니, 나도 모르게 나 또한 상대방에게 다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시는 받는 상대방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나를 먼저 기쁘게 한다. 그것이 보시의 가장 큰 매력이자 본질이기도 하다. 나와 너의 관계가 항상 이 같은 보시와 감사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평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로 (-)적인 것을 주고받을 때이다. 내가 먼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고, 아무개야, 욕해줘서 고마워'라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리 만무하다. 특별한 성자(聖者)가 아니곤 대부분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더 심한 욕으로 응대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점점 난투극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1 · 2차 세계대전 같은 '관계전쟁'으로 번지고 만다. 잠시 멈췄다 해도 언제 또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관계전쟁, 즉 휴전이다.

관계전쟁을 끝내는 길은 오직 '사과'와 '관용' 밖에 없다. (-)적인 것을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나서는 것이 제일로 좋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 웃는 얼굴로 먼저 사과하고 나서는데 거기다 대고 더 나쁜 말로 욕하고 폭력을 휘두를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쁜 말을 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계속 지옥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먼저 관용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계속 지옥을 살아도 나는 대번에 천국을 살 수 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계속 그곳에 머무는 사람만 손해다. 그런 지옥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다.

악(惡)을 악으로 대응해선 안 돼
먼저 사과할 때 지옥 벗어나
가까울수록 항상 보시 · 감사해야
받는 이 보다 주는 이가 행복

"베풀고 감사할 때 존경과 인정 따라온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적인 것을 받아 내 마음이 지옥일 때도 상대방이 사과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관용을 해버리면 상대방을 계속 지옥을 살아도 내 마음은 단박에 행복모드를 바뀐다. 신기한 것은 상대방이 사과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관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미안해하며 용서와 잘못을 빈다는 것이다.

절집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사서하기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 사과와 관용은 수행의 커다란 줄기였다. 자자(自恣)가 그것이다. 안거(安居; 승려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여름철 석 달 동안 하는 하안거와 겨울철 석 달 동안 하는 동안거가 있음)가 끝나는 날 온 대중들이 모여 함께 사는 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점을 스스로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례나 결례를 하는 등 -적인 것을 준 것에 대해 스스로 먼저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잘못을 닦고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관계를 하면서 이 같은 자자청(自恣聽;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스스로 먼저 묻고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을 수시로 하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관계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늘 자자청을 하고 사는 사람은 높은 인품의 소유자가 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일수록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부와 부모자식 사이일수록 먼저 베풀고 감사하고 사과하고 관용하는 일이 잘 안 된다. 너무 가깝기 때문일까? 오산이다. 가까울수록 '보감사관' 명상을 더해야 한다. 내 가족, 내 가정부터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 가서 천국을 만들고 낙원을 건설하겠는가.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사과하고, 관용할 때 그 에너지는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이웃, 내 국가, 전 지구촌으로 아름다운 파문을 그리며 번져나갈 것이다.

'보감사관' 명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공덕은 보시명상이다. 보시(베풂) 명상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인류를 행복과 화합으로 이끈다. 육바라밀(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 가운데 보시가 으뜸으로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보시만 잘하고 살아도 나머지 5가지 바라밀은 저절로 따라온다.

보시는 특히 나의 욕심(탐욕)을 녹여낼 뿐만 아니라, 구세군 냄비처럼 우리 사회에 따뜻함과 우호감을 더해준다. 또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전에 나부터 기쁘게 해준다. 주는 것은 나인데 더 행복해지는 것도 바로 나인 것이다.

기부왕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처럼 베풀기를 좋아하면 커다란 덤도 따라온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절로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바라지도 않는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한꺼번에 채워지는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은 가정이다. 가족부터다.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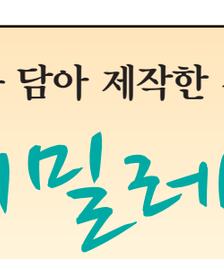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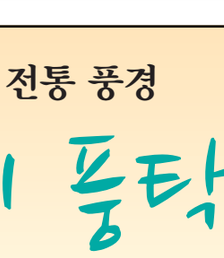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여) 저는 불교를 믿는다는 것보다도 불교를 숭상한 것은 한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받침대도 주셨고 향로도 주셨고 조그마한 부처님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 20여 년 집에다가 놓고서는 숭상하면서 절에 나갔는데 그 『도』, 『무』를 보고서는 그걸 그날로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데는 둥그런 떡 하나로 해 놓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는 고기를 일절 안 썼습니다. 안 쓰고 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제 떡 하나로 해 놓고선 제사를 올렸는데 스님, 저를 꼭 성불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대중 웃음)

큰스님 하하하…. 우리 식구가, 한 식구가 이 세상 식구라고 본다면 우리가 수박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수박을 짜개서 식구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되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심어서 또 중생들이 다 먹고 그 씨는 또 되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 한 그릇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 떡이죠.

제사 지낼 때 얘기 좀 해 드릴까요? 스님네들이 상을 차려 놓고 염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을 차려 놓으면 스님네들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스님네들이 아는 것만치, 스님네들이 '아, 돈 얼마를 내놔서 내가 이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요렇게 해 놨다.' 이걸 알고 있겠죠, 스님네들이. 그러면 영가가 들어와서 그것만 압니다. 공부를 못한 스님네들한테 밥 한 그릇을 올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상에 차려 놓은 것밖에는 모르니까 영가도 들어와서 그것밖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공부한 스님네들이나, 예전에도 선사들한테, 그 산 부처님한테 밥 한 그릇을 올리면 그 공덕이 수미산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덕이 크고, 그래서 그 선사들이 문을 탁 열어 놓고선 이 세상 삼라대천세계를 전부 요리를 해서 그 밥 한 그릇에다 포함해서 탁 놓으니까 그 밥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더란 얘깁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만사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 아님이 없는데 내가 뭐 부족할 일이 있겠는가 하고 영가가 스스로 그냥 한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요.

그렇게 자유스러운 거를, 만약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걸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얘깁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서 그것을 못할 때는 "스님, 스님과 한마음이 돼서 천혼문만 써서 밥 한 그릇 놓고 저 좀 해 주세요." 해도 그것은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가난치 않든지 이 불교를 배우는 데는 무슨 지식이나 학식이나 또는 이론이나 또는 가난한 거나 부자나 이런 거를 떠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안양의 신도들은 전부 부자만 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갈 수가 없다고. 허, 그러더니 그렇지 않은 거를 알고는 지금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부자도요, 초라하게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깨끗하게 하고 와요. 그건 왜 줄 아십니까? 인간 됨됨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위생상 남들에게 보기 좋게 하는 방편의 그것도 자비죠. 사랑이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만을 위해서 '뭐, 냄새가 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건 자기주의자죠. 그러니까 모든 걸 남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위해지죠.

또 예를 들어서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때 속상할 때 보면요, 부인들이요, 남편도 그렇고요, 물건을 턱턱 놔 가면서 "이그!" 그냥 그렇게 미워서 "으이그, 지가 뭐, 잘될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아, 이러거든요. 그 남편이 잘 안되면 벌써 자기 앞에 온다는 생각은 못하거든요, 화나는 것이 앞서니까. 그래서 한번 굴려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생각 한 마디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꿈을 잘못 꾸고도 잘 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성립이 되지만 잘못 꿔서 벌벌 떨면 그건 영락없이 닥칩니다. 올해는 삼재가 들었으니깐 내가 이건 조심해야지 하고선 그런다면 영락없이 그렇게 닥칩니다.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만 "스님, 그렇게 잘 아신다니 한번 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뭘 물어보시려고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고 묻더군요. "신부님께서 귀신 짓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거고 신부님께서 귀신 짓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을 테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또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는데 올해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나쁜 일이 있으니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신부님,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물귀신에 말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물귀신은 누굽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썼으니까 그 물귀신도 자기요, 말리는 놈도 자기입니다." 그랬더니 콧방귀 휙 하곤 그냥 가시는 거죠. 얼마 있다 또 오셨어요. 친밀하게 알았던 분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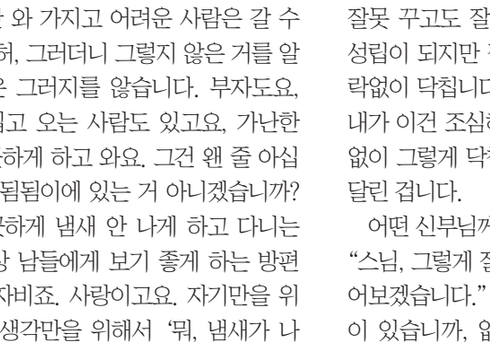
또 오셔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는 혼났어." "왜 혼나셨어요?" 아 글쎄, 아침에 누가 모두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집에 층층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아, 신부님 오시니깐 물로 잘 닦아 놨을 거 아닙니까. 닦아 놨는데 닦아 놓은 데서 물에 미끄러져 가지곤 그냥 거기에 디굴디굴 굴렀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허리를 다쳐 가지고요, 하이, 6개월을 애를 쓰다가 인제 좀 괜찮아서 왔대요. 그러기에 그랬죠. 그것 때문에 물에 안 가시는 마음이니 그 마음에 말린 거지 딴 사람이 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귀신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신부님의 그 마음 귀신에,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귀신이 된 거라. 물귀신이 된 거지. 그래서 말린 거지, 신부님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셨다면 그렇게 물에 넘어져서 그렇게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고 껄껄대고 둘이 웃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죠. 그 신부님은 경도 참 많이 보시고 그런 분입니다. 불교라는 것을 좀 아시죠. 그래서 중생들이 많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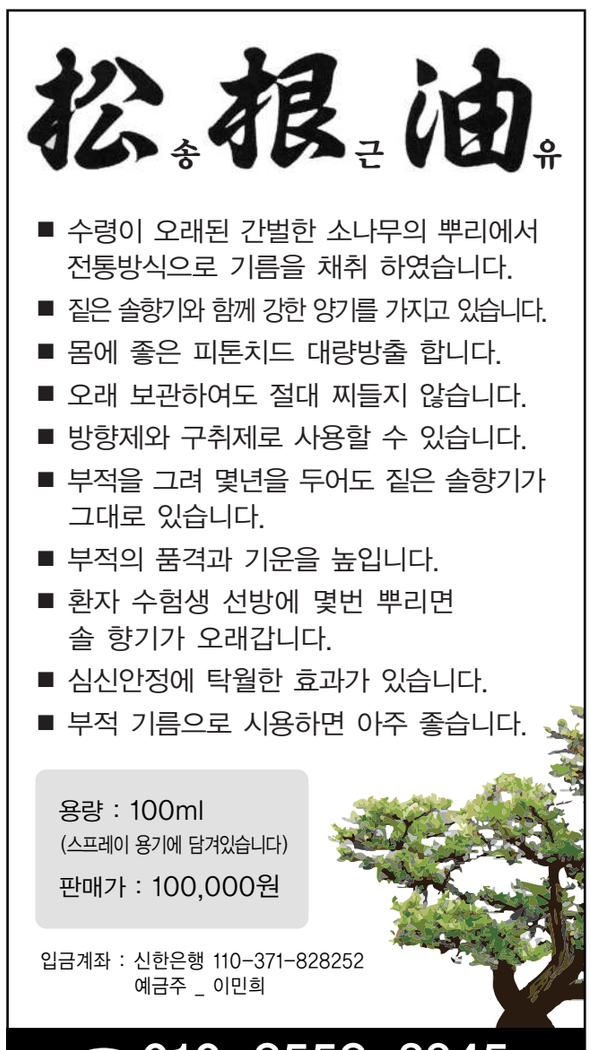
그러니까 불교 이 자체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통일교든 티베트 불교든 알라신교든 일본 불교든 다 이것은 상점의 간판과 같은 거예요. 모두가 항아리 속에서 같이 살고 있고, 그 항아리 속에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생산성 있는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블랙홀? 뭐, 난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부른다고 그럽디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 아까 저 보살님이 "나 성불하게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참, 친근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고 둘 아닌 도리를 알 수 있고, 그런다면 떡 하나 가지고도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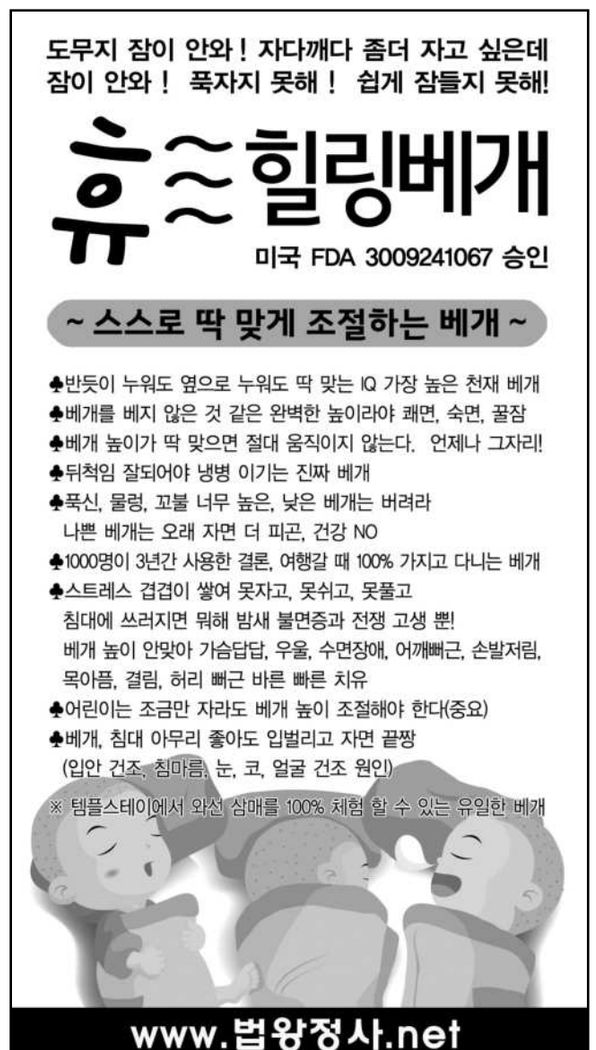
또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질문하기 전에. 어느 스님이 객승으로 어느 절에 갔답니다. 아, 가니깐 말이에요, 아주 춥고 그래요. 추워서 뭐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 절에 보니까 커다란 목불이 턱 있거든요, 뒤에는 탱화가 있고. 그러니까 탱화 하나면 족하겠다 하고 그냥 들어다가는 목불을 도끼로 풍풍 패서 자기 자는 방에 뜨끈뜨끈하게 때고선 터억 잤죠. 스님네들은 천도식을 하고서 새벽녘에 온 거죠. 와 보니까는 아, 불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객중이 그냥 네 활개를 쩍 벌리고 그냥 뜨끈뜨끈한 방에서 자고 있거든요, 자기네는 추워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멱살을 들어서 "이놈의 객, 이놈의 중놈, 응? 아니, 불상을 갖다가 방에다 때고선 자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니, 부처님을 이렇게 없애 놨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방방 뛰

☞ 26면으로 계속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에도 노예가 되지 말라!

☞ 25면에서 계속

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걸랑 저 아궁이에 가서 뭐 사리가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답니다. 하하하.

그래 불을 아무리 뒤져 보니 사리가 나옵니까, 목불인데. "그거 봐라. 그거는 나무지 부처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또 부처가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방방 뛰는데 아, 난데없이 어느 여인이 어린애를 못 낳는다고 삼신 불공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안 계시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방방 뛰다가 할 수 없으니까 탱화 앞에다가 밥을 지어다 놨죠, 인제. 공양을 지어다 놓고 하니까 "야, 오늘 내가 뜨뜻하게 잔 대신 내가 불공을 드려 주지." 이러고는 나가더니 이 장삼 자락을 척 쳐들더니 말입니다 왜, 다기 물 모셔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턱 담그더니만, 허허, 그 공양 해다 놓은 거를, 공양을 척척척척 둥글려서 쥐어 가지고는 그 탱화 부처님 입에다가 말입니다, 타악 붙이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생남 불공을 하러 왔으니 사내애 하나 줘." 그러고선 턱 붙여 놓고 "야, 인연 있으면 내년에 또 보세." 그러곤 가거든요.

아, 그럭하고 그냥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 절의 스님네들이 졌죠. 사리 있나 보라고 그랬고, 하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턱 붙여 놓고 갔는데 그 달부터 애기가 있어서 생남을 했거든요. 그래 그 이듬해에 생일이 되니까 또 그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는데 그 스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객승이. 나타나 가지고 "허허! 입에다 밥을 한 뭉칠 넣어 줬더니 밥값을 했구먼." 아, 이러거든요. 하하하….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참 무진 법문과 광대무변한 그런 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모든 게 둘이 아닌 도리와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그 스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아서 일체 부처님이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시는 도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울 때 나 떠나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 그 형상은 모두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은 내 마음이요, 부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마시고 진실하게 일배를 올리더라도, 백팔배를 올리기 이전에 일배도 일배요 백팔배도 일배입니다. 아침에 마음먹었던 것과 저녁에 마음먹은 것이 어찌 시간과 공간이 비어 있겠습니까? 둘이 아니거든. 그 도리는 무심 축지법을 안다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도리를 알게 되고 나툼을 알게 되는 그 법입니다, 바로.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빚이라도 내다가 상을 잘 차려 놓아야만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난하면 그냥 자기 먹는, 즉 말하자면 아주 급박하걸랑은 냉이죽을 끓여 놓더라도, 그걸로라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자3(여) 스님을 뵈니까 아, 인제 내가 불법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책이나 뭐, 다른 스님이 하신 얘기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두를 바꾸지 말아라.' 하시는데 이 참마음이라고 바꿔도 되는지요, 아니면….

큰스님 이거 보세요. 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가 없었어요. 그대로 자기 자생 화두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 몸뚱이가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어디서 찾죠?

대중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찾지요.

큰스님 수박씨를 올봄에 심어서 이게 싹이 나고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수박씨 심은 게 간 곳 없고 바로 화했죠. 싹으로 화하고 그래서 그 싹의 수박으로 화했죠. 화했는데 그 수박이 또 '이것이 뭣고?' 하고선 화두를 쥐고 있다면 그 수박 자체도 자생 화둔데…. 태어난 게 화두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런데 남이 준 거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줬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껍데기에다가 또 그것을 들고 이게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는 격이 된다면 10년 20년이 가도 그것은 은산철벽 같은 거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그 화두도 거기 놓으라는 겁니다. 몸도 공했는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한 뜻도 대략 짐작하시죠, 만날 이야기해서.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요? 공했다는 이치가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질문자3(여) 없는 데서 생겨나고 생긴 게 바로 없는 거고….

큰스님 가깝게 생각하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젊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게 늙어서 있는 것만도 아니고. 세상만사가 다 무상하다고 한 그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질 않고 찰나찰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저쪽으로 가고,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게 딱, 고정되게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 됐을 때 어디로 갔을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진짜 나에게 있구나.' 하고선 내면에 깊숙하게 내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이럭한다면 바로 입력된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는 거와 같아요. 용광로에 다 넣으면 제대로 재생돼서 쇠가 나가듯이. 그런데 이것이 재생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도 염려도 할 건 없거든요, 용광로에다 넣으니까. 그거를 다 지나면 자가발전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화두도 놔라 이겁니다. 붙들고 있을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거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화두 붙을 자리가? 또 병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가난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돌아섰다 하면 벌써 방귀 뀌고선 소리는 났는데 하나도 한 사이가 없어. 뀐 사이가 없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것이 전부 탤런트가 그냥 연극하는 거와 같고 환상이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처럼 한 찰나에 한 철 사는 거죠, 뭐. 그런데 무슨 화두가 붙을 자리가 있어요? 지금 나도 없는데, 각자. 그렇게 모두 화해서 돌아가니까요.

질문자4(남) 죽 끓는 마음에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 어, 죽 끓는 마음에. 허허허. 그래서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 주걱이 아니라 주자거든. 그건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걱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도 그놈이고 요놈도 그놈이고 요놈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그놈이구나. 아니, 팥죽 속에서 다 나온 거지, 팥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팥죽 끓듯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생명들이요,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다니거든요.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가거든. 하하하. 그런데 몸뚱인 놓고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곤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젠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 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 솥에 죽 끓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덩어리니까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는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하하하. 그리고 미우면 "어유, 그거 차에도 치여 죽지 않아?"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아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외려 죄업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둥우리는 냉랭한 둥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는 거리로 나돌다가 점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얘, 너 어디 가서 뭐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니? 뭐나 좀 먹었니? 얘, 너에게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부드럽게 해 주고, 여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종이에다가 뽀뽀 한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요렇게 해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가 너무나 따뜻하기에 화목해지고 딴 데로 이탈이 되질 않아.

맷돌에 심봉을 딱 끼고선 맷돌을 돌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을 때, 물건을 넣을 때는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맷돌이 이탈이 되죠. 그리고 그 물건도 갈리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인간이라면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지, 만날….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에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3(여) 그러면 그 펄펄 뛰는 것도 주인공의 나툼인데요, 그것을 내 안의 주인공에 놓는다 하는 그 자체도 주인공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스님 그렇죠.

질문자3(여) 그러면 어떨 때가….

큰스님 배울 때나 '놓는다, 놔라' 이러는 거지 지금도 놓고 가십니다. 아이, 지금 오실 때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발자취를? 말한 것도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 뭐, 말했으면 그냥 그뿐이고 또 말하고 그러지. 밥 먹었으면 짊어지고 있습니까? 싸지. 그저 먹곤 싸고 먹곤 싸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냥 노냥 이러셨지, 쳇바퀴 돌듯 했지 언제 짊어지고 다니셨습니까? 짊어졌다 하면 벌써 송장 되는 거죠, 뭐.

질문자3(여) 그럼 펄펄 뛰는 마음을 딱 잡아내는 것도 주인공인가요?

큰스님 이거 보세요. 펄펄 뛴다 하더라도 펄펄 뛸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그,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고 사는 것도 너다!' 아, 이러는데 펄펄 뛸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면 주인공이 외려 딴 사람을 시켜서 쿡쿡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곤 바깥으로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럭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거기서 나 공부 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고, 알았구나!' 그러고선 그냥 없어져요. 팥죽 솥에 팥죽 끓는 것 탁 치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올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그냥 주자로 쳐서 거기다 놓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어떡합니까. 내가 요구했기에 그래도 이런 소임을 맡았겠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먼지가 되든 가루가 되든 또 끝 간 데 없든, 그건 아랑곳없이 나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만나서 질문할 거 아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시죠. 허허허. 내일 또 질문 법담 서로 합시다.

> 마음이 펄펄 뛴다 하더라도 펄펄 뛸 게 없어요.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위 법문은 1991년 3월 16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buddhabook.co.kr
불교 서적
신행 용품
명상 음반
붓다북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구입처 붓다북 02) 953-7181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불자 세상보기

아동학대 · 비속살인, 우리의 '共業'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우리사회가 도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개탄의 소리는 귀에 면역이 될 정도로 들어왔다. 그래도 이런 개탄의 소리는 유사 이래 현자들의 저술 속에서도 항시 있어 왔고,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도덕적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시켜 왔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보기도 끔찍하고, 듣기도 끔찍하고,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위안이 얼마나 안이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곱 살 어린 자식(신원영)을 굶기고, 학대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의 자녀살해 사건은 '천륜의 붕괴'란 용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계모 김모씨는 모바일게임에 빠져 원영이를 굶기고 따뜻한 겨울옷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게임머니에 4천만을 썼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목사가 자녀 3명을 살해한 믿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자녀를 살해한 '비속살인'은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어쩌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와 비속살인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등교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아동 중에서 비속살인의 희생이 된 경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비속살인은 다른 범죄사건과는 고뇌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 범죄는 가족 관계의 붕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최초의 인간관계인 가족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예절을 배운다. 가족은 첫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구성원의 도덕성을 길러주는 최초의 교육 마당이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의 토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결혼률, 이혼율, 출산율 등 가정과 가족관계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통계를 보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멍해진다. 그런데 지구촌 저 쪽에서 황당한 착각이 있었으니, 2011년 노르웨이에서 기관총으로 1백 여 명을 사살한 극우 청년 '브레이그 비크'는 그의 일기장에서 한국의 가정문화와 가족관계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있는 내용을 수 십 차례나 썼다고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가정의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옛 가족윤리의 미덕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고향의 문전옥답을 그리는 것과 같다. 문제는 그 변화가 매우 파행

건강한 가족은 사회의 토대
공업윤리로 문제해결 나서야

적이고 바람직한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학대와 비속살인 사건을 보면 거의가 30대 부부가 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만큼 책임과 도덕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규범적 개탄만 하는 것은 회피이다.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로 인한 비인륜적 문제를 결코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지로 돌릴 수만은 없다.

불교에 업(業) 이론이 있다. 붓다가 당시 외도들의 숙명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출발한 업 이론은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개인 차원의 업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업인 공업(共業)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사회구성원과 사회구성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공업이다. 우리는 아동학대와 비속살인을 개인의 부도덕성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공업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前 수상 토니블레어는 집권 공약으로 '가족가치의 회복(restoration of family value)'을 내세웠고, 집권기간 동안 이의 실천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뜬구름 같은 큰 이념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이 허망해지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붓다의 공업윤리를 바탕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업윤리의 정립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기자 칼럼

미래세대 지원, 아직도 요원한가



윤호섭
취재부 기자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병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다. 실제 자승 스님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뷰나 간담회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를 두고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2015년 1월 조계종은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출범하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정했다. 이후 2차 대중공사에서 난장별 토론결과를 종합해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불교대안학교 설립 △미래세대 위한 사찰공간 마련 등의 안을 발표했다. 3월 열린 3차 대중공사에서는 당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이 "미래세대위원회를 종령기구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포교원이 주관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한데 여전히 감감소식이다. 굳이 소식을 꼽자면 여름 경 주무부서가 총무원 기획실로 바뀐 것 정도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종단활동이 단순히 포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세대위원회 구성에 관한 종령 제정도, 미래세대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잠정중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청년 불자들도 마치 예상한 결과인양 종단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차 대중공사에서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의지 문제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진정 의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자승 스님은 그동안 누차 '5°의 변화'를 강조해왔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방향을 5°만 돌려놓으면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봤을 때 큰 변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도 어디까지나 시작을 전제로 한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돌아볼 게 있을리 만무하다.

물론 올해 기획실에 미래세대 종책연구 관련 예산으로 2500만원이 책정돼 있긴 하지만 종책토론회와 연구개발비 각 5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위원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부대비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와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것이 바로 사부대중위원회다.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논란으로 지난해 7월 긴급히 의제를 변경한 5차 대중공사에서는 대중공의기구를 통해 재심논란 해법과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종단은 대중공사 결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령기구로 발족하고, 현재까지 전체 ·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일까. 최근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계획에도 사부대중위원회 보고는 있지만 미래세대위원회는 없었다. 또한 얼마 전 열린 중앙종회에서 한 종회의원스님이 종책질의를 통해 미래세대위원회의 진행과정을 물었지만 역시나 이렇다 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바르게 길러내는 일이 쉽지 않기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당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기성세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한강의 기적 아래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헬조선을 살아가고 있다. 헬조선에 태어난 지금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과 마주할까. 그리고 한국불교는 과연 미래세대와 함께 어떤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봄의 시작을 알린 3월도 어느덧 끝자락이지만 한국불교가 신경 쓰겠다던 미래세대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社說

전국비구니회 변화, 기대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회칙 제개정을 통해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 전반을 결의하는 운영위원회, 지역 의결기구인 지회를 정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4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법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목된 것은 그동안 불분명한 조항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켰던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대한 제개정이었다.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최고 의결기관 총회 활성화 △운영위원회 지회 대표 참여 확대 △집행부 기구 정비 및 활동근거 마련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절차 및 자격 기준 명시 △지회 활동의 자육성 확보 근거 마련 등이다. 이 같은 회칙 제개정은 지난해 불거졌던 내부 갈등을 넘어 결속력을 다지고 발전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선출 기준이 불분명했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명시돼 투명성이 확보된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사실, 회칙 제개정 요구는 전반적인 비구니 대중 스님들의 목소리였다. 비구니회는 지회 구성을 통해 제개정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총회준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회칙 제개정을 이끌었다.

원로회를 구성하고 장기 수익사업을 위한 비구니 사업단(가칭)과 비구니복지후원회(가칭)의 설립 승인을 받은 것도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초석들이다.

비온 뒤 땅은 굳어진다고 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비구니회가 겪었던 내홍은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부가 내걸었던 캐치프라이즈처럼 대중들을 위해 '일하는 비구니회'가 될 필요가 있다. 이번 총회 의결로 이뤄진 회칙 제개정 등이 비구니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재도약위해 다시 뭉친 불교환경연대

그동안 명맥이 끊겨 지지부진했던 불교 환경 운동이 다시 재도약을 하려고 한다. 3월 21일 불교환경연대는 신임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재 2의 창립을 선언했다. 불교환경연대의 역사는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 운동이 저변 확대 되기전 불교환경연대는 환경 파괴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주도적으로 나섰다. 창립 후에는 북한산관통도로 건설저지, 천성산 살리기,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운동 등 범사회적 환경운동을 펼쳤다.

이뿐만 아니라 서산 구리 남양주 강릉 광주 등 전국 지부를 활발히 창립하며 불교 환경운동의 지평을 넓혔다. 불교계 환경운동도 불교환경연대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거해 거의 10년 동안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10년을 기점으로 환경연대에 위기가 닥쳤다. 당시 상임대표 수경스님이 2010년 사퇴와 함께 칩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도층 부재로 인해 '숲 해설가' 양성 등 환경교육활동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6년여에 걸쳐 우리 뇌리속에 불교환경운동이란 단어는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교환경연대 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기돼 왔다. 이에 출범당시 활동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새 대표단을 추천했고 재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첫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를 주창하며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오른다. 이를 계기로 그간 미약했던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아직도 곳곳에 산재한 불교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힘든 환경을 알면서도 뒤늦게 나마 잊지 않고 다시 모여 의기투합한 새 대표단에 박수를 보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자량資糧입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이을
찾아뵙고 선지식이 머무시는 도량에서 기도 정진하는
「108선지식 구도순례」법회 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3차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일 정 : 2016년 4월 2일(토) ~ 3(일)
◆장 소 : 경북 봉화 영축산 조계종 축서사
◆소참법문 : 조실 무여스님
◆출발장소 :
❶ 4월 2일 오후 1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수운회관 앞
❷ 4월 2일 오후 1시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주차빌딩 앞
◆108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동참 문의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如一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재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1,2차 구도순례 선지식 친견과 철야 기도정진 법회는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 큰스님),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선원장 의정 큰스님)에서 진행됨.
• 「정법빠리사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참된 불자로 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며, 신심을 고양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다.
108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비라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격월로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철야 기도정진 진행.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주역과 불교의 융합과 회통! |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주역선해
周易禪解

우익지욱 저 | 길봉준 역주 | 신국판 양장
1,248쪽 | 값 85,000원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유일무이한 책!

명대明代 4대 고승의 한 사람이자 중국불교의 마지막 완성자로 추앙받는 우익지욱 선사가 천태와 유식, 화엄사상 등을 종횡무진으로 응용하여 『주역』의 심오한 이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주역 및 선해 **원문**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전서!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대지도론
大智度論

용수 著,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세트가 2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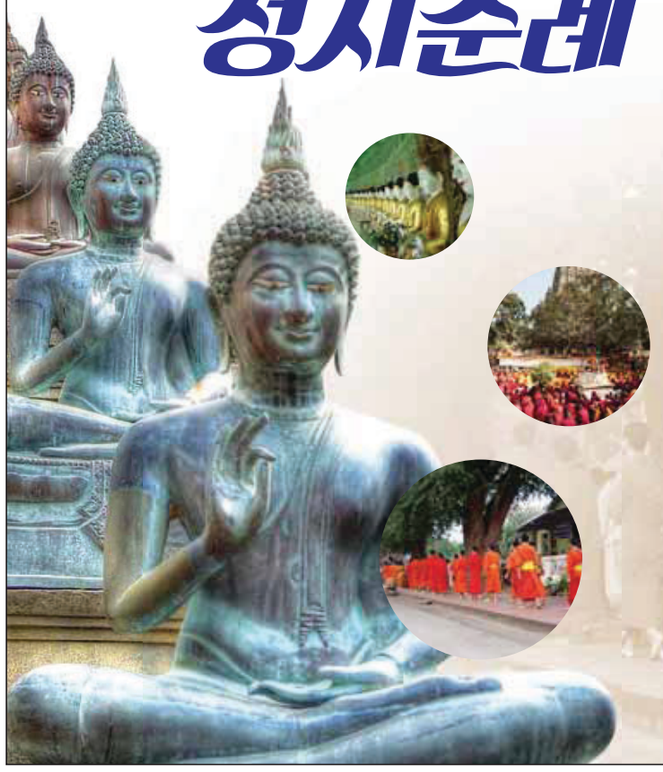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아–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HD

www.btn.co.kr



뮤직에세이
편지

방송시간 매주 **화 11:20, 토 13:50, 일 21:50**

1부 불교계 최강의 DJ 성전스님과 함께..
2부 어라?지찬스님과 차차!효산스님의 환상콤비토크

사연접수
메일 : post@btn.co.kr
전화 : 1부) 02-3270-3438
2부) 02-3270-3429

skylife 171번 KT olleh 233번 SK Btv 555번 LG U+TV 185번 | 케이블채널안내 | 02.3270.3300 | 방송포교후원ARS | 060.800.7000